

# 성령으로의 세례

조동호 지음



BASED ON EPHESIANS 1:13-14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

# Baptism with the Holy Spirit

DONG-HO CHO

Christian Church Studies, 2012

20-10 Beonyeong 8-gil Kyeryongsi Choongnam

Korea, 321-931

Tel(042)841-9697

## 머리말: 구약은 신약체결의 모형

히브리인들이 지상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한 날이 오순절 날이다. 이 날은 히브리인들의 성력으로 셋째 달(시반) 6일이었다. 첫째 달(니산) 15일이 시작되는 첫 유월절 밤에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 죽음을 모면한 히브리인들은 같은 날 아침에 이집트를 탈출하여(출 12장) 한 달 만에(이야르 15일) 신 광야에 당도하였다. 이곳에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기 시작하였다(출 16장). 그리고 보름 후에 시내 산에 당도했는데, 이 날은 이집트를 탈출한 지 45일째 되는 셋째 달(시반) 초하룻날이었다. 그리고 5일간의 준비 끝에 50일째 되는 첫 오순절 날(시반 6일)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 하나님과 언약식을 치렀다(출 24장). 이 때 지키기로 한 율법(토라)이 구약(舊約, Old Testament)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늘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도록 교회공동체를 세우신 날도 오순절 날(30년 5월 28일)이다. 이날 아침 9시경에 성령님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임재 하였고, 베드로가 최초로 복음을 선포하였다. 이후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선포한 말씀들(케뤼그마)과 기록한 말씀들(신약성경)이 신약(新約, New Testament)이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날(30년 4월 7일)에 마치 유월절 양의 희생처럼 인류를 죽음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이 홍해를 건넌 것처럼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이란 바다를 건너셨다. 또 히브리인들이 40년간 광야에 머물렀던 것처럼, 또 홍해를 건넌지 40여일 만에 시내 산에 당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40일간 사람들에게 보이신 후에 승천하셨다. 승천하시고 10일간은 교회공동체가 출범되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다. 히브리인들이 시내 산에 당도하여 5일간 언약식을 준비했던 것과 같

다. 이런 점에서 오순절 날은 구약(舊約, 옛 언약)과 신약(新約, 새 언약)이 체결된 의미가 큰 날이다.

첫 오순절 날 구약공동체(이스라엘)가 탄생될 때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에게 친히 임재 하셨듯이, 주후 30년 5월 28일 오순절 날 신약공동체(기독교)가 탄생되던 날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재 하셨다.

이 오순절 성령강림의 의의를 살펴 본 글이 1995년에 작성한 제1부 성령세례론 고찰이고, 1997년 무렵까지 작성한 설교들이 제2부 성령에 관한 설교이며, 1987년 가을학기부터 시작한 성령론 강의를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 제3부 성령론 요약이다. 특히 제3부 성령론 요약은 필자가 미국 신시내티 크리스천 대학교(Cincinnati Christian University) 신학대학원(Cincinnati Bible Seminary)에서 4년간 재학하는 동안 많은 수의 과목들을 수강했던 존경하는 Dr. Jack Cottrell의 성령론 교재를 근거로 컴퓨터가 대중화되기 이전인 1980년대 말에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여 몇 년간 강의교재로 사용했으나 신약신학 분야에 집중하기 위해서 성령론 강의를 중단하게 되어 오랫동안 묵혀 두었던 것을 이번에 타이핑하여 본서 『성령으로의 세례』에 삽입하게 되었다. 이 부족한 책이 성령님에 대한 이해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지만 한다면, 수고에 대한 보람과 기쁨이 될 것이다.

2012년 10월 2일  
소광(素光) 조 동 호

## 차례

머리말: 구약은 신약체결의 모형 .....	3
<b>제1부 성령세례론 고찰 / 7</b>	
들어가는 말 .....	7
1. 성령세례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 .....	9
가. 성령세례는 성령의 외적 사도적 능력이라는 견해 .....	10
나. 성령세례는 사도시대 이후 종결되었다는 견해 .....	45
2. 성령세례에 대한 성경적 이해 .....	48
가. 성령의 내주 동거로서의 오순절의 축복 .....	48
나. 성령세례의 정의 .....	53
나오는 말 .....	82
참고서적 .....	83
<b>제2부 성령에 관한 설교 / 87</b>	
1.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	87
2.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1) .....	92
3.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2) .....	98
4. 성령은 어떻게 받는가? .....	104
5. 성령은 언제 받는가? .....	109
6.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가? .....	115
7. 보혜사 성령 .....	120
8. 오순절과 성령강림절의 관계 .....	124
<b>제3부 성령론 요약 / 131</b>	
서론 .....	131

1. 어휘 .....	133
2. 성령의 인성 .....	137
3. 성령과 성경 .....	144
4. 구약에서의 성령의 역할 .....	155
5. 성령과 그리스도의 삶 .....	158
◆ 오순절의 축복은 성령의 은사들인가? .....	159
6. 성령시대으로써의 메시아시대 .....	165
7. 회심이전의 성령사역 .....	170
8. 회심중의 성령사역 .....	173
9. 회심후의 성령사역 - 성령의 성화사역 .....	180
◆ 성령의 인도하심(1) .....	182
◆ 성령의 인도하심(2) .....	188
10. 회심후의 성령의 사역 - 성령의 도구화의 사역 .....	197
11. 오순절 운동 개요 .....	206

## 제1부 성령세례론 고찰

### 들어가는 말

한국 기독교는 지난 반세기 동안 성령운동을 힘입어 양적으로 크게 부흥 성장한 긍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는 반면, 주관적인 체험 신앙의 지나친 강조 때문에 질적인 성장이 함께 이루어지지 못한 부정적인 측면도 갖고 있다. 성령세례를 최 일선에서 부르짖고 있는 일부 교회나 지도자들이 성경에 바탕을 둔 체계 있는 성령론을 제시하지 못한 점도 있고, 체험신앙과 기복신앙의 높은 목소리에 밀려 정통적인 성령론이 제 위치를 지키지 못한 점도 있다. 실정이 이렇다 보니까, 한국교회는 이기적 기복신앙의 울타리에 갇혀, 교회 본래의 선교적 사명을 충분히 감당치 못했고, 그 대가로 교회가 점차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필자는 학창시절 방언 말함과 성령 충만이 크게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신앙교육을 받았다. 성령을 받는 데 필요한 모든 교육도 받았고, 또 실제로 남보다 더 열심히 신앙수련에 참여하여 열심히 방언 기도도 하였다. 신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도 어린 시절 배운 성령에 관한 내용대로 방언이나 신유와 같은 성령의 은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구원과 전혀 별개의 것으로 생각했었다. 그러나 대학원 때부터는 성령과 은사보다는 성령과 구원에 보다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성령시대로서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했다. 성령과 구원, 성령과 교회, 성령과 종말론, 성령과 성례전에 눈을 뜨면서 이제까지 교회가 본질적인 것, 내적인 것, 영구적인 것보다는 비본질적인 것, 외적인 것, 증거적인 것, 일시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어 가르쳐왔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이러한 체험은 주정적인 신앙체험에서 출발해서 주지적인 신앙체

험에 도달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필자는 이 체험을 통해서 거듭나는 신앙체험을 갖게 되었다. 마르틴 루터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롬 1:17)는 신앙적인 발견이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의 발견과 비교되듯이 성령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사와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의 세례의 중요성과 이 성령으로의 세례를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을 통하여 값없이 선물로서 침례의 때에 성화의 삶과 구원의 시작과 하나님의 나라의 선취적 맛봄과 구원의 보증, 인침, 약속으로써 주신다는 발견이 자못 충격적인 것이었음을 고백치 않을 수 없다.

중세기 천주교회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인위적인 신앙이었다면, 루터의 성경적 발견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시는 신본위의 신앙이라고 말한다. 기독교의 본질은 인간이 신을 찾는 노력에 있지 아니 하고,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기독교를 사랑과 계시의 종교라고 말한다. 이 점이 기독교를 타종교와 근본적으로 차이 나게 한다. 성령으로의 세례 혹은 성령세례 역시도 인간이 먼저 이것을 추구한 것이 아니며, 이를 알지 못하던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먼저 약속한 것이며, 오순절 성령강림이후 모든 성도들에게 선물로 주시기 시작한 것이 은혜시대의 최대의 선물이며, 또한 이 시대를 종말론적인 시대로 만드는 근본 요인이 되기도 한다. 성령세례는 기독교의 본질이 그렇듯이, 인간이 찾아 추구하는 것이 아니며, 행위로서 얻는 것도 아니며,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침례의 때에, 성화와 구원의 성취를 목적으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점에서 신 본위 신앙에 바탕을 둔 것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성령세례를 새롭게 규명하여 성령의 은사가 성령세례로 잘못 이해되고 있는 점을 성경적으로 바로 잡고, 성령세례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주시는 성령으로의 세례란 점과 성령시대로서의 교회시대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그리고 성례전과 관련하여 명료하게 밝히는데 있으며, 그 중요성을 고찰하는데 있다. 이 목적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먼저 성령세례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부터 살펴보



고, 계속해서 성경적인 고찰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 1. 성령세례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

성령세례에 관한 학자들의 견해는 크게 두 줄기로 나누어진다. 오순절 계열의 성령 운동가들이 그 한 줄기이고, 이들과는 정반대의 견해를 갖고 있는 일부 보수주의 학자들이 다른 줄기이다. 그리고 이 두 줄기는 성령세례가 성령의 신령한 은사와 성령 충만 이라는 원줄기에서 갈라진다. 이들 양대 학자들은 성령세례를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성령으로의 세례로 이해하기보다는 성령께서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주시는”(고전 12:11) 은사들 즉 기적의 권능으로 잘못 이해함으로써 오순절의 축복에 대한 핵심을 바로 잡지 못하고 있다.<sup>1)</sup> 그리고 이들 두 그룹들은 성령세례를 기적적인 성령의 은사들, 특히 방언 말함과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오순절 계열의 성령 운동가들은 이들 은사들이 모든 시대의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지는 지속적인 것으로 믿고 있는 반면,<sup>2)</sup> 일부 보수 신학자들은 이들 은사들이 사도들의 손에서 끝났다고 믿고 있고, 성령세례를 사람의 안수에 의하지 않고 하늘로부터 직접 내린 성령강림 사건 즉 오순절 성령강림과 고넬료 가정의 성령강림 두 번의 역사적 사건에만 국한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sup>3)</sup> 이제 이들의 견해를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다.

### 가. 성령세례는 성령의 외적 사도적 능력이라는 견해

성령세례를 성령의 능력 부어 주심으로 보는 견해는 오순절 운동

1) Jack Cottrell, "Are Miraculous Gifts the Blessing of Pentecost?" *The Christian Standard* (Cincinnati: Standard Publishing Co., May 1982), p. 9.

2) Cottrell, p. 10.

3) Gareth L. Reese, *New Testament History: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Book of Acts*(Joplin, Missouri: College Press, 1983), pp. 92-94.

의 일반적인 주장이며, 성령의 은사와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 운동의 대표적인 인물들의 견해들을 모아 보았다.

한국 오순절 운동의 대표적인 인물인 조용기 목사는 성령세례를 중생과 구별하여 강하게 역사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보고 있으며, 방언을 성령세례의 표적으로 믿고 있다.<sup>4)</sup> 그러나 최근에 발간된 『여의도 순복음 교회의 신앙과 신학』에 의하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일하시는 성령의 사역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구원의 역사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성령을 중생의 수단으로, 성령의 내주하심을 중생의 결과로 보고 있다.<sup>5)</sup>

하나님의 성회 신학대학원의 윌리엄 멘지즈(William W. Menzies) 교수는 오순절 운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성령세례라 불리는 능력부여의 체험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표적을 동반함으로써 증거 돼야 함을 믿는다. 이 체험은 전통적인 성결교회의 ‘제 2의 축복’으로부터 구분되어야 한다.”<sup>6)</sup>

토리(R. A. Torrey)는 성령세례가 무엇인가를 스스로 묻고 세 가지로 대답하였다. 첫째, 성령세례는 그것을 받았다는 분명한 체험이 있어야 한다. 둘째, 성령세례는 성령의 중생의 사역과 구분되며,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에 덧붙여 주시는 역사이다. 셋째, 성령세례는 권능을 수반하며, 이 권능은 복음의 증거와 봉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다.<sup>7)</sup>

토리는 성령의 씻음과 중생의 새롭게 하심을 성령세례라 하지 않고 성령의 외적 증거인 능력과 은사들을 성령세례라 하였다. 토리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신자들 안에서 역사 하시는 성령의 내주 동거하심을 인정하면서도 거듭난 자들의 심령 속에 계시면서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임마누엘의 종말론적인 성령의 역사를 차별하여 “성령이 내재하심을 의식치 못할 만큼 계신 것과 충

4) 국제신학연구원, 『여의도 순복음 교회의 신앙과 신학』(서울서적, 1993), 67-68쪽; 황승룡, 『개혁교회와 성령』(성광문화사), p. 69.

5) 국제신학연구원, 56-57쪽.

6) 이재범, 『성령과 선교』(보이스사, 1986), p. 73.

7) R. A. Torrey, 『성령의 사역』(기독교 문서 선교회, 1984), 이성강 역, 157-163쪽; 『성령론』(대한기독교서회, 1989), 심재원, 김수진 옮김, 112-122쪽.

만한 것, 즉 성령세례를 받은 것과는 다른 것이라”고 구별하였다. 그는 또 모든 신자가 성령을 소유하고 있지만, 모든 신자가 다 성령세례를 소유한 것은 아니다<sup>8)</sup> 라고 말함으로써 성령께서 주시는 외적이고 증거적인 또는 일시적인 은사를 내적이고 영구적이며 구원을 성취하시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함께 하심보다도 더 중요한 것으로 강조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성령세례를 성령께서 부어 주시는 은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이는 성령시대의 독특한 특징이 될 수 없으며, 구약시대와 비교해서 전혀 새로운 것도 아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뒤에서 논의하기로 하겠다.

오순절 신학에서는 방언 말함을 하나님과 두 번째 만나는 사건이라고 말한다. 첫 번째 만남은 회개의 때에, 두 번째 만남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에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이를 성령세례라 부른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체험의 유무는 방언이 증거가 된다. 방언을 하는 사람은 두 번째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고,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두 번째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구원과 중생의 역사보다는 방언 말함을 더 중요시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방언을 해야만이 성령을 받은 것이라 하여 성령의 역사와 내재하심이 없는 구원을 주장하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sup>9)</sup>

오순절 운동의 구원론은 크게 2단계론과 3단계론으로 나누어져 있다. 2단계론은 성결교회와 웨슬리안주의 신앙으로써 제 1단계가 이신칭의의 단계이고, 제 2단계가 성령세례(또는 제 2의 축복)의 단계이다. 전통 보수신학과 달리 성화의 시간과 내용 면에서 회심과 구별하여 완전성화가 명확한 시간에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전통 보수신학은 중생과 초기성화는 동시적이며, 죄와 부패로부터의 이중적인 치유를 믿으며, 중생후 기독교인의 생활은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점진적으로 성화 되며 말씀과 은혜 안에서 지속적으로 성장

8) R. A. Torrey, 『성령론』 *op. cit.*, 117-118쪽. See also Frederick Dale Bruner, *A Theology of the Holy Spirit: The Pentecostal Experience and the New Testament Witness*(Grand Rapids: WM. B. Eerdmans, 1982), p. 46.

9) 『성령과 선교』 pp. 122-123.

한다고 믿는다.

3단계론은 세이뮤(Seymour)를 중심으로한 오순절 운동가들의 신앙으로써 2단계 구원론에 방언을 지칭하는 성령세례의 단계를 추가한 구원론을 말한다. 이는 중생과 성화와 성령세례가 각각 시간적으로 분리되어 단계별로 이루어진다는 주장이다. 오순절 교회의 더햄(Durham)은 3단계론에 반박하여 그의 독특한 2단계론을 펼쳤는데, 제 1단계를 중생의 단계, 제 2단계를 방언을 말하는 성령세례와 점진성화를 주장하였다.<sup>10)</sup>

미국 감리교회의 성결운동은 성화의 동시적 체험 또는 칭의 후 '제 2의 은혜의 사역'을 주장함으로써 칭의와 성화를 시간적으로 별개로 구분하였다. 이것이 오순절 신앙의 핵심 내용이 되었다. 이를 회심후 동시적으로 체험되는 성령세례라 한다. 이것은 구원을 위한 두 가지 별개의 체험을 말한다.

요한 웨슬리는 칭의와 성화가 이루어지는 시간을 별개의 것으로 보았다. 그는 그의 서신에서 "(칭의는 물론 성화의) 사역 그 자체는 틀림없이 동시적이다. 죄의 권세와 유죄성을 점진적으로 깨닫고 일순간에 칭의 되는 것처럼, 같은 성질의 죄에 대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깨달음으로 일순간에 성화 되어질 것이다"라고 하였다. 대다수의 오순절 운동가들은 이 웨슬리의 후속적 동시적 체험에 대한 이해를 수용하여 웨슬리의 성화의 교리를 성령세례로 대치 시켰다. 성령세례를 웨슬리의 완전성화와 동일시한 것이다.

감리교 운동이나 오순절 운동이나 성령세례이든 성화이든 칭의 후 어느 시점에서 획득되는 것으로 강조하고 있는 점에서는 모두가 같다. 그래서 오순절 계열의 교회에서는 이 웨슬리의 완전구원과 성화가 성령세례를 받음으로써 성취되며 방언을 이 성취를 입증하는 것으로 가르친다. 그리고 성령세례 체험에 대한 갈망이 성화를 포함해서 다른 모든 교리를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었다. 특히 오순절 운동에 미친 감리교회의 영향은 회심후에 이루어지는 체험에 초점을 맞추게 하였고, 결과적으로 회심 이상의 어떤 조건들 또는 성령세례

10) 이재범, 『성령운동의 역사』(보이스사, 1985), pp. 121-122.

를 받기 위한 성화의 믿음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다시 말해서 성화 또는 성령세례는 칭의와는 별개의 은혜의 사역을 요구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를 '제 2의 은혜의 사역'이라고 일컫는다.<sup>11)</sup>

보드만(W. E. Boardman)은 그의 저서, 『더 높은 그리스도인의 삶 (The Higher Christian Life)』에서 이를 '제 2의 경험' 또는 '제 2의 회심'이라고 명하였고, 이는 때때로 첫 회심 후(칭의) 수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하여, 칭의와 성화의 시간을 별개로 구분하였다.<sup>12)</sup>

이상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오순절 운동가들의 성령 세례론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선물로서 주시는 성령으로의 세례에 중심을 두지 않고,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그 뜻대로 나누어주시는 은사, 특히 방언 말함에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

이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성령세례는 중생과 구분되며 후속적이다. 둘째, 성령세례는 방언 말함에 의해서 초기에 입증된다. 셋째 성령세례는 성실하게 추구되어야 한다. 이 세 가지를 더욱 간단하게 축약하면, 첫째 후속, 둘째 증거(방언 말함), 셋째 조건들(획득을 위한 요구 조건들)이다.<sup>13)</sup> 이러한 주장들이 과연 성경적인 구원론과 일치하는 것인지를 모든 신앙인들은 차분히 따져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런 성실한 노력들은 결코 성령의 은사들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자는 것이 아니다. 은사의 가치와 중요성을 주장하더라도 성경적인 이해에 뿌리를 두고 하자는 것이다.

오순절 성령운동은 사도시대의 초자연적이고 비범한 그리고 가시적인 성령의 사역을 현시대에 그대로 재현한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sup>14)</sup> 그러므로 이 운동은 자칫 성령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제 2, 제 3의 마술사 시몬이 나오지 않도록 부단한 성경적 점검이 필요하다. 오순절 성령운동가들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많은 조건들을 제시해 왔다. 그 동안의 부흥집회들로 보아서도 그렇고, 또 그들

11) Bruner, *op cit.*, pp. 37-38.

12) *Ibid.*, p. 43.

13) *Ibid.*, p. 61.

14) *Ibid.*, p. 20.

이 펴낸 서적들의 내용으로 보아서도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이런 오순절 운동의 특징을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 (1) 후속 교리에 대한 비판

후속 교리란 성령세례가 중생의 체험시간보다 후에 따르는 성령의 사역이란 가르침이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제 2의 축복' 또는 '제 2의 회심'은 중생의 체험후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시간의 격차를 두고 체험하는 것으로 믿고 가르친다.

오순절 성령강림이 최초의 성령강림으로써 아버지의 약속 또는 구약예언의 성취란 점은 누구도 부인치 않을 것이다. 전통적으로 주후 30년 오순절 날은 교회의 창립은 물론 구약의 율법시대와 신약의 은혜시대 또는 성령시대의 분기점으로 믿어지고 있다. 이 날은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시작된 날이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도와 함께 하기 시작한 날이다. 이때부터 성령을 통해서 개인 구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성령을 통해서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개개인의 삶 속에서 선회되어지고 맞보아지고, 성령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 즉 예수 재림시의 부활을 보증 받고 인침 받고 약속 받게 되었다.<sup>15)</sup> 이런 점에서 성령체험은 제 2의 체험 또는 후속적인 체험일 수 없다. 성령은 신자의 구원을 성취시키신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물론 성령세례를 방언 말함이나 신령한 은사라고 본다면, 사람에게 따라서는 구원받은 후에 이와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다고 보아서 후속성을 인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보다 큰 문제는 토리와 같은 일부 학자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오순절 운동가들이 방언 말함을 성령 받은 최초의 증거라고 말하는 데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은사체험이 반드시 후속적일 수도 없다. 성령의 은사는 외적이고 증거적인 것이기 때문에 신자가 아닌 자들 즉 당나귀나 발

15) Gerhard Kittel and Gerhard Friedrich, ed., *The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translated by Geoffrey W. Bromiley(Grand Rapids: WM. B. Eerdmans, 1981), vol. 1, s.v. "ἀρραβών"(p. 475); 안토니 A. 후크마, 『개혁주의 종말론』 유호준 역(기독교문서선교회, 1986), 80-96쪽; 김균진, 『기독교 조직신학』 III권(연세대학교 출판부, 1987), 13-81쪽.

람 혹은 하나님의 신이 떠난 사울 왕에게도 임할 수 있었다(민 22-24 장; 삼상 19:18-24). 성령의 은사는 구원과는 전혀 별개의 것이며, 일시적인 것이었다. 일시적인 체험으로는 모세를 도와 이스라엘을 지도할 70명의 장로와 유사들에게도 있었다(민 11장).<sup>16)</sup>

오순절 성령강림은 제 2의 체험 또는 후속적인 체험일 수 없다. 사마리아 교회와 에베소의 열두 제자에게 내린 성령의 은사인 방언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유대인 교회 창립과 이방인 교회 창립의 의미를 갖는 오순절과 고넬료 가정의 성령강림은 후속적이라고 볼 수 없다. 오순절의 경우는 아직 교회가 세워지기 이전이며,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한,' 중생의 도가 아직 선포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오순절 체험이 후속적 체험이 될 수 없다. 고넬료 가정의 경우는 복음이 선포되는 도중에 중생의 체험이 있기 전에 성령의 강림이 우선하였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교회에 받으시고 구원키로 작정하셨다는 뜻을 표명하신 것으로써 오순절 교회 창립 때와 마찬가지로 고넬료 가정의 성령강림도 사람을 통하지 않고 위로부터 내린 강한 역사였다.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강림은 제 2의 체험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오순절 운동가들은 이를 후속체험으로 해석한다. 이를 입증키 위해서 요한복음 20장 22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직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내용이다. 이 말씀을 인용하여 오순절 운동가들은 제자들이 이미 최초로 성령을 받았다고 주장한다.<sup>17)</sup> 그리고 이때에 받은 성령은 중생을 위한 대리자로서의 성령에 의한 것이며, 오순절의 성령강림은 후속적인 충만한 성령세례라고 주장한다.<sup>18)</sup>

그러나 요한복음 20장 22절이 대리자로서 성령에 의한 세례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왜냐하면, 이는 예수께서 대리자로서 주

16) C. F. Keil and F. Delitzsch,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in Ten Volumes*, vol. 1: *The Pentateuch*(Grand Rapids: WM. B. Eerdmans, 1986), s.v. "Numbers 11:16-30."

17) Bruner, *op cit*, p. 60.

18) *Ibid*, p. 63.

시는 세례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말대로 오순절 성령강림이 그리스도에 의한 세례라면, 요한복음 20장 22절의 말씀은 같은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강림이 그리스도에 의한 세례라면, 더 더욱 후속적인 것이 될 수 없다. 하나님 혹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선물로 주어지는 성령은 구원을 성취하시는 성령으로의 세례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오순절 성령강림과 고넬료 가정의 성령강림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성령으로의 세례와 성령이 주시는 방언(외국어)이 교회창립을 위해서 증거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행 1:4)은 ‘성령으로의 세례’를 말한다. 이것은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질 구약의 3대 예언 가운데 하나였다(사 44:3; 겔 36:25-27; 요엘 2:28-29). 이 약속을 사도들은 받고 있다(요 14:26-27; 15:26; 행 1:4). 이 약속은 성령의 은사와 구별되어야 한다. 구약시대와 예수 때에도 신유, 예언, 방언과 같은 성령의 은사가 이미 존재했었고, 제자들도 이와 같은 체험들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이미 존재하는 것과는 크게 다른 것이 틀림없다.

성령으로의 세례는 내적이며, 개인적이며, 우주적이며, 구원과 성화를 위한 것이며, 항구적이며,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아래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내주 동거의 역사가 필요치 않았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는 증거적이며, 공적이며, 제한적이며, 일시적이며, 공익을 위한 봉사(복음 전파를 도구)를 위한 것이다. 구약시대에도 이러한 역사는 얼마든지 있었고 전혀 새로운 것이 못된다. 구약시대의 성령의 역사의 특징은, 첫째, 외적인 은사와 도구의 역사뿐이었다. 둘째, 특정인에게만 은사가 주어졌다. 셋째, 내적인 구원과 성화의 역사는 없었다. 넷째, 은사가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적이 없었다. 다섯째, 은사는 언제나 임시적이었다. 여섯째, 은사와 함께 표적이 따랐다. 그러나 일시적인 것이었다. 일곱째, 은사는 신자가 아닌 자에게도 주어졌다(삼상 10:10; 16:13-14; 19:20-23; 민 11:25; 24:2). 따라서 약속으로써의 성령세례는 성령의 은사와는 다르다.



성령으로서의 세례는 이 시대를 성령의 시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종말을 선취하는 시대로, 우주적인 구원의 시대로, 종말론적인 메시아 시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임마누엘의 시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삶 속에서 경험하는 교회시대로 만든다. 따라서 성령으로서의 세례는 믿는 자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어진다.

오순절 날 사도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으로서의 세례'와 '성령의 은사'를 함께 체험하고 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으로서의 세례가 주어짐으로써 이 시대가 우주적인 구원의 시대(은혜 시대)로 돌입하게 되었다. 이 은총이 사도들을 통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사도들이 특별한 것은 오순절 날에 이들이 특별한 성령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이다.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성령으로서의 세례를 성령의 은사와 크게 구별 없이 초대 교회의 시작과 발전이라는 사건 중심으로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을 마치 방언이나 신유와 같은 성령의 은사로 오해하고 있다.

성령으로서의 세례는 바울서신에서 더욱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다. 그 이유는 바울 서신이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누가의 사건 보도와 바울의 해석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우주적인 만인 구원의 시대,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상에 세워지는 교회 시대를 시작한 사건이 었다는 점과 사도들에게 특별하게 내리신 성령의 외적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창립(30년)하고 성경을 쓰도록 하였다는 점을 이해하게 된다. 성령의 외적인 은사는 전달자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입증하는 증거적인 역사이다. 교회와 성경은 사도들의 놀라운 능력의 사역과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

요한복음 20장 22절을 근거로 오순절 성령강림을 후속적으로 설명하려는 오순절 운동가들의 잘못은 다음과 같은 이유들에서 계속된다.

부활 직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도마와 맛디아가 빠진 열 명의 제자만이 참석하고 있었다. 도마는 이 때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고, 맛디아는 아직 제자로 뽑히기 전이었다.

오순절 성령강림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에게 임하였다고 보는 것이 오순절 운동의 일반적인 통례인데, 그렇다면 열 명의 제자를 제외한 110명의 사람들은 언제 누구에게 성령에 의한 중생의 세례를 받았는가?

요한복음 7장 39절에 의하면, 38절의 “나를 믿는 자는 성령에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리라”는 예언의 말씀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한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 하시더라”고 하였다. 또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예수는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 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교회 창립 이전까지의 시대는 율법시대요, 아직 은혜의 시대가 도래치 아니 하였는데, 제자들이 중생의 세례를 받았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은 요한복음 20장 22절의 말씀을, 첫째 오순절 성령강림에 대한 상징적 예언으로 보기도 하며, 사도 직분을 위한 도구화 즉 사도직분 임직식으로 보기도 한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직분을 인계한 것처럼, 예수께서도 제자들에게 사도직분을 임명하신 거룩한 예식이었을 것으로 추측하기도 한다.<sup>19)</sup>

후속성을 주장하는 리그(Rigg)는 사도행전 2장 38절의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의 말씀을 회개 때 성령께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례 베풀 것이다(회심). 그러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를 위해 공중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라고 주석 하였다.<sup>20)</sup> 이는 첫째, 성령에 의해서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그의 몸으로 인도되어 개심 하게 되며, 둘째, 물세례로서 상징되어지고, 셋째, 후속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가득 채워질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

19) 조동호, 『성령론 교재』(한성신학교), p. 26.

20) Bruner, *op. cit.*, p. 64.

서 주목해야 할 이들의 주장은 세 가지 세례이다. 첫째, 회심 때에 성령에 의한 회개자들의 세례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도되는 것을 말한다. 둘째, 신앙고백과 함께 받는 물세례가 있다. 셋째, 그리스도에 의한 신자들의 세례로서 오순절 경험과 같은 성령 충만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세 가지 단계의 주장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침례와 구원과 성령의 임재는 동시적이며 일시적이기 때문이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엡 4:5)라고 말하고 있고, 고린도 전서에서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고전 12:13)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례가 하나라는 말은 성령세례와 침례가 시간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점을 성경은 말한다. 이 천년 교회 전통으로 볼 때, 침례를 받을 때로부터 모든 그리스도인이 입교인이 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교회론 적으로 볼 때, 입교인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말과도 같다. 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는 말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말인데, 그리스도의 몸은 곧 교회를 말한다. 이와 같이,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시간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시간이 일치하고 있다. 그러므로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의 말씀은 침례의 때에 죄 사함(중생함)을 받고 같은 시간에 성령으로의 세례를 받는다는 말씀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렇게 믿어왔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어지는 세례는 성령으로의 세례를 말하고, 교회로부터 받는 침례는 침수세례를 말한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은 성령에 의해서 주어지는 신령한 은사나 성령에 의해서 채워지는 신령한 열매를 말한다. 이 점이 혼동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구원론과 교회론 그리고 종말론적으로 볼 때, 입교인의 자격이 주어지는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공식적인 시간이요,

이 시간이 침례의 때이다. 그리고 구원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개인에게 혹은 교회에 임함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으로의 세례가 없는 구원을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말할 수 없으며, 침례 받음이 없이 입교인이 될 수 없는 것처럼, 공식적이고 형식적인 측면에서 볼 때, 침례 받음이 없이 이 모든 축복을 누린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에 의한 선물 즉 은사의 축복에 국한하지 않고서는 후속성을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아무데도 없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오순절 운동가들은 구원과 성령세례를 시간적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성령세례가 후속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펠만(Pearlman)은 신약성경이 성령의 소유 없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고, 중생한 사람치고 성령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성령세례 즉 오순절 세례를 받기까지는 성령께서 영구적으로 개인적으로 혹은 충만하게 내주 동거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성령세례를 받아야 비로소 내주 동거하신다고 말한다.<sup>21)</sup> 오순절 성령강림의 의미를 방언에 두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오순절 운동가들의 생각이 다 잘못된 것만은 아니다. 비중 있는 오순절 신학자들은 성령을 내적이고 개인적인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보지 않고 권능적인 측면에서 이해한다. 체험이 구원에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영적 능력에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 . .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종종 이를 입증키 위해서 사용된다. 토리(Torrey)나 윌리엄즈(Williams)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남기신 이 약속의 주된 양상을 영생을 위한 중생에 두지 아니하고, 사역을 위한 권능에 두고 있다.<sup>22)</sup> 토리는 성령의 내주 동거의 축복과 권능으로써의 성령세례를 다르게 보았고, 오순절 운동가들이 다 그렇

21) *Ibid*, p. 73.

22) *Ibid* R. A. Torrey, 『성령론』 *op cit*, 120, 137쪽.

듯이 토리도 권능의 측면에 더 비중을 두었을 뿐이다.

오순절 신학자인 윌리엄즈는 성령세례를 전도나 선교적 차원에서 이해한다. 성령세례는 그리스도인들을 제자화시키는 권능이지, 개인의 중생을 위한 것이 아니며, 남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지, 자신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한다.<sup>23)</sup> 만일에 성령의 아홉 가지 은사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될 수 있는 우주적인 은사가 아니라 점만 인정한다면, 윌리엄즈의 이러한 언급은 대단히 성경적이다. 성령의 은사가 지금도 필요하고, 지금도 수여되는 축복일지라도 모든 성도가 다 같은 은사를 받는 것은 아니며, 또 구해서 받아질 성질의 것도 아니다(고전 12:29-30). 그러나 오순절 운동가들은 은사와 성령의 세례를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고 있고, 은사를 받아야 성령세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 (2) 초기 증거설에 대한 비판

도날드 지(Donald Gee)는 “오순절 교회들의 특이한 교리는 방언 말함을 성령세례의 초기 증거로 믿는 것이다”라고 적고 있다. 그리고 성경적 배경으로는 사도행전 2장 4절, 10장 44-47절, 19장 6절을 인용하고 있다.<sup>24)</sup> 오순절 성령강림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현상, 듣는 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과 같은 유일하고 반복될 수 없는 현상이 수반된 사례였다. 그러나 오순절 운동가들은 소위 오순절의 반복될 수 있고 형태형성 현상 즉 방언 말함으로 증거 되는 성령 충만(행 2:4)으로부터 유일하고 반복될 수 없는 현상(행 2:1-3, 5-13)을 분리한다. 바람, 불, 또는 비교 될 만하고 주목할 만한 표명들이 구약아래서도 표적으로써 일어났었으나 방언은 결코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방언 말함이 신약아래서 성령임재의 초기 표적임을 의미한다고 결론짓는다. 이들은 방언 말함이야말로 모든 다른 성령세례에 대한 유일한 권위 있는 형태를 구성한다고 주장한다. 사도들은 오순절 이전에 이미 그리스도인들이었으며, 방언을 말함으로써 성령 충만의 증거를 가지게 되었고 비로소 성령 충만

23) Bruner, *op cit*, p. 74.

24) *Ibid*, p. 76.

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브라질에서 가장 큰 오순절교단의 신앙고백 제 8조는 “성령세례는 그 표적으로써 사도들이 받았던 똑같은 증거 즉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세계 오순절 운동의 대다수의 확신을 대표하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 해주는 성경적 근거로서 사도행전 10-11장을 들고 있다. 여기서 고넬료 가정의 성령강림은 오순절 성령강림과 같은 것이며, 방언은 오순절 성령강림의 유일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사도행전 19장 1-7절의 에베소의 열두 제자들에게 있었던 사건과 사도행전 8장의 사마리아에서의 사건을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가정의 사건과 오순절 사건의 맥락에서 보고 있다.<sup>25)</sup>

마가복음 16장 7절의 “새 방언”은 사도행전 이외의 말씀으로는 유일하게 성령세례의 증거로 인용되고 있다. 이 말씀은 방언을 성령의 은사에 대한 초기의 증거로서 예수께서 주신 약속으로 보며, 사도행전은 역사적으로 입증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다고 오순절 운동가들은 믿고 있다.<sup>26)</sup>

사도행전과 마가복음 16장 17절의 특이한 해석이외에 성령세례의 초기 증거로서는 체험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비오순절 계열에서는 사도시대의 특이한 성령의 표명은 명령적이거나 반복될 수 있는 표징적인 것보다는 시대적이라고 설명한다. 환언하면, 사도시대의 성령강림은 유일한 것이며, 반복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순절 계열의 학자들은 사도시대의 성령세례가 사도들만의 것이 아니며, 모든 신자들의 것이며 합리적이고 필수적이라고 말한다.<sup>27)</sup>

방언은 성령의 임재를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확신에 필요한 표적으로써 주장된다.<sup>28)</sup> 그러므로 방언은 성령세례의 초기증거로서 다른 많은 증거들과 구분된다.<sup>29)</sup>

25) *Ibid*, pp. 79-80.

26) *Ibid*, p. 81.

27) *Ibid*, p. 83.

28) *Ibid*, p. 84.

29) *Ibid*, p. 85.

그러나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세례에 대한 가르침은 네 번의 사건들이 모두 다른 상황임을 설명해 주고, 사마리아에서의 성령강림과 에베소에서 성령강림을 오순절 성령강림과 고넬료 가정의 성령강림과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없음을 강력히 시사해 주고 있다. 역사적 사건으로써의 성령강림에 대한 사도행전의 올바른 이해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강림의 세례들을 여기서 대략 하고자 한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들 네 번의 사건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상황, 배경, 섭리, 목적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이 때 방언이 성령세례의 표적으로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지도 살펴야 할 것이다.

#### (가) 오순절 성령강림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초대 교회의 출범과 성장과정을 사건 중심으로 보도하면서 성령으로의 세례와 성령의 은사를 뚜렷하게 구별하지 않았다는 점과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오순절성령강림을 마치 방언이나 신유와 같은 성령의 은사로 오해하고 있다는 점을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순절 날 사도들이 성령으로의 세례와 성령의 은사를 함께 체험하고 있다는 점이다. 성령으로의 세례가 주어짐으로써 이 시대가 우주적이고 종말론적인 구원의 시대가 되었고,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대가 출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난 방언 말함과 신유의 능력은 성령시대의 특징으로써 나타난 것이기보다는 이 시대가 성령의 시대임을 알리는 도구로서 역할 하였다는 점이다.

성경이 기적에 대해서 말할 때는 언제나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란 세 단어를 함께 쓰고 있다는 사실(행 2:22; 고후 12:12; 살후 2:9; 히 2:4; 롬 15:18)과 반드시 기적의 목적과 관련되어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큰 권능'(δυνάμεις)은 기적의 근원 즉 하나님의 큰 능력 행함을 말한다. '기사'(τέρασις)는 표적과 함께 쓰이고 언제나 복수형이며, 기적의 결과 즉 하나님의 큰 능력 행함을 눈으로 본 사람들의 마음에

일어나는 결과들, 예를 들면, 놀람, 경악, 기이함 등을 말한다. 표적(σημειον)은 확증, 입증을 의미하며, 기적의 목적이다. 기적은 표적을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진다.

기적은 메신저가 전한 계시의 진실성을 입증, 증거, 확증하는 표적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의 능력 행함은 증거적인 것이다. 전하는 메신저와 전해지는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모세의 기적은 이스라엘 국가 형성을, 엘리야의 기적은 야훼가 참 하나님이심을 입증하는 것이었으며(왕상 17:24), 예수의 능력 행하심은 그가 그리스도이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키 위한 것이었다(행 2:22). 이와 마찬가지로, 사도들의 방언과 능력 행함은 그리스도의 교회 창립과 신약성경의 완성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사도들의 방언과 능력 행함은 성령시대를 알리는 매체였던 것이지, 본질이 아니었던 것이다. 성령시대의 특징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오순절 성령강림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시작되었으며, 중생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따라서 신자들의 구원과 함께 시작되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교회와 신자들은 미래의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맞보며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성령의 사역은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될 수 있다. 하나는 외적, 증거적, 은사적 사역이요, 다른 하나는 내적 구원과 성화의 사역이다. 외적, 증거적, 은사적 사역은 구약시대 때부터 있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구약시대에는 성령의 내적인 구원과 성화의 사역이 없이 오직 외적인 임재뿐이었다.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특정인에게 봉사에 필요한 기술이나 능력으로 도구화시키기 위해서 보내 지셨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그렇지 않다. 신약시대에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 붓듯 부어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이 약속이 오순절 성령강림으로 이루어졌다. 이때부터 성령의 내주 동거와 구원과 성화의 사역이 시작되었다. 이것은 어느 특정인에게 국한된 축복이 아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동등하게 주시는 축복



이다.

이 두 가지 성령의 사역을 모두 성령세례라는 사람도 있고, 두 가지 중에 하나만을 성령세례라는 사람도 있다. 필자는 성령세례가 기적적인 권능이나 은사가 아니라, 성령의 내주하심이 성령세례 즉 성령으로의 세례라고 믿는다. 성령의 외적, 증거적, 은사적 사역은 성령세례라기보다는 성령충만이란 말이 더 적합하다.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볼 때, 세례는 단회적인 반면, 충만은 계속적이며, 세례는 명령이 아닌 반면, 충만은 명령이며, 세례는 배치적이지만, 충만은 경험적이기 때문이다. 또 세례는 반복되는 경험이 아닌 반면, 충만은 반복적이며, 세례는 중생과 함께 주어지지만, 충만은 회심후의 경험이며, 세례는 모든 신자에게 주어지는 우주적인 것이지만, 은사는 부분적으로 성령께서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이다.<sup>30)</sup>

성령세례는 또한 고통스런 기도에 대한 응답도 영성에 대한 어떤 증거도 아니다. 성령세례는 성령의 은사가 아닌 성령의 영역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이 요소가 되는 세례이며, 세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성령의 은사는 수여자가 성령이시지만, 성령으로의 세례는 수여자가 그리스도이시다.

성령의 네 가지 요소도 구원의 네 가지 요소와 다를 바가 없다. 오순절 운동가들이 성령세례를 중생과 별개의 시간에 후속적으로 많은 기도의 대가로 받는 방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도행전 2장 38절과 갈라디아서 3장 2-5절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성령은 선물로, 믿음으로, 침례 가운데서, 성화를 위해서 주시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의 수단이 믿음이며, 구원의 시간이 침례요, 구원의 목적이 선행인 것같이, 성령세례도 그 근원이 은혜의 선물이며, 믿음을 수단으로, 침례 가운데서 수여되며, 성화를 목적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sup>31)</sup>

30) Ronald E. Baxter, *The Charismatic Gift of Tongues*(Grand Rapids: Kregel Publications, 1981), pp. 19-28.

31) Jack Cottrell, *His Truth*(Cincinnati: The Standard Publishing Co, 1980),

성령은 성경 여러 곳에서 은사 또는 선물로서 언급되고 있다(요 7:37-39; 행11:17; 롬 5:5; 고전 2:12; 고후 5:5). 은사는 성격상 공로 없이 주어지는 것이며, 선물로서의 성령은 결코 보상으로써 언급된 일이 없다. 사도행전 2장 38절은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중적이다. 그 이유는 인간이 가진 문제가 이중적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범죄로 인해서 유죄하며, 유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타고난 죄성에 의해서 인간은 부패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마치 사고를 저지른 과속 차량의 운전자가 법의 처벌과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하듯, 우리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법적 문제의 처리와 부패된 인간성의 치유를 받아야 한다. 이 법적 문제를 처리 받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의의 전가에 의한 칭의이다. 이는 외적이며 객관적인 선포에 의한 의이며, 하나님의 의가 전가된 것이다. 이는 죄인이 무죄자가 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또 죄인이 재판장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무죄로 선포 될 때, 그 동안의 부패된 인간의 상태도 초기적으로 치유된다. 이를 초기 성화라고 한다. 그러나 칭의와 초기성화 후에도 인간은 죄성의 잔존 때문에(롬 7:15-25) 계속해서 치유되어 져야 하는데 이를 점진성화라고 부른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의이며, 보상된 의이다. 이는 내적이며, 개인적인 의이다. 하나님은 치료자가 되시며, 우리의 부패를 치료하시고 감싸주신다.<sup>32)</sup>

칭의가 죄인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점진 성화는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이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길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어 가는 생활이 속사람이 살아가는 성화의 생활이다. 바로 이 점진성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성령이시다. 이 일을 위해서 성령은 성도의 심령에 내주 하신다.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치 못했던 이 쓰라림을 다시 반복치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

pp. 70-75.

32) 조동호, 『로마서와 구원』(서진출판사, 1994), 79-93쪽.

령을 선물로 구원받을 때에 함께 주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제 자신의 노력만으로 살지 아니 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신의 죄성을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 이상의 승리자가 되는 것이다(롬 8:37).<sup>33)</sup>

이와 같이 칭의와 중생 즉 초기성화는 불가분의 관계이며, 동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또한 중생 또는 초기성화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화는 성령의 직접적인 사역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이므로 결국 믿음으로 성령세례를 받는다. 이런 맥락에서 갈라디아서 3장 2-5절의 말씀은 믿음으로 성령세례를 받는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입증하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나, 듣고 믿음으로나?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 . .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나, 듣고 믿음에서나?”

구원과 성령세례를 언제 받느냐 하는 문제는 신학적으로나 교단적으로 논란이 되는 이슈이다. 오직 믿음만 주장하는 일부 교단에서는 믿음을 갖는 순간부터 구원과 성령세례를 받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가? 성경은 침례를 받는 시간이 구원과 성령세례를 받는 시간이라고 말한다. 침례 자체가 구원과 성령세례를 받는 시간이라고 말한다. 침례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것도 아니요, 침례 때문에 성령세례를 받는 것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장소 또는 시간이 침례일 뿐이다. 이러한 가르침은 사도 시대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교회의 가르침이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은, “. . .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라고 말한다.<sup>34)</sup>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목적은 거룩한 삶과 성화의 삶을 위한 것이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은혜로 구원 주시고 죄성을 이기

33) *Ibid.*, pp. 79-97.

34) 조동호,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서진출판사, 1994), s.v. “알렉산더 캠벨의 침례론”.

고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성도들의 구원을 보증하시고, 인 치시며, 약속하기 위해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설립된 때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한 것 같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공생애와 관련하여 교회 설립시기를 생각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과 관련하여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교회가 시작된 정확한 시기는 예수의 공생애의 출발을 알리는 누가복음의 역사적 진술과 요한복음이 암시하는 예수의 공생애 삼년 반을 고려하여 주후 30년 오순절 날 아침 9시경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성령강림과 함께 시작되었다는 견해가 정설로 되어 있다.

주후 30년이 정확한 연대인지는 알 수 없으나 성경과 역사적 증언들을 고려해 볼 때, 이 보다 정확한 연대 주장은 없다. 장소 문제는 넓은 범위에서 보면 유대 땅의 수도 예루살렘이 확실하다. 그러나 구체적인 장소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장소를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그 때 모인 사람의 수를 120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견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성령강림의 장소를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모임의 장소를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생각한다.<sup>35)</sup> 후자의 견해가 정확한 성경적 이해에 근거한 바른 입장이라고 생각한다.

교회가 시작된 장소라든지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다. 대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더 없이 중요하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다.

먼저 교회시대가 성령의 강림과 함께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바벨론 포로기를 중심으로 싹트기 시작한 메시아사상은 나라 잃은 민족에게는 돌도 없는 희망의 메시지였다. 이 시대에 사역하였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과 같은 유명한 예언자

35) J. W. McGarvey, *New Commentary on Acts of Apostles*(Cincinnati: The Standard Publishing Co, n.d.) p. 21.

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메시아의 출현과 성령강림으로 성취될 것이 예언되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과 메시아 출현 그리고 성령강림이라는 이 삼대 예언의 성취는 마지막 시대의 출범을 알리는 사건으로 설명되었다. 그리고 이 예언이 예수의 부활사건과 오순절 성령강림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성취된 것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었다. 그러므로 교회의 출범은 성령의 사역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사는 세상에 출범하게 됨을 의미하였으며, 종말적 시대의 출범이 되었다. 성령은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일 뿐 아니라, 거듭남과 거룩함과 새롭게 하심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므로 성령이 빠진 교회가 없고, 성령의 사역이 없는 구원이 없으며,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는 그리스도인을 생각할 수가 없다. 또 성령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수가 없다.

구약의 약속이 처음 성취된 장소는 예루살렘이다. 오순절 날 아침에 성령의 강림이 예루살렘에 모인 사도들에게 임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믿는 순례자들의 고향이다. 그리스도가 나귀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서 입성하신 곳이 예루살렘이며, 만왕의 왕, 심판주의 주로서 강림하실 곳도 새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다. 이 성에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 성에 교회가 창립되었다는 점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 예루살렘과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한다는 점에서 같기 때문이다.

성령의 강림 장소는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었다. 마가의 다락방은 제자들의 숙식장소였다. 물론 가정에 모여 예배나 기도 모임을 가진 것이 사실이지만(행 5:42, 12:12), 또 초대교회는 주로 가정에서 모였다는 점도 사실이지만(롬 16:5; 골 4:15; 몬2; 고전 16:19), 정작 교회가 처음 시작된 곳은 성전 안에서 였다(눅 24:52-53; 행 2:46; 3:1; 5:12, 42). 앞에서 교회와 예루살렘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여기 교회와 성전의 관계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라는 관점에서 대조시켜 볼 수가 있다

‘저희가 유하는 다락’으로 표현된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은 이층

집(upper room)이었을 것이다. 유대인들의 집은 슬래브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 식 개념의 다락방이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제자들의 거처는 이 층 방이었을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승천하신 날 감람산에서 내려와 그들이 거처하는 방으로 들어갔다. 이 날로부터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날까지는 열흘간의 시간이 있었다.

120명이 모여 가룟 유다 대신에 맛디아를 뽑은 날짜는 이 열흘 중 어느 한 날이었다. 한글 개역성경에는 생략되었지만, 누가는 120명이 모여 맛디아를 선출한 날을 헬라어로 '그 무렵에 신도들이 모였는데'(Καὶ ἐν ταῖς ἡμέραις/In those days)라고 적고 있다. 따라서 120명이 모인 날은 적어도 예수께서 승천하신 날이 아니란 점은 분명하다. 그리고 그들이 모인 장소는 솔로몬 행각이었다(눅 24:53; 행 3:11; 5:12). 사도행전 1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잘 읽고 생각해 보면 곧 바로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초대교회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 세 번 이상 일곱 번까지 기도하였다. 이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아침 9시, 정오, 오후 3시로 정해져 있었다. 예수의 제자들도 이 시간에 기도하였다(시 55:17; 119:164; 단 6:10; 행 2:15; 3:1; 10:9). 성령이 강림한 시간은 아침 9시 기도하는 시간이었다(행 2:15). 그 장소는 오순절이 되어 수많은 사람이 운집한 성전 안이었다(눅 24:53; 행 3:11; 5:12). 이러한 시간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방언의 역사가 있었던 것은 교회창립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였다. 성경이 말하는 기적은 곧 증거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사도들의 방언 말함은 즉시 많은 무리에게 주시가 되었다(행 2:5-13).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었지만, 방언을 청취한 사람들은 오순절 축제에 참석키 위해서 16개국 이상에서 모인 경건한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개종자들이었다. 이들이 사용한 언어는 적어도 페르시아어, 시리아어, 아랍어, 헬라어, 데모틱어(이집트어) 라틴어, 아라비아어 등일 것이다. 이들은 모두 자기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사도들을 보고 놀랐다. 이 사건으로 베드로가 말씀을 전파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리고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다.

제자들의 방언 말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심히 기이히 여기며, 놀라게 되었고, 사람들은 솔로몬 행각으로 모이고(행 3:11),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과 그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었다. 따라서 사도들의 능력 행함은 증거적이며, 복음 전파의 도구였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강림의 의의는 방언 말함에 있기보다는 하나님과 인간들과 함께 하는 종말론적인 새 시대의 출발점이라는 데 있다. 비록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초대 교회의 출범과 성장 과정을 사건 중심으로 보도하면서 성령으로의 세례와 성령의 은사를 뚜렷하게 구별하지 않았다는 데서 혼란의 여지는 없지 않으나 그렇다고 해서 오순절 성령강림의 의미를 방언에 제한해 버리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오순절 날 사도들은 성령으로의 세례와 성령의 은사를 함께 체험하고 있고, 방언은 단지 교회 창립의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 (나) 사마리아 교회의 성령강림

사마리아성에 복음을 전한 것은 칠인 중의 한 사람인 빌립이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의 전도를 듣고, 또 그의 행하는 표적과 큰 권능을 보고 놀라기도 하였다. 복음을 들은 사마리아인들은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아직 성령이 내리신 적이 없다는 내용으로 보아 중생이 먼저 있고 성령으로의 세례가 주어진 것처럼 보도되고 있으나, 여기서 언급된 성령강림이 성령으로의 세례가 아닌 성령의 권능이나 은사를 의미한다면, 사마리아인들은 이미 침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씻음과 새롭게 하는 중생을 체험하였으나 성령의 은사는 아직 내리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성령의 은사는 필요에 따라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다(고전 12:11).

사마리아 교회의 성령의 역사에는 방언이 언급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성령 내리심의 증거로 방언의 역사가 있었을 것이다. 다만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은 능력의 중 빌립이 사마리아인들 앞에서 큰 권능을 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들에게 성령 받기 위하여 안수하지 않았다는 점과 하늘로서 직접 안수 없이 내린 성령도 없었다는 것이다.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소식

을 듣고 사마리아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들의 방문 목적이 무엇이었는가를 알고 하면, 그들이 사마리아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보면 된다. 빌립은 표적과 이적을 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안수하여 나누어 줄 수 없었다. 만일 빌립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다면, 사도들의 내왕이 필요 없었을 것이다. 빌립이나 스테반은 사도들로부터 안수를 받기 이전에 이미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안수 받기 이전에는 능력을 행사한 일이 보도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사마리아 교회에 내린 성령강림도 사마리아 교회 창립을 위한 외적이고 증거적인 표적의 역사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다) 고넬료 가정의 성령강림

하나님의 계획은 온 인류가 복음의 소식을 듣고 구원을 얻는 것이었다(마 28:16-20; 막 16:14-16). 그러나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복음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전파되었다.

이렇게 된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어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둘째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구원의 조건으로 율법을 온전히 준수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교리적인 갈등은 교회가 출범된 지 십 수 년이 지난 이후에도 계속된 것을 알 수 있다.

‘고넬료 가정의 성령강림’은 오순절 성령강림의 역사와 마찬가지로 안수례 없이 위로부터 부어 주시는 커다란 역사였다(행 11:17). 이와 같이 강한 성령의 증거적인 역사가 없이는 하나님이 이방인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이 받아 드릴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와 같은 강한 외적이고 증거적인 성령의 은사가 고넬료 가정에 내림은 베드로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확신을 심어 주기 위한 것이었다.

고넬료 가정의 성령의 역사는 오순절 역사와 마찬가지로 침례와



구원의 확신이 있기 이전에 내린 대표적인 케이스이다. 따라서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성령으로서의 선물이라 아니라, 성령의 은사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두 케이스의 성령의 역사는 유대인 교회의 창립과 이방인 교회의 창립을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 (라) 에베소의 열두 제자들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열두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든지, 아니면, 아볼로의 제자였을 것이다. 이들이 예언과 방언의 은사를 받은 과정이 사마리아의 과정과 비슷하다. 사도의 안수에 의한 성령강림이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열두 명의 사람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행 19:2)고 물었다. 바울의 이 질문이 성령으로서의 세례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성령의 은사를 의미하는 것인지를 밝혀내야 한다.

바울은 먼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를 묻고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을 때에, “그러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고 묻고 있다. 에베소의 열두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대답하자, 바울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서 설명한 후에 침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볼 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고 묻는 바울의 심중에는 침례를 염두에 두고 있음이 “그러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라는 질문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미 사도행전 2장 38절을 통해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침례와 성령으로서의 세례는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 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베드로가 설교하였다. 만일에 바울이 성령을 받는 문제와 침례를 함께 생각한 것이 사실이라면, 바울이 묻고 있는 질문은 ‘성령으로서의 세례’ 즉 내주 동거의 성령을 의미했을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성령으로서의 세례’가 침례와 동시에 혹은 침례 가운데서 성령의 중생의 씻음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리고 바울이 바로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심중에 두고 질문을 던졌다 할지라도, 열두 제자가 바울의 안수를 받고 방언의 은사를 체험한 것은 별개의 사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방언의 은사는 오순절, 사마리아, 고넬료 가정에서 이미 보았듯이 증거적이며, 외적인 성령의 역사이다. 여기서 방언과 예언으로 나타난 표적은 바울의 전도가 진실하다는 것과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표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5절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와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므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는 구분되어야 한다. 5절에서 ‘성령으로서의 세례’가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6절에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 것이다. 히בל리투스<sup>36)</sup>의 『사도들의 전승』에서도 침례 후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안수례 했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아마도 그것은 에베소 교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령의 임재를 믿었기 때문이다.

### (3) 성령세례를 받기 위한 조건들에 대한 비판

오순절 계열에서는 학자들이 성령세례가 회심후에 특별한 기회에 주어지는 것으로 가르친다. 방언을 성령세례의 초기증거로 보기 때문이다.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신자라도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된다. 방언을 하지 못하는 것은 그 신자에게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결론에서 나온 것이 바로 성령세례를 받기 위한 조건들이다. 이들 조건들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세례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오순절 계열의 학자들은 “신자들이 자동적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되지 않으며,” 일정한 조건들에 충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조건들은 각자의 노력으로 채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력 없이는 또한 조건들을 충족하지 않는 한 성령세례는 받을 수 없다고 말한다. 성령세례는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자동적으로 따라 오는 축복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특정한 기회에 특별한 체험으로 얻어져야 할 의무라고 말한다. 따라서 성령세례는 선물로써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후 어느 시점에서 노력에 의해서 행위로 받는 것이 된다. 기독교인이 되고 난 후에도 오순절 계열에서 제시하는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비로소 성령세례

36) 히בל리투스, 『사도전승』(분도출판사, 1992), pp. 53-55, s.v. “21. 거룩한 세례의 전통에 대하여”(127-141쪽).

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sup>37)</sup>

스킵스테트(Skibstedt)는 이들 조건들을 예배, 즐거운 믿음, 신실한 기대, 감사와 찬양, 무조건적 순종, 연합, 인내라고 말하고 있고; 콘(Conn)은 죄와의 분리, 회개와 세례, 믿음의 들음, 순종, 강한 갈망, 하나님께 요청을; 펄만(Pearlman)은 바른 태도, 하나님의 종들을 위한 기도, 교회의 연합된 기도, 믿음의 정화, 개인기도, 순종을; 바우르(Baur)는 기도, 믿음, 죄와의 분리, 죄인들과의 분리, 보상과 반환을; 지(Gee)는 회개, 세례, 믿음을; 리그(Rigg)는 중생, 순종, 기도, 믿음을<sup>38)</sup> 각각 성령세례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열거하고 있다. 토리(Torrey)는 「성령세례를 받는 방법」이란 설교에서 구원, 회개, 신앙고백(간증), 순종, 갈망, 간구, 믿음의 일곱 단계를 설명했다.<sup>39)</sup> 이들 모든 조건들은 선조건(先條件)인 회심 또는 중생과 후조건(後條件)인 순종과 믿음으로 간략하게 요약될 수 있다.

#### (가) 선조건(先條件)으로써의 회심 또는 중생

중생을 성령세례의 선 조건으로 본다. 이는 선 중생, 후 성령세례의 공식이다.<sup>40)</sup> 그러나 고넬료 가정의 성령세례는 이 공식에 맞지 않는다. 고넬료 가정의 식구들은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세례를 먼저 받고, 후에 중생의 거듭남을 체험했기 때문이다.

#### (나) 후조건(後條件)으로써의 순종

순종을 성령세례의 후 조건으로 보고 능동적인 순종과 수동적인 순종으로 나눈다. 죄로부터의 분리, 심령정화, 그리고 기도를 능동적인 순종의 내용으로, 마음 비우기, 성령대망집회, 그리고 믿음을 수동적인 순종의 내용으로 강조한다.

### 1) 죄로부터의 분리

37) Bruner, *op cit*, pp. 87-88.

38) *Ibid*, p. 92.

39) R. A. Torrey, 『성령론』 *op cit*, 155-194쪽.

40) Bruner, *op cit*, p. 93.

죄를 가지고는 성령세례를 받을 수 없다고 말한다. 순종의 주된 임무를 죄의 말살로 본다. 콘(Conn)은 “당신은 성령을 받을 수 있지만, 죄를 가지고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sup>41)</sup> 토리(R. A. Torrey)는 성령세례의 축복은 “죄의 포기로부터 온다”고 말한다. 그는 또 휘니(Finny)의 말을 인용하여 어떤 여인의 체험담을 들려준다. 그 여인은 집회가 끝나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밤을 새워 기도했지만 성령이 강림치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그녀는 자기 머리에 꽂혀 있는 머리핀이 하나님 보시기에 문제가 된 것으로 감동이 왔다. 그녀는 곧 머리 장식핀을 제거했다. 그랬더니 곧이어 성령이 강림했다는 이야기다.<sup>42)</sup> 이와 같이 내적 태도는 물론 외적 태도까지도 성령세례의 조건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겸손은 성령세례의 절대적 조건이라 주장된다.<sup>43)</sup> 콘은 또 성령과 죄는 같은 마음에 거할 수 없다고 말한다.<sup>44)</sup>

펠만(Pearlman)은 “죄인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도로서 우리는 성령을 영접한다”고 주장한다. 성령세례의 적은 죄라고 말한다. 그는 또 기독교인으로서 순종을 통해 모든 의식적인 죄를 그의 삶 속에서 제거해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주장한다.<sup>45)</sup>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얽힌 수수께끼는 과연 우리가 성령을 말하지 않고서 어떻게 구원을 말할 수 있으며, 성령을 받지 않고서 어떻게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을 것인가이다 (롬 8:9).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 15-24절에서 그리스도인의 죄성의 존속 때문에 - 이 죄성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거나 변형될 때까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심령 속에 지속된다 - 속사람의 갈등은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현실적으로 부정적이다 라는 입장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41) *Ibid*, pp. 93-94.

42) *Ibid*, p. 94; R. A. Torrey, 『성령론』 *op cit*, 164-165.

43) Bruner, *op cit*, pp. 94-95.

44) *Ibid*, p. 95.

45) *Ibid*, pp. 95-97.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바 악은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살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씀은 바울 사도 자신의 고백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말씀이 중생 받기 전의 죄인의 어떤 상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현실적인 상태를 두고 한 말씀이다. 어거스틴은 이 말씀에 나타난 ‘나’를 수사학적 표현이 아닌 바울의 전기적 표현으로 확신했으며, 은혜 아래 있는 바울 자신의 상태를 묘사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바울의 도덕적 윤리적 상태와는 무관하게 내적으로 겪게 되는 육신을 가진 자의 고뇌라고 본 것이다. 루터와 칼뱅도 이 말씀의 주인공을 회심이후의 바울로 보았다.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학위 논문을 작성한 오우성은 ‘나’는 중생한 자의 관점에서 본 중생 이전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중생한 자로서 성령의 강한 영향력 아래 열린 그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본 자신의 실존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중생을 체험했지만, 그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율배반적인 갈등 속에서 고뇌하는 모습이라고 말한다. 이 상황에서 바울은 율법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를 깨닫고 자신의 내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죄의 세력, 그리고 이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극복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sup>46)</sup>

46) 오우성, 『바울의 갈등과 회심: 로마서 7장 14-25절의 주석사』(대한기독교서

따라서 7장 15-25절은 죄성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탄식이며, 그리스도인이 겪는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 사이의 갈등을 설명한다. 이 말쑤은 그리스도인의 죄의 속박상태나 포로상태를 말하지 않는다. 바울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7장 14절에서 원칙을, 7장 15-25절에서 현실을, 8장에서 능력을 말하고 있다. 6장 1절부터 7장 14절에서 바울은 경건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원칙 혹은 의무를 확립하였고, 7장 15-25절에서는 현실적인 어려움 혹은 인간의 노력의 한계상황을 경험적으로 고백하였으며, 8장에서는 이 한계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제시하고 있다. 이 능력은 성령의 내주 동거 인도 하심 속에서 나타난다.

바울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소망 있는 이야기를 8장에서 하고 있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현 상태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였다(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3절). 그리스도인은 죄에서 해방된 생활을 살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승화된 삶을 살기 때문에 성령으로 승리에 찬 생활을 살 것이라는 것이 바울 사도의 강력한 주장이다. 37절에서 그는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하였다. 이는 정복자 이상의 정복자(more than conquers)란 뜻이다. 이상과 같이, 성도들은 죄를 없애고 난 후에 성령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고 그의 도우심으로 죄를 이기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세례를 받기 위해서 죄를 철저히 회개하여야 한다는 가르침은 칭의의 교리에 대한 이해의 문제가 있다고 본다. 칭의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 하시고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부르신 것을 의미한다. 이신칭의는 믿음을 유지하는 한 우리의 의로움은 영원하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 그리스도인을 성도라 칭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로운 자로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미 하나님 앞에 모든 죄가 용서된 자들이다. 그렇다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죄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죄로부터 분리되고 하나님과 연합되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이다. 그들의 말대로 죄로부터 분리되어야 성령세례를 받는다니 모든 성도는 이미 성령세례를 받았다고 주장해야 할 것이다. 구원과 성령세례가 동시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구원을 먼저 받고 나중에 성령세례를 받는다는 그들의 주장이 옳다면, 구원 후에 범하게 되는 일상적인 죄는 회개해야 할 것이지만,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구원을 언급한다는 자체가 구원론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 오순절 운동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성령세례가 은사나 권능이라면, 성령세례가 후속적일 수 있겠으나, 성령께서 필요에 따라서 자의로 나누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은사나 권능을 소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전 12:11). 은사의 속성은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배타적인 것이다. 방언이 은사라는 말은 곧 모든 사람이 다 방언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하는 말이다. 이는 마치 모든 사람이 다 신유의 은사를 갖지 않은 것과 같은 것이다. 다 목사일 수 없고, 다 장로일 수 없으며, 다 집사일 수 없는 이치와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다 방언을 말해야 한다는 주장은 비성경적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성령세례를 중생의 시간에서 분리시킬 수 없으며, 은사나 권능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마지막 시대의 선물이 아니라, 인격신이신 성령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다. 오순절 운동가들의 말대로 은사나 권능은 후속적일 수 있다. 이는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이다. 성령께서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주시는 은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은사나 권능이 언제나 후속적인 것은 아니다. 성령께서는 심지어 믿지 아니한 사람이나 짐승을 통해서도 종종 권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 2) 심령정화

심령정화는 성령세례를 받기 위한 능동적 조건의 하나로써 순종이나 보상으로써 주어지는 즉 믿음으로 받는 심령정화를 말한다(행 15:8-9). 이는 중생과 동시에 일어나는 성화이며, 이 단계에 이르러야 방언을 말하는 성령세례를 받는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의

은혜의 사역을 두 가지로 보지 않고 세 가지로 정의를 내린다. 이들은 중생과 성화(믿음으로 심령정화) 및 방언으로 입증되는 세례들이다.<sup>47)</sup>

### 3) 기도

오순절 운동가들도 성령세례를 믿음으로 받는다고 주장한다. 성령을 돈으로 사는 것은 아니지만, 끊임없는 기도와 집중적인 기도가 성령세례를 받는 조건이 된다고 리그(Rigg)는 말한다. 오직 구하는 자만이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성령이 내리지 않은 이유는 구하는 자의 믿음이나 기도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믿음에도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고, 기도에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기도의 종류는 하나님께서 누가 과연 이 값없이 주는 선물을 받기에 합당한가를 결정하게 하시는데 필요한 예선통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강하고 강대한 기도는 앞으로 전진하는 순종이며, 이러한 기도 가운데서 수동적인 조건으로 입문하게 된다고 가르친다.<sup>48)</sup>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따지는가? 하나님께 드리는 순수하고 깨끗한 기도예 단계를 있을 수 있는가? 조건에 통과해야 받는 것을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가? 믿음의 크고 작은 단위는 성령의 은사이기 때문에, 오순절 운동가들이 말하는 크고 합당한 믿음도 은사이다(고전 12:9). 상식적으로 말해서 은사는 구원보다 더 중요하고 큰 것일 수 없다. 그러므로 은사를 받기 위하여 더 큰 믿음이 요구된다는 발상은 비성경적이다. 은사는 전혀 믿음이 없는 자에게도 적용이 된 신구약성경의 사례들을 보라. 사도행전의 네 가지 사례들도 방언을 말한 자들이 전혀 구원하는 믿음 이외에 부가적인 또는 더 큰 믿음을 요구받은 적이 없다.

47) Bruner, *op cit*, pp. 97-98.

48) *Ibid*, p. 99.



#### 4) 마음 비우기

성령을 받고자 하는 자가 이 모든 능동적인 순종의 과정을 거치고 철저히 성령께 그의 마음을 비운다면, 성령세례를 받을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철저히 성령께 자신을 맡기는 것이며 철저히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성령을 받기 원하는 자는 모든 자신의 의지적 조절을 버려야 한다. 어떠한 현상이 자신의 몸에 일어나더라도 거절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완전히 내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sup>49)</sup>

그러나 이러한 내맡기기식 가르침이 야기하는 큰 문제는 사탄의 역사에 대한 호기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오순절 운동의 방언의 가장 큰 결점은 객관성의 결여에 있다. 내가 하는 방언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사탄의 장난인지 또는 단순한 자연의 현상적인 작용인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실제로 무의식적으로 마귀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 오순절의 방언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었고, 고넬로 가정의 방언도 유대인들에 의해서 입증되었다. 바울 사도가 말한 신령한 방언이 오순절의 방언과 어떻게 다른지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 하나는 마음 비우기식에는 성경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위험한 발상이다. 성경은 방언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것이 방언이라고 하였다. 이는 강권적인 뜻이 내포된 말이다.

#### 5) 성령대망집회

정기적인 집회 후에 성령세례를 받기 위해 특별 기도회로 모이는 집회를 말한다. 이 때 기존의 경험자들이 방언을 하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협조한다. 이와 같이 오순절 순복음식 성령 체험은 사적이고 개인적인 주님과과의 만남을 통해서 일어나기보다는 주로 대중적인 집회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 물론 대중적인 집회가 주는 많은 장점도 있겠지만, 빠른 템포의 찬송, 강렬한 손뼉 치기, 고성의 기도 등은 일방적이고 이드(Id/原慾) 발산적인 기도이며, 대

49) *Ibid*, p. 100.

화적이고 사색적인 기도가 이러한 모임에서는 추방을 당하고 있다.<sup>50)</sup> 언어학자이며 선교사였던 유진 니다(Eugene A. Nida)는 그의 저서 『문화와 관습』에서 서아프리카의 흑인들도 이와 같은 형태를 통해서 종교적인 무아경에 이른다고 말한다.<sup>51)</sup>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방언이 결코 기독교의 배타적인 체험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고대 고린도 인근 지역에는 델포이 신전이 있었는데 그곳의 여사제가 방언을 말하였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으며, 그들은 이것을 신탁 받기 위해 사용하였다.

방언을 말하는 이단 사교들도 많이 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유니테리안주의자들도 있고, 인간이 신이며,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몰몬교도들도 있고, 마리아의 몽소승천이나 교황의 무오설을 믿는 천주교회도 방언을 말하고 있다. 오순절 운동의 방언이 갖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방언이 성령세례의 표본이 됨으로써 교리의 상대성을 지지해 주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환언하면, 방언 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인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믿는 교리도 인정되었거나 아니면 교리나 진리가 전혀 중요치 않거나 이다.

## 6) 믿음

오순절 운동가들은 두 가지 종류의 믿음에 대해서 말한다. 이들이 강조하는 믿음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순종에 보충하는 부가적인 행동으로써 이해된다. 이러한 믿음은 구원을 받는데 필요한 동의와 신뢰로서의 믿음과 구분된다. 이를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께 향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능력과 성별을 위한 성령께 향한 믿음이 있다고 펄만(Pearlman)은 주장한다.<sup>52)</sup>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세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향한 믿음과 성령께 향한 믿음을 나눈다면, 에베소서 4장 5절의 “믿음도 하나이요”라고 한 말씀에 위배된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50) *Ibid*, p. 101.

51) Eugene A. Nida, *Customs and Cultures*(California: Williams Carey Library, 1975), p. 156.

52) Bruner, *op cit*, pp. 104-105.

로서의 믿음도 따지고 보면, 구원하는 믿음이 성령의 간접사역에 의하는 것이라면, 은사로서의 믿음은 성령의 직접적인 사역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하나이다.

이상으로 오순절 운동가들의 성령 세례론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약술한 바와 같이 오순절 운동가들은 성령의 외적 역사인 도구화의 사역 즉 성령의 은사들을 성령세례로 이해하고 있고, 중생과 분리하여 후속적으로 체험되어 지며, 그 초기 증거로서 방언 말함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 성령세례는 충분히 믿음을 소유한 사람, 죄를 완전히 말살시킨 사람, 완벽하게 순종한 사람, 투쟁적으로 기도한 사람, 완전하게 자신을 굴복시킨 사람만이 성령대망집회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오순절 운동가들은 두 개의 믿음과 두 번의 회개, 삼 단계의 구원론을 주장하였으며, 성령세례를 받기 위해서 행위의 믿음과 순종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도 살펴보았다.

오순절 운동가들은 성령의 외적 사역 즉 도구화의 사역을 절대적으로 강조함으로써 성령의 내적 사역 즉 성화와 구원의 사역을 경시하였다. 심지어 은사를 받지 않으면 완전한 성결에 이르지 못한 것처럼 가르쳤으며, 그 반대로 은사를 받은 사람은 완전한 성결에 이른 것처럼 가르치기도 하였다. 방언을 말하는 신자들의 삶이 완전한 성결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데도, 방언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열등감을 갖게 하였으며, 믿음이 부족한 사람으로 낙인을 찍기도 하였다.

오순절 운동가들이 주장하는 이와 같은 주장들은 전통적인 교리에 위배된다. 그들이 주장하는 두 가지 믿음, 세 가지 세례는 예배소서 4장 5절의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위배된다.

죄인에게 있어서 구원과 성화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구원과 성화는 본질적인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방언이나 권능의 행함은 구원이나 하나님의 나라에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있을 것에 대해서 예수께서 가르치셨다(마 7:22).

기적적인 권능, 예언, 방언 등의 외적 은사는 결코 기독교만의 독점물이 아니며, 무교에서 바알종교에 이르기까지 각종 사이비 종교 단체에서도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고, 또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성경도 이러한 사례들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모세의 기적과 바로의 술사들의 것처럼 비교가 안되는 것이기는 하다.

오순절 운동의 또 한 가지 특색은 교리적 가르침이나 신학적 바탕 위에 둔 신앙과 실천을 중시하기보다는 오히려 체험 신앙을 강조하고 있고, 신앙적 혼합주의로 기독교 진리를 왜곡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자칫 잘못하면 방언만 말하면 누구라도 방언 안에서 한 형제라는 생각도 가질 수 있으며, 방언을 통해서 이단 사설을 비판 없이 수용하는 교리적 상대론도 나올 수 있다. 현대 은사운동에 우려할 만한 점에 대해서 류제창 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오늘날의 은사운동은 제도를 이탈하는 동차와 같이 공포스러운 말기 현상을 보이고 있다.

과거의 은사운동은 개인 신앙이 얼마나 좋느냐에 기준 하였으나 오늘의 은사운동은 누가 얼마나 잘 풀리고 성공하는가 리는데 기준 하는 것 같다. 예나 오늘이나 은사운동은 성경(교리)보다 체험을 앞세워 체험을 중생과 구원의 필요조건으로 삼는데 특징이 있다. 이들은 누구에게 신적 역사가 얼마나 일어났느냐를 중시하다 보니 성령세례나 기적적 사건들로부터 연고한 축복론, 형통론을 앞세우기 마련이다. 그리고 편협한 종말론이나 위기의식을 조장하기도 하여 저주나 형벌, 축복과 칭찬을 자유자재로 구사한다.

차라리 과거(1960년대까지)의 간증자들이나 부흥사의 말속에는 중생과 변화가 중심이었는데, 오늘의 중심은 이러 이러 했더니 이렇게 잘 되었다는 평신도, 기고만장한 자기 자랑 일관의 부흥사, 그러다 보니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란 전도 표어가 예수 믿고 축복 받으시다로 바뀌고 말았다.

이런 말을 들어 본적이 있는가? “나는 X X X 교회에 나가서 병도 낫고 축복도 받아서 아들 낳고, 집 사고, 시동생 서울대학에, 친동생 미국 유학, 아빠는 전무로 승진, 나는 이렇게 날씬하게 됐어요. 당신도 예수 믿고 축복 받아요.” 이 말은 내가 꾸민 것이다.

그러나 웃지마는 못할 이런 전도 용어가 교회에서 칭찬 받고 이웃에

게 어필한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더욱 가공할 것은 성령체험이 없는 신자는 ‘죽정’이고 성령의 열매(여기서는 방언, 신유, 특수체험)만 있으면 교리나 종교를 초월해서 한 형제란 신앙적 혼합주의 현상이 만연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곳에는 회개보다 많은 양의 기도가, 변화보다 금식, 철야, 산기도가, 전도보다 헌금, 헌물이 강조되어 자기 비만하고, 배금주의, 기복 사상을 배양하고 조장한다는 평을 받고 있는 것이 현대 은사 운동이라고 한다면 혹평이 되겠는가? 거두절미하고 현대 은사의 어떤 곳에도 은사는 그리스도와 복음의 방편이라는 표현을 찾을 수 없는 것이 동서양의 공통점이다.<sup>53)</sup>

#### 나. 성령세례는 사도시대 이후 종결되었다는 견해

일부 학자들은 오순절 운동가들과 마찬가지로 성령세례를 외적인 은사들의 부어 주심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이러한 외적인 은사들은 오순절 사건과 고넬료 가정의 사건에서 끝났다고 보며, 이 두 사건은 유대인 교회 창립과 이방인 교회 창립의 목적을 갖는다고 본다. 따라서 성령세례는 오순절 날과 고넬료 가정에 내린 단 두 번의 사건 속에서 소멸된다. 이런 주장을 단회설이라고 한다. 단회설을 주장하는 유명한 학자들로는 아브라함 카이퍼(A. Kuiper), 안토니 후크마(A. A. Hoekema), 던(J. DG. Dunn), 고재수(N. H. Gootjes), 개핀(R. B. Gaffin) 등이 있다.<sup>54)</sup>

리즈(Gareth L. Reese)는 누가복음 24장 49절의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의 말씀을 성령세례의 동의어로 보고 성령세례가 단지 두 번의 사건에만 제한된다고 보았다.<sup>55)</sup>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만 약속하신 것으로 믿어 오순절 성령체험을 사도들에게만 제한시킨다(마 10:19-20; 눅 21:13-14; 24:49; 요 14:26; 16:13; 행 1:8). 그리고 이방인 교회의 창립의 뜻을 갖는 고넬료 가정의 성령강림이 “위로부터” 내린 성령강림이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강림과 동일한 차원에서 성령세례로 본다. 만일 오순절 운동가들이나 리즈

53) 류제창, 『개혁주의 은사론』(성광문화사), 46-47쪽.

54) 차영배, 『간략한 성령론』(총신대학교, 1989년 2월 5일), 9-20쪽.

55) Reese, *op cit.*, pp. 92-94.

의 견해처럼 성령세례의 경험을 능력이나 은사로 본다면, 성경의 성령강림에 대한 상당수의 약속들이 특히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약속들이 사도들에게 주어진 것으로 제한된다고 볼 수도 있다. 맥가비(J. W. McGarvey)는 사도들의 권위와 권능이 다른 사역자들의 경우보다도 현저하게 크고 놀랍기 때문에 이 견해에 찬성하고 있다.<sup>56)</sup>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른 선지자들보다 크고 뛰어난 권능을 부여하셨다. 한번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였을 때,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였다가 그 별로 문둥병자가 된 사례가 민수기 12장에 기록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암과 아론을 세워 놓고 꾸중하시기를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이상이나 꿈으로 말씀하셨으나 모세에게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말씀하시고 은밀한 말씀으로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약시대의 성령의 역사도 사도들의 권능과 다른 종들의 권능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들의 권능과 빌립의 권능의 차이이다. 칠인 중 한 사람인 빌립은 능력과 권능의 종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안수하여 성령세례를 내리게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사도들은 할 수 있었다.

현대 오순절 운동가들이 아무리 오순절 성령강림을 재현코자 하여도 불가능한 것은 하늘로부터 직접 내린 성령강림은 단지 두 번뿐이었으며, 사도행전에 실린 나머지 두 사례는 사도들의 안수에 의해서 이루어 졌기 때문이다.

성경시대에는 병자가 낫기를 원하여서 주님께나 사도들에게 찾아와 낫지 않고 돌아간 사례가 없었으며, 단계적으로 치유되지 않고, 즉각 완치되었다. 그러나 현대에는 이러한 신유의 역사가 없음을 볼 때, 현대 오순절 운동가들의 신유 은사는 성경시대의 그것과 비교하여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튼 성령세례를 은사에 국한하고 역사적인 두 사례에 제한시키는 것은 성령의 내주 동거를 현시점의 성령의 유일한 역사로 보고,

---

56) J. W. McGarvey, *New Commentary on Acts of Apostles*(Cincinnati: The Standard Publishing Co., n.d.), p. 21.

모든 성령의 은사가 끊겼다고 믿는데서 온 해석일 뿐이다. 이 주장을 하는 학자들은 성령의 역사를 성령세례와 성령의 내주 동거로 국한하고, 성령세례는 역사적인 두 번의 사건으로 끝났고, 현재는 성령의 내주 동거의 역사만 남았음을 강조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인 기도의 응답이나 신병으로부터의 치유 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것을 강하게 믿고 기도한다. 그들은 다만 성령은 어느 특정인에게 더 이상의 신유나 방언이나 예언과 같은 특별한 은사를 허락지 않는다고 믿을 따름이다.

특정인에게 주어지는 은사가 끊겼느냐 아니면 계속 주어지느냐하는 문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논제이다. 우리는 다만 성령의 능력을 제한시켜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본다. 또 그가 하시고자 하시면 아무도 그것을 인간으로서 막을 수 없다. 성령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을 신학적으로 막아서는 안될 것이다. 이 천년 전에 큰 능력으로 역사 하셨던 같은 성령께서 오늘날에도 역사 하실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돕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방언이나 신유와 같은 특별한 은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세례의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점에 있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연구하고자 한다.

## 2. 성령세례에 대한 성경적 이해

성령세례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오순절의 축복이 오순절 운동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성령의 은사들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오순절 성령강림의 본질을 캐봄으로써 오순절의 축복에 대한 핵심을 바로 잡고 오순절 운동가들이나 일부 전통 보수주의자들이 기적적 권능을 성령세례로 동등시하는 해석을 성경적으로 조명해 보고자 한다.

### 가. 성령의 내주 동거로서의 오순절의 축복

#### (1) 약속

오순절 성령강림이 성령의 내주 동거의 축복인지, 아니면 외적인 은사의 축복인지를 판별하기 위해서 먼저 성령에 관한 예언자들의 말씀을 살펴보아야 한다. 예수께서 승천에 앞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행 1:4) 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아버지의 약속’이란 바로 구약성경에 예언된 성령에 관한 약속을 말한다. 오순절 성령의 오심은 바로 이 약속에 따른 것이다. 여기서는 세 분 예언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살펴보겠다.

이사야는 성령에 오심을 가장 먼저 예언한 선지자이다. 다음은 44장 3절의 말씀이다.

대저 내가 갈한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내리리니.

에스겔도 36장 25-27절에서 성령이 주어질 것에 대해서 예언하였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요엘도 2장 28-29절에서 성령에 관한 놀라운 예언을 하였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 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성령에 관한 같은 주제가 오순절 성령강림 이전에 세례 요한이나 예수의 말씀들을 통해서 재확인되었다. 마태는 세례 요한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보도하고 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누가는 예수의 말씀을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요한도 예수의 말씀을 요한복음 7장 37-39절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신약성경에서 성령의 오심에 관한 이들 예언의 말씀들은 사도행전 1장 4-5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에서 재확인되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구약에서의 성령강림에 관한 예언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메시아의 출현에 관한 예언과 동시에 주어진 아버지의 약속이다. 하나님께서 포로 이전 시대에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의 회복을 예언하셨고, 메시아 출현과 성령 강림도 예언하셨다(사 44:3; 32:15). 바벨론 포로 시대에도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메시아 출현, 그리고 성령강림을 재차 확인하셨다(겔 26:27; 39:29). 이 세 가지

예언의 특징은 그 효과가 전체적이며, 내적이며, 종말론적이다. 이는 마지막 시대에 주어질 성령세례가 내적이며, 총체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과 직결됨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 (2) 성취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대로 이 예언의 말씀들은 주후 30년 5월 28일 오전 9시경에 오순절 날에 말씀대로 성취되었다. 학자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을 주후 30년 4월 9일 일요일로 보고 있다.<sup>57)</sup>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신 오순절 날은 유월절 안식일 다음날로부터 50일째 날이므로 이 날은 주후 30년 5월 28일 일요일이 된다(레 23:15-22). 성령께서 강림하신 시간은 사도행전 2장 15절에 유대시간으로 '제 삼시'라고 했다.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해당된다. 이 날의 성취로 최초의 교회가 창립되었고, 구약 시대와 신약시대, 율법시대와 은혜시대로 갈라지게 되었다.

## (3) 성령을 선물로

구약시대에도 성령의 역사는 있었다. 모세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의 종이었다. 엘리야와 엘리사도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기적의 종들이었으며, 모세를 도와 이스라엘을 지도할 70명의 장로와 유사들(민 11장), 사무엘의 선지생도들, 하나님의 신이 떠난 사울 왕, 심지어 미물인 당나귀와 바알 선지자 발람조차도 예언과 방언을 하였다(민 22-24장; 삼상 19:18-24).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 활동하셨던 예수 때에도 신유, 예언, 방언과 같은 성령의 은사가 이미 존재했었고, 제자들도 이와 같은 체험들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이미 존재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것 혹은 특별한 것이 틀림없다. 여기에서 우리는 구약의 신자들이 누렸던 축복과 누리지 못했던 축복을 구분해야 한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생하면서부터 신앙인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신앙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교육되는 총체적인 하나님

57) 안문기, 『노 양과의 대화로 풀어보는 즐거운 전례: 계절과 축제』(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2), 271쪽.

의 보호 아래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내적인 사역이 필요치 않았다. 오직 성령의 외적인 사역만이 있었다. 이 성령의 외적인 사역은 증거적이며, 공적이며, 제한적이며, 일시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사역의 특징은 첫째, 외적인 도구(봉사)의 역사뿐이었다. 둘째, 특정인에게만 주어졌다. 셋째, 내적인 구원과 성화의 역사가 없었다. 넷째,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적이 없었다. 다섯째, 언제나 임시적이었다. 여섯째, 표적이 따랐다. 일곱째, 신자가 아닌 자에게도 주어졌다(삼상 10:10; 16:13-14; 19:20- 23; 민 11:25; 24:2).

주후 70년과 135년의 유대전쟁의 패배로 인한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신약시대의 삶의 무대는 이교 문화권이며, 신자들은 이교적인 분위기에 젖어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교 문화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지 모른다.

이교 문화 시대에는 성령의 증거적이며, 공적이며, 제한적이며, 일시적이며, 외적인 사역만으로는 신자들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지 않다. 이 시대에도 물론 외적이며 은사적인 성령의 사역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성도들에게 주시지 않았던 내적이며, 개인적이며, 우주적이며, 항구적이며, 구원과 성화에 필요한 '성령으로의 세례'를 선물로 주셨다.

이로써 이 시대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시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 맛보게 하시는 종말론적인 시대로, 은혜 시대와 교회시대로 특징 지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중생과 성화를 이루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시며, 성령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 또는 예수 재림시의 부활을 보증 받고 인침 받고 약속 받게 하셨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에 물 붓듯이 부어 주시기로 약속하신 성령 세례는 성령을 선물로 하나님께서 모든 신자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성령으로의 세례'를 말한다.

성령으로서의 세례는 이 시대를 성령의 시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종말을 선취하는 시대로, 우주적인 구원의 시대로, 종말론적인 메시

아 시대로,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는 임마누엘의 시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삶 속에서 경험하는 교회시대로 만든다. 그리고 성령으로의 세례는 믿는 자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어진다.<sup>58)</sup>

오순절 날 사도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으로의 세례’와 ‘성령의 은사’를 함께 체험하고 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으로의 세례가 주어짐으로써 이 시대가 우주적인 구원의 시대로 돌입하게 되었다. 이 은총이 사도들을 통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사도들이 특별한 것은 오순절 날에 이들이 특별한 성령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이다.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성령으로의 세례를 성령의 은사와 크게 구별 없이 초대 교회의 시작과 발전이라는 사건 중심으로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을 마치 방언이나 신유와 같은 성령의 은사로 오해하고 있다.

성령으로의 세례는 바울서신에서 더욱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다. 그 이유는 바울 서신이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누가의 사건 보도와 바울의 해석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우주적인 만인 구원의 시대,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상에 세워지는 교회 시대를 시작한 사건이었다는 점과 사도들에게 특별하게 내리신 성령의 외적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창립하고 성경을 쓰도록 하였다는 점을 이해하게 된다. 성령의 외적인 은사는 전달자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입증하는 증거적인 역사이다. 교회와 성경은 사도들의 놀라운 능력의 사역과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 그러나 신자 개개인의 구원과 성화는 성령이 친히 신자들의 마음속에 함께 거하시면서 이루신 축복이며, 모든 신자들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이 축복이 바로 오순절 성령강림의 특징이다.<sup>59)</sup>

## 나. 성령세례의 정의

58) 『개혁주의 종말론』, 80-96쪽; 『기독교 조직신학』 III권, 13-81쪽.

59) Jack Cottrell, "Are Miraculous Gifts the Blessing of Pentecost?" p. 9.

이제까지는 ‘아버지의 약속’으로써의 성령세례가 성령께서 그 뜻대로 주시는 은사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시며, 신자들의 마음속에 내주 동거하시는 인격신이신 성령이란 사실을 강조하였다. 지금부터는 무엇이 성령세례이고 무엇이 성령세례가 아닌지를 박스터(Ronald E. Baxter)의 도움을 받아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부정적인 면에서 본 성령세례

먼저 성경이 아니라고 말하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성령세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 (가) 성령세례는 개개인의 삶 속에서 반복되는 경험이 아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2장 13절의 말씀이나 갈라디아서 3장 2-5절의 말씀 또는 로마서 5장 5절과 8장 15절의 말씀 등은 모두가 성령세례가 단회적이고 과거적이며, 계속적으로 내주 하시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주후 30년 오순절 날에 강림하신 성령은 그 후 영구히 교회에 거하시며, 성도들은 그들의 중생의 때에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례를 받는다. 성도들은 ‘한 몸으로’, 한 성령 안에서, 한 주님에 의해서, 한 믿음을 통해서, 한 세례로, 한 하나님이시며, 만인의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는다(엡 4:4-5). 그러므로 성령세례는 반복되는 경험이 아니라, 단회적이며 영구적인 성령의 내주의 축복을 구원받을 때에 선물로서 믿음을 통해서 받는 것을 의미한다.

박스터는 개개인에게 일어나는 이 단회적인 성령세례의 특징을 오순절 성령강림에까지 소급하고 있으면서, 오순절 성령강림 자체를 역사적으로 단회적인 사건으로 본다.<sup>60)</sup>

##### (나) 성령세례는 회심후의 경험이 아니다.

우리는 중생의 때에 성령세례를 받는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60) Ronald E. Baxter, *The Charismatic Gift of Tongues*(Grand Rapids: Kregel Publications, 1981), p. 19.

로 연합되는 순간에 성령세례를 받는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다. 여기에서 ‘한 몸’이란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말한다. 신자가 ‘한 몸’, 교회에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 전통적으로 물로 세례를 받은 자만이 입교인이 된다. 그리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란 말씀은 물로 받는 세례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딤후 3:5) 이루어지는 성례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 시간임을 말한다(고전 6:11).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는 말씀은 물세례와 성령세례가 같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말한다. 이로써 우리는 구원을 받는 시간과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의 일원이 되는 시간과 침례를 받는 시간과 성령을 선물로 받는 시간과 하나님의 나라를 종말론적으로 선취하는 시간이 동시적이며 일시적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세례는 회심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서 받는 경험이 아니다.

박스터와 모울(Moule)도 이 점에 동의한다. 물세례와 성령세례는 단번에 일어나는 사건이며,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칭의와 중생을 체험하는 시간이라고 말한다.<sup>61)</sup>

(다) 성령세례는 성령충만과 같지 않다.

사도행전 2장 4절의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 하니라”의 말씀 때문에, 토리(R. A. Torrey)와 같은 이들은 성령세례와 성령의 충만을 같은 것으로 본다. 토리는 성령세례와 성령충만을 성령의 은사와 같은 것으로 생각했다. 그는 말하기를, “성령세례는 중생과는 다르다. 성령세례는 중생이후에 참가되는 성령의 사역이다. 사람이 성령에 의해서 중생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성령세례를 받은 것은 아니다.”<sup>62)</sup>

61) *Ibid*, p. 20.

62) *Ibid*, p. 21.

라고 하였다.

그러나 성경은 성령충만과 성령세례가 상당히 다르다는 점을 지적한다. 몇 가지 내용만을 여기에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동사 '세례 받다(βαπτισθήτω)' 라는 말은 계속적인 동작의 뜻이 없다. 그러나 동사 '충만(πληρούσθε)'은 계속적인 뜻이 담겨 있다.

둘째, 성령세례는 명령이 아닌 반면, 충만은 명령이다. 모울(Handley Moule)은, "성령충만에 관한 언급은 자주 있는 반면, 성령세례는 오순절 성령강림과 고넬료 가정의 성령강림의 경우에서처럼 단지 두 번만 기록되어 있다."<sup>63)</sup>고 말하면서 성령세례와 성령충만을 다르게 보았으며, 성령충만은 성령세례와는 달리 신자들이 구해야 할 축복이라고 주장하였다. 성경 어느 곳에도 성령세례를 구하라는 명령이 없는 반면, "성령의 충만(πληρούσθε ἐν πνεύματι)을 받으라." 라는 말씀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강림과 고넬료 가정의 성령강림은 사람의 안수 없이 위로부터 내린 특별한 경우이며,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 창립의 의의를 갖는다.

셋째, 성령세례는 배치적이지만, 충만은 경험적이다. 성경에서 성령세례는 역사적인 사건으로써 또는 신자에게 일어나는 단회적인 사건으로써 성격상 배치적이다. 이름이 생명 책에 기록되는 것이 배치적인 것처럼 성령세례도 배치적이다(빌 4:3). 그러나 충만은 성령의 능력이 경험적으로 유입되는 것이다. 성령충만은 개인의 생활에서 우러나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 . .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 . .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엡 5:19-21) 하는 경험이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갈 5:22-23)의 열매를 맺는 생활이다. 또 충만은 성화화도 직결된다.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갈 5:24), 성령으로 행하며,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아니 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는 생활이다(갈 5:25-26).<sup>64)</sup>

63) *Ibid.*, pp. 21-22.

(라) 성령세례는 선택된 집단의 신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다 성령세례를 받았다고 분명하고 명백하게 언급하고 있다. 비록 고린도교회 교인들이 모두가 방언을 하지는 못하였지만(고전 12:30), 고린도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성령세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없다(고전 3:16; 6:19; 12:13; 고후 6:16).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9절에 기록된 베드로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sup>65)</sup>

(마) 성령세례는 고통스런 기도에 대한 응답이 아니다.<sup>66)</sup>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성령세례와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고통스런 기도나 성령대망집회 등을 통해서 성령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예수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다. “불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도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의하면, 제자들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쓴” 것으로 되어있다. 이러한 말씀들 때문에 오순절 운동가들은 성령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많은 인내와 기도가 필요하다고 가르친다.

사도들의 ‘성령 대망 기간’은 10일간이었다. 유월절 안식일 다음 날부터(주일) 50일째 날(주일)을 오순절이라고 한다. 예수께서 안식일 다음 날에 부활하셔서 40일간 보이셨으므로 승천후 성령 강림까지는

64) *Ibid*

65) *Ibid*, pp. 22-23.

66) *Ibid*, pp. 23-24.



10일간이다. 이 기간이 성령 대망 기간이었다. 사도들은 이 기간에 기도에 힘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전혀 기도에 힘쓰다'(προσκαρτερῆω)는 이 말은 꾸준하고 지속적인 기도를 말한다. 유대인의 기도 습관은 하루 세 번 정해진 시간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었다. 유대인들은 우리 시간으로 아침 9시, 정오, 오후 3시에 기도하였다. 특히 오후 3시는 저녁 희생제사를 드리는 시간이었다. 유대인의 하루는 저녁 해질 때부터 시작해서 다음 날 해질 때까지를 말한다(시 55:17; 119: 164; 단 6:10; 행 2:15; 3:1; 10:9).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한 때는 오전 9시 기도 시간이었다. 사도들이 성전에 올라가기도 하던 중에 성령강림을 체험하였다. 이렇게 보면, 사도들이 기도 때문에 성령세례를 받은 것처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순절 성령강림은 사도들의 고통스런 기도에 대한 응답이 아니다. 오히려 교회창립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다. 오순절은 유대인의 큰 명절이며, 오전 9시는 기도 시간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운집하는 때다(눅 24:53; 3:11; 5:12). 이런 시간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여러 나라의 방언을 말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은 교회창립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었다.

(바) 성령세례는 영성에 대한 어떤 증거도 아니다.

성령에 관한 언급이 가장 많은 고린도전후서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에 쓰였다. 고린도 교인들은 분파적이었고(1-2장), 육체적이었으며(3-4장), 부도덕하였고(5장), 사랑이 없었으며(6장), 결혼 파괴자들이었으며(7장), 성별 되지 못했으며(8-10장), 주의 만찬을 경홀히 여기는 자들이었으며(11장), 예배가 혼란되지 못하였으며(12-14장),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지 못하였다(15-16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씻음 받고, 성결 되고, 칭의 함을 받은 성도들이었다(고전 6:11). 게다가 그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고전 12:13). 거기에서부터 그들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고전 1:7)이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 볼 때 확실한 것은 성령세례가 영성에 대한 어떤 증거도 아니라는 점이다.<sup>67)</sup>

## (2) 긍정적인 면에서 본 성령세례

이제까지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성령세례가 아닌 것을 설명했지만, 이제부터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성경이 말하는 성령세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다.

## (가) 성령세례는 성령의 요소 안에 있는 세례이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냐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으로’(ἐν ἐνι πνεύματι)에서 전치사 ‘ἐν’이 여격과 함께 쓰이고 있기 때문에 ‘ἐν ἐνι πνεύματι’를 지역적 의미로 해석하느냐, 도구적 의미로 해석하느냐의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경은 도구적 의미로(by one Spirit) 번역하고 있다. 언거(Unger)는 “헬라어 전치사 ἐν이 도구적 의미인 by를 의미하든, 영역의 위치를 설명하는 in을 의미하든 관계없이 ‘한 성령으로’는 성령세례를 말한다. 성령세례라는 말의 정확한 헬라어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영역 안에서의 세례(in-the-sphere-of-the-Spirit baptism)로서 표현할 수 있다”<sup>68)</sup>고 하였다.

by는 성령이 세례의 주체자가 되며, in은 세례가 성령의 영역 속에서 이루어짐을 나타낸다. 물세례는 그리스도의 지역적인 몸의 지체가 되는 행사로서 물의 영역 속에서 침수된다. 이는 물이 세례가 일어나는 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세례도 성령의 영역 속에서 일어나는 성령이 요소가 되는 세례로 볼 수 있다. 오순절 성령강림의 사례를 보면, “저희 앓은 온 집에 가득하게”(행 2:2) 성령이 내리신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 속에 폭 담가짐을 의미한다.

67) *Ibid.*, p. 24.

68) *Ibid.*, p. 25.

(나) 성령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물세례를 통해서 물은 신자가 침수되는 영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주례자가 있어야 한다. 물은 주례자가 아니며, 세례를 통해서 구성원으로 가입되는 교회도 아니다. 물론 구성원 가운데 주례자가 있지만, 교회 자체는 아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세례도 성령이 요소가 되나 주례자는 아니시다. 삼위일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 성령께서 세례의 요소도 되시고 주례자도 되실 수 있겠으나, 그 역할로 볼 때, 역시 성령을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요 14:16; 16:7). 또한 세례 요한의 증언대로 예수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마 3:11; 막 1:8; 눅 3:16; 요 1:33).

(다) 성령세례는 근본적으로 지역교회와 연결된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표현한 한 몸이란 어떤 몸을 지칭하는 것인가? 12장 12절 이하에서 바울은 몸과 지체에 대해서 잘 묘사하고 있다. 특히 27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하였다. 이는 지역교회를 두고 한 말이다. 1장 2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정의한다.

지역교회를 한 몸으로 보았을 때, 그리스도가 이 몸의 머리 시요(엡 1:22; 4:15; 5:23; 골 1:18), 교회는 그의 몸이다(엡 1:23; 4:12; 5:23; 골 2:24). 그의 몸은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개개인의 구성원을 말하며, 이 구성원들은 그들의 받은바 은사들로 인하여 각각 특색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이다. 그들이 몸의 지체가 되는 이유는 성령세례 때문이다. 구성원의 육체적 의식인 물세례도 성령세례의 근본 위에서 가치가 있다.<sup>69)</sup>

윌리엄즈(John Williams)는 이 같은 내용에 동의하며 말하기를,

69) *Ibid.*, pp. 27-28.

“성령세례의 실제 목적은 그리스도인들이 증거하고 봉사할 힘을 얻게 하려는 것도, 그들에게 황홀한 언어나 경험을 갖게 하려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그들이 많은 사람이지만 한 몸으로 연대하게 하려는 것이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려는 것이었다. 이 위대한 사건에 의해서 모든 신자들은 그들의 출생이 아무리 다양하다 하더라도 하나가 되었다”<sup>70)</sup>고 피력하였다.

#### (라) 성령세례는 보편적이다.

구약에서는 몇 몇 사람만이 특별한 때에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은 반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종말론적인 성령세례는 범우주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이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의 말씀에 잘 반영되어 있다. 여기서 바울은 “. . .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고 주장한다. ‘다’(πάντες) 라는 말은 모든 고린도 교인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말인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상태를 고려해볼 때, 하나의 충격적인 선언이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미숙함을 꾸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오.

윌리엄즈(John Williams)는 이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는 여기서 그들이 ‘육신에 속한 자’(σαρκίνοις/1절)인 것 같이 영적으로 미성숙할 뿐 아니라, ‘육신에 의하여 지배받고 있는 자’(σαρκικ

70) John Williams, 『성령(The Holy Spirit, Lord and Life Giver)』 (로고스, 1986), 143쪽.

oi/3절)처럼 비난받아 마땅함을 지적하고 있다. 만일 흔히 주장되는 것처럼 성령세례가 신령한 사람만의 고유한 영역이며, 축복이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바울이 어떻게 의도적으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이 모두 성령으로 세례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분명 바울은 성령세례에 대해서 알고 있는 만큼, 고린도교회의 상태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 대답은 간단하다. 신약의 다른 저자들과 마찬가지로 바울에게 있어서 영성이란 것은 성령세례의 선행조건도 아니요, 그것의 필연적인 결과도 아니다. 성령의 선물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조건 없이 주는 축복이다. 바울의 교훈에 대한 앞서 나온 주석에서 언급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은 성령으로 세례 받음으로 서이다. 그리스도인이면서 (그가 '육신적인' 사람이냐, '영적인' 사람이냐 하는 것은 여기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성령으로 세례 받지 않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sup>71)</sup>

월부워드(John F. Walvoord)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성령세례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 중의 하나는 그것이 몇몇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사역이라는 견해이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는 순간에 성령세례를 받는다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령과 세례는 공존하며 성령의 이러한 역사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sup>72)</sup>

레네 파치(Rene Pache)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세례를 어떤 특권층의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에게만 국한하는 특별한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성경은 이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고 가르친다. 이 사실에 대한 증거는 성령세례가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도, 그리스도의 몸에 구성원이 될 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나타난다.<sup>73)</sup>

71) *Ibid.*, p. 140.

72) John F. Walvoord, 『성령(*The Holy Spirit*)』 (생명의 말씀사, 1987), 이동원 역, 187쪽; Don DeWalt, 『성령의 능력(*The Power of Holy Spirit*)』 (태광출판사, 1975), 차원봉 역, 33쪽; 황승룡, *op. cit.*, pp. 70-71.

73) Rene Pache, *The Person and Work of the Holy Spirit*(Chicago: Moody Press, 1979), p. 75.

또한 성경은 성령세례의 보편성에 대해서 많은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성경적 자료들을 찾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예언의 말씀에서 볼 때, 이사야는 기록하기를,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사 32:15), “나의 신을 네 자손에게”(사 44:3) 라고 하였다. 여기에 쓰인 ‘우리에게’나 ‘네 자손에게’는 전체적인 뜻을 가진 말씀이다.

에스겔도 기록하기를,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겔 36:26),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겔 36:27),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니라”(겔 39:29) 고 하였다. ‘너희’나 ‘이스라엘 족속에게’ 라는 말은 전체적이고 보편적인 뜻을 가진 말씀이 분명하다.

요엘서의 말씀도 예외는 아니다. 요엘은 기록하기를,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욘 2:28),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욘 2:29) 라고 적고 있다. ‘만민에게’나 ‘남종과 여종에게’도 전체적이고 보편적인 뜻을 가진 말씀이다.

구약의 예언의 말씀에서 뿐 아니라, 신약의 말씀 속에서도 성령세례의 보편성은 강력히 시사되고 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물세례와 비교하여 예수께서 성령으로 모든 사람에게 세례를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마 3:11; 막 1:8; 눅 3:16; 요 1:33).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바꾸어 말하면, 구원받아 천국 갈 사람은 모두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란 뜻이다. 박윤선 목사는 이 말씀이 오순절 성령강림으로 성취되었다고 말한다. 그는 “신약시대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시대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함은 그의 백성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를 말함이라”<sup>74)</sup>고 하였다.

요한복음 7장 38-39절의 말씀도,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남은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킨다고 하였고, 믿는 자가 바로 성령세례를 받는다고 하여 보편성을 시사하고 있다. 사도행전 2

74) 박윤선, 『성경주석: 요한복음』 (영음사, 1979), 114쪽.

장 38-39절의 말씀은 회개하여 세례를 받는 자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하였고, 이는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하였다. ‘모든 먼 데 사람’은 이방인을 두고 한 말이다. 바울 사도도 에베소서 2장 11-13절에서 이방인을 일컬어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또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고도 하였다. 이와 같이 약속은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약속이다(갈 3:26-27). 이 약속은 우주적이긴 하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는” 사람에게 주어진 약속이다. 이 약속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사도행전 5장 32절은 말씀하고 있다.<sup>75)</sup> “우리는 이 일에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행 5:32).

로마서 8장 9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고 하였고, 15절은 로마교회의 성도들이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하였으며, 16절은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 하신다.” 라고 하였다. 또 26절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빌 바를 간구하여 주신다고 하였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하였고, 3장 16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라고 하였다(6:19; 고후 6:16; 엡 2:22). 12장 3절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하였다. 12장 13절은 모든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성령세례를 받았다고 하였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 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고 하였다(5:5). 에베소서 1장 13-14

---

75) Walter J. Chantry, *Signs of the Apostles: Observations on Pentecostalism Old and New*(Carlisle, Pennsylvania: The Banner of Truth Trust, 1979), pp. 82-95.

절은 우리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에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 하였다(4:30).

갈라디아서 3장 2-5절의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고 하였으며, 요한일서 3장 24절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하였고, 4장 2절은 성육신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고 하였으며, 4장 13-15절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수많은 성구들이 성령세례의 보편성을 말하고 있으며, 모든 구원받은 신자는 성령을 소유한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성경은 성령을 받으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엡 5:18), “성령을 좇아 행하라”(갈 5:16, 25), “성령을 소멸치 말라”(살전 5:19),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엡 4:30)고 하였다. 이는 모든 성도가 이미 성령세례를 받았음을 시사하는 것이며, 성령을 심령에 소유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만 이해 될 수 있는 말씀들이다.

#### (마) 성령세례는 성령의 내주 동거하심이다.

성령세례가 성령의 은사와 같지 않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은혜시대의 뚜렷한 특징 중의 하나는 중생한 사람들이 성령세례를 받았을 뿐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인격체로서 그들의 심령 속에 내주 동거하시는 것이다. 성령세례의 보편성과 성령의 내주 동거는 거의 같은 맥락에서 볼 수도 있다.

예언의 말씀인 에스겔 36장 26-27절은 메시아 시대로서 성령시대는 성령께서 성도들의 심령 속에 내주 동거하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다. 이러한 약속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와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에 잘 나타나 있다.

요한복음 7장 38-39절의 말씀은 사람의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에 비교하여 성령의 내주를 시사하였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10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11절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하여 성령의 내주를 입증하고 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 고린도후서 6장 16절, 에베소서 2장 22절은 믿는 성도의 심령이 성령의 성전임을 힘있게 입증하고 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과 5장 5절은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고 하였다. 에베소서 4장 30절도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갈 5:16, 25), “성령을 소멸치 말라.”(살전 5:19),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엡 4:30) 등의 말씀은 성령의 내주 동거를 생각지 않고서는 이해 될 수 없는 말씀들이다.

### (3) 성령세례의 근원, 수단, 시간, 목적

많은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든 생각 때문에 더 이상 구원에 관련된 시간이나 목적에 대해서는 연구해 보려고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근원이 무엇인지조차 모른 채 막연하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말한다. 에베소서 2장 8-10절과 골로새서 2장 11-13절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 가운데서,’ ‘선한 일을 위하여’ 구원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세례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성령세례를 중생과 별개의 시간에 후속적으로 많은 기도의 대가로 받는 방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성경적인 가르침에 관심을 갖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 38절과 갈라디아서 3장 2-5절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성령은 ‘선물로,’ ‘믿음으로,’ ‘세례 가운데서,’ ‘성화’를 위해서 주시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의 구원의 바탕이 은혜요, 수단이 믿음이요, 시간이 세례요, 목적이 선행인 것 같이, 성령세례도 그 바탕이 은혜의 선물이요, 믿음을 수단으로, 세례 가운데서 수여되며, 성화를 목적으로 주어진다든 사실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

## (가) 성령세례의 근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의의 전가로 된 것이다. 인간의 의로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고,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충족시킬 수 없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구원의 한 방법으로 제시된 율법의 완성으로 획득되는 구원은 인간의 죄악 때문에 폐쇄되었다(롬 1:18-3:20).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법을 어긴 인간의 무력성과 소망 없는 상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율법을 준수하고 형벌을 피할 길이 있지만,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며, 법을 어기고 징벌을 받을 수 있지만, 이는 무서운 대용책일 뿐이다. 이것이 인간의 무서운 현실이다. 우리의 힘과 의로움을 의지할 때는 저주밖에 받을 것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처절한 현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께서 다른 한 방법을 주시는 데, 그것이 로마서 3장 21절부터 5장 21절에서 제시되고 있다. 이는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받는 구원이며, 하나님의 의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구원의 방법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는 죄인의 구원에 바탕이 된다(사 61:10; 롬 3:21; 10:3; 고후 5:21; 빌 3:9).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적용되고 간주되고 우리의 것으로 인정된 의이다. 이를 칭의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때문에 율법의 요구는 충족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이 요구를 충족시키시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율법을 완전히 준수하셨고, 수동적으로 인간의 죄의 대가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서 형벌을 받으셨다. 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이 하나님의 의로서 우리들에게 전가된 것이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율법의 요구 충족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두 속성인 사랑과 공의가 다 함께 충족된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의의 표현인 그리스도의 보혈로 즉 그 크신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생은 선물이다(롬 6:23).

성령도 이와 마찬가지로 은혜의 선물로 주신다고 성경은 말한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중적이다. 그 이유는 인간이 가진 문제가 이중적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범죄로 인해서 유죄하며, 유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타고난 죄성에 의해서 인간은 부패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마치 사고를 저지른 과속 차량의 운전자가 법의 처벌과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하듯, 우리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법적 문제의 처리와 부패된 인간성의 치유를 받아야 한다. 이 법적 문제를 처리 받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의의 전가에 의한 칭의이다. 이는 의적이며 객관적인 선포에 의한 의이며, 하나님의 의가 전가된 것이다. 이는 죄인이 무죄자가 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또 죄인이 재판장이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무죄로 선포 될 때, 그 동안의 부패된 인간의 상태도 치료자이신 성령에 의해서 초기적으로 치유된다. 이를 초기 성화라고 한다. 그러나 칭의와 초기성화 후에도 인간은 죄성의 잔존 때문에(롬 7:15-25) 계속해서 치유되어야 하는데 이를 점진성화라고 부른다. 이는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의이며, 만들어진 의이다. 이는 내적이며, 개인적인 의이다. 성령은 치료자가 되시며, 우리의 부패를 치료하시고 감싸신다.

칭의가 죄인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점진 성화는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이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길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어 가는 생활이 속사람이 살아가는 성화의 생활이다. 바로 이 점진성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성령이시다. 이 일을 위해서 성령은 성도의 심령에 내주 하신다.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치 못했던 이 쓰라림을 다시 반복치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선물로 구원받을 때에 함께 주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제 자신의 노력만으로 살지 아니 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신의 죄성을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 이상의 승리자가 되는 것이다(롬 8:37).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로마서 6-8장의 말씀이다. 6장은 신자의 이상적인 삶에 대해서 즉 성화의 삶에 대해서 이성적인 이론을 성립시키고 있고, 7장은 순종의 어려움에 대한 슬픔을 다루고 있으며, 8장은 성령의 내주하심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고 하였고(엡 1:14), 구원의 보증이 되시며(고후 5:5), 인치심의 보증이라고 하였다(고후

1:21-22). 우리의 구원은 이중적이기 때문에 칭의와 성화를 분리할 수 없으며, 성령 없는 성화는 더더욱 생각할 수 없다. 만일 칭의가 선물이라면, 마땅히 성령세례도 선물로 받아야 할 것이다. 초기 성화의 다른 신학적 술어는 중생이다. 중생은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직접적인 사역이다. 육체의 질병은 약으로 치유되지 자신의 믿음만으로 치유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성령은 죄인의 무의식과 그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그의 영혼에 역사하시는 양약이시다. 그러나 그 역사는 효력이 강하여서 그의 부패함을 치료하시고 그의 죄를 사하신다. 비록 죄인이 이 사실을 의식치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은 그에게 생명 즉 중생을 부여하신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령은 중생의 시간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성령은 구하여서 얻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이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필요에 따라서 각양 은사를 나누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고전 12:11) 성령세례를 은사로 볼 수 없다. 어찌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성령의 내주보다 더 큰 것으로 여길 수 있겠는가? 이는 은사를 주시는 이를 모독하는 일이 될 것이다.

성령은 성경 여러 곳에서 은사 또는 선물로서 언급되고 있다(요 7:37-39; 행 11:17; 롬 5:5; 고전 2:12; 고후 5:5). 은사는 성격상 공로 없이 주어지는 것이며, 선물로서의 성령은 결코 보상으로써 언급된 일이 없다.<sup>76)</sup>

사도행전 2장 38절은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유대인은 물론 이방인들에게까지 주시겠다고 약속이라고 하였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가?

“성령을 선물로”(δωρεάν τοῦ ἁγίου πνεύματος)란 말은 선물이 곧 성령이라는 뜻이다. 로버트슨(A. T. Robertson)은 그의 『언어 사전』(Word Pictures)에서 ‘τοῦ ἁγίου πνεύματος’를 동일성 소유격으로 보고, 이를 ‘성령의 선물’로 해석치 아니하고 ‘성령을 선물’로 풀이하고 있으며, 터너(N. Turner) 역시도 소유격을 물질 소유격으로 보고, 이

76) Walvoord, *op cit*, p. 202.

를 ‘성령을 선물’로 풀이하고 있다고 배일즈(James D. Bales)는 소개하고 있다. 또한 배일즈는 사도행전 2장 39절에 언급된 ‘약속’(ἐπαγγελία)이 복수가 아니라 단수란 점을 지적하면서 죄 사함과 성령세례가 동시적인 것이라고 말한다.<sup>77)</sup>

로버트 밀리간(Robert Milligan)도 ‘성령을 선물로’란 성령의 기적적인 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그 자신이라고 말한다. 그는 여기에 사용된 ‘선물’(δωρεάν)이 단수로 사용되었으며, ‘은사’(χαριούματα)는 복수라고 지적하였다. 이 선물의 특색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지지만, 은사는 때때로 비신자들에게도 주어진다고 하였고, 이 선물은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약속된 반면(행 2:39), 은사는 일부 성도들에게 제한되고 있다(골 3:25-27; 요 7:37-39; 롬 5:5; 8:9-11; 고후 1:22; 갈 4:6; 엡 4:30; 5:18)고 하였다.<sup>78)</sup>

키텔(Kittel)의 사전에도 사도행전 2장 38과 8장 20절의 δωρεάν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서 성령을 말한다고 하였고, 이 단어의 뜻은 ‘값없이’ ‘무상으로’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sup>79)</sup>

전경연의 4명의 학자들은 교회가 이방사회와 다른 것은 교회가 바로 성령을 선물로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믿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롬 8:9; 갈 3:2; 고후 12:13; 13:13). 또 바울은 성령을 그리스도인에게 준 선물이라고 했고(살전 1:5; 고후 1:6; 롬 9:1; 15:13, 16; 엡 1:13), 그리스도인은 그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 때문에 성전이라고 했다고 적고 있다.<sup>80)</sup>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며, 성령세례를 고행스런 기도와 헌금 그리고 믿음 이상의 것

77) James D. Bales, *The Holy Spirit and the Christian*(Shreveport, Louisiana: Lamber Book House, 1966), p. 6.

78) Robert Milligan, *Exposition and Défense of the Scheme of Redemption As It Is Revealed and Taught in the Holy Scriptures*(Nashville: Gospel Advocate Co., 1977), pp. 276-284.

79) Gerhard Kittel and Gerhard Friedrich, ed., *The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translated and abridged in one volume by Geoffrey W. Bromiley(Grand Rapids: WM. B. Eerdmans, 1985), p. 167.

80) 전경연의 4명, 『신구약성서신학』(대한기독교서회, 1963), 218-220쪽.

으로 받으려고 하는 것은 이미 받은바 성령을 깨닫지 못한 처사에서 나오는 어리석은 짓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우리가 자전하는 지상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듯이 성령을 모시고 살고 있으면서도 성령의 뜻에 따라 살지 못하고, 성령을 모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많다.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는 이 귀한 가르침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값진 복음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이 귀한 사실은 우리의 심령 속에 내주 하시는 성령께서 원하신다면 귀하고 신령한 은사도 주실 것을 믿는 것이며, 그 은사들은 멀리서 구할 것이 아니요, 자신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자신의 심령 속에 계시는 성령께 구해야 할 것이다.

#### (나) 성령세례를 받는 수단

우리가 구원을 믿음이란 통로를 통해서 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인간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믿음을 통하여 하신다(롬 3:21-23). 그러므로 믿음은 구원을 받는 통로이며 수단이다. 믿음 그 자체가 구원의 근원일 수는 없다.

칭의와 중생 그리고 초기성화는 불가분의 관계이며, 동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믿음을 통하여 구원 또는 칭의 함을 받는다는 말은 곧 믿음을 통하여 중생과 초기성화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화는 성령의 직접적인 사역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이므로 결국 믿음으로 성령세례를 받는다. 이런 맥락에서 갈라디아서 3장 2-5절의 말씀은 믿음으로 성령세례를 받는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입증하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나, 듣고 믿음으로나?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 . .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나, 듣고 믿음에서나?

오순절 운동가들은 성령세례의 조건으로 죄의 완전자복과 백퍼센트 순종, 철저한 굴복, 완전한 믿음, 꾸준한 기도 등을 들고 있으나,

성경적인 조건은 ‘믿음으로’ 성령세례를 받는다는 것이다. 결국 구원과 성령세례는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동시적인 사건이며, 한 믿음을 통하여 두 가지를 다 받는 것이다. 성령이 없이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성령세례와 구원은 하나인 것이다. 에베소서 4장 5절은 한 믿음, 한 세례, 한 주, 한 소망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오순절 운동가들은 두 가지 회개, 두 가지 순종, 두 가지 믿음, 세 가지 세례 등을 가르침으로써 성경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 레네 파치(Rene Pache)도 구원과 성령세례가 동시적인 것으로 믿어서 믿음으로 성령세례를 받는다고 주장하였다.<sup>81)</sup>

#### (다) 성령세례를 받는 시간

구원과 성령세례를 언제 받느냐 하는 문제는 신학적으로나 교단적으로 논란이 되는 이슈이다. 오직 믿음만 주장하는 일부 교단에서는 믿음을 갖는 순간부터 구원과 성령세례를 받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가? 성경은 세례를 받는 시간이 구원과 성령세례를 받는 시간이라고 말한다. 세례 자체가 구원과 성령세례를 받는 시간이라고 말한다. 세례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것도 아니요, 세례 때문에 성령세례를 받는 것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장소 또는 시간이 세례일 뿐이다.

이러한 가르침은 사도 시대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교회의 가르침이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은, “. . .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말한다.

잘못된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성례를 하나의 구원의 수단으로 보는 견해가 천주교회나 루터교회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내려 온 역사적 견해이다. 이들 교단들은 세례가 죄 사함을 위한 것으로 믿고 가르친다. 이를 세례가 죄인을 영적 죽음으로부터 일종의 변화를 가져오는 실제적 효과를 가진 것으로 믿는다하여 세례중생자라고 몰아붙이는 교단들도 있지만, 천주교나 루터교는 세례가 수혜자에게

81) Pache, *op. cit.*, p. 74.

은혜를 실제로 실어온다고 믿는다. 이들에 의하면, 세례는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은혜를 부여하시는 하나의 수단이며, 죄 사함을 그 결과로 낳는다고 믿는다. 일깨우는 또는 강건한 믿음에 의해서 세례는 중생의 씻음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다.

천주교나 루터교의 다른 점은 천주교는 수혜자가 영적 방해를 가하지 않는 한 교회의 올바른 성례전 의식 수행이 수혜자에게 은혜를 실어온다는 것이며(ex opere operato), 성례전 자체로서 구원하는 은혜에 족하며, 작용하는 능력(virtus operativa, operative power) 갖는다고 믿는 반면, 루터교나 개신교들은 성례전이 은혜의 수단으로써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수혜자에게 믿음이 선행되어야 하며, 단순한 의식 수행만으로는 은혜를 실어오지 않는다고 믿는데 있다.<sup>82)</sup>

천주교회의 성례전에 대한 가르침이 신학적으로 큰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세례와 구원을 밀접한 관계로 보는 그들의 견해는 사도적 전통에 따른 것은 물론 성경적 입장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벧전 3:21)고 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는 신성한 은혜의 복음은 우리가 세례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고정관념 때문이다. 복음의 순수한 본질은 인간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써 구원받지 어떠한 인위적 선행이라도 구원받기에 족하지 않다는 바울 사도의 가르침이기도 하다(롬 3:28; 엡 2:8-9; 갈 2:16; 딤후 3:4-5; 딤후 1:9-10). 문제는 세례를 구원에 족하지 못한 인간의 행위로 보기 때문에 세례는 구원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며, 성경의 세례가 구원에 관련된다는 말씀들을 영적으로 풀이해 버리려는 노력이 강행되고 있다.

그러나 세례가 과연 인간의 행위의 공적이 되는가하는 문제는 심각하게 논의되어야 한다.

82) Millard J. Erickson, *Christian Theology*(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5), p. 1090. See also Richard A. Muller, *Dictionary of Latin and Greek Theological Terms*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6), p. 108.



은혜란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을 뜻한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바울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였다. 진실로 구원은 어떤 인간도 마땅히 받을 가치가 없으면서도 받게 되는 선물이다.

그러나 이 은혜의 선물조차도 그의 은혜를 신뢰하는 자들에게만 주시게 될 것을 약속하셨다. 이 선물도 하나의 약속인 것을 주목하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 하였다. 이것이 은혜이다. 이 약속의 선물을 믿음이란 수단을 통해서 받게 된다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약속된 하나님의 선물이 죄인에게 주어지는 시간으로써 세례가 은혜와 깊은 관련을 맺게 된다.<sup>83)</sup>

이는 또한 환원운동가들의 전통적인 신앙이다. 알렉산더 캠벨(Alexander Campbell)은 세례의 목적에 대해서 1822년 처음으로 세례가 죄 사함을 위한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월터 스콧트(Walter Scott)가 캠벨에게 이 깨우침을 준 것이다. 캠벨은 세례가 죄를 씻기 위해서는 믿음의 행위가 따라야 한다고 했다. 1823년 10월 맥칼라(W. L. Maccalla) 목사와의 토론에서 그는 세례는 형식적으로 우리의 죄를 씻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죄를 씻는다고 했다. 성경에 죄 사함에 대한 형식과 실질적 구분은 없지만, 형식을 시간의 개념으로 본다면, 전혀 잘못될 것이 없다. 골로새서 2장 12절의 ‘세례 가운데서’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장소로 본다면, 세례라는 형식을 빌어 세례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세례 받는 죄인에게 적용시키신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캠벨의 견해는 5년 후인 1828년 그의 잡지 『크리스천 뱍티스트』(*The Christian Baptist*)<sup>84)</sup>와 1849년 역시 그의 신 잡지인 『밀레니엄 하빈저

83) Andrew Paris, "Baptism and Grace," *The Restoration Herald*(Cincinnati: The Christian Restoration Association, February 1977), p. 14.

84) Alexander Campbell, *The Christian Baptist*(1828): reprint ed.,(Nashville: Gospel Advocate, 1955), pp. 128, 222, 256.

』(*The Millennial Harbinger*)에도 나타나 있다.<sup>85)</sup>

실제로 캠벨은 세례를 시간의 개념으로 본 것이 확실하다. 이 시간을 죄 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받는 때라고 믿었던 것이다. 그는 “죄 사함과 하나님의 가족으로 양자됨에서 오는 다른 축복들이 주어지는 즉각적인 시간과 매체가 있다”고 했는데, 이는 물세례를 두고 한 말이다.<sup>86)</sup>

캠벨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원천적이고 역동적인 원인이시며(the original and moving cause),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 구원에 공적인 원인이며(the meritorious cause), 믿음은 구원을 받는 도구적인 원인이며(an instrumental cause), 세례는 모든 축복 즉 칭의와 중생(초기 성화)과 성령을 선물로 받는 시간이었다.<sup>87)</sup>

근대 환원운동의 기수 포스터(R. C. Foster)는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에서 말하기를, “헬라어 원어에는 ‘물과 성령’에 대한 전치사가 ἕξ 하나뿐이며, ‘물과 성령’에 관사가 붙지 않았다. 이는 각인의 영혼의 구속에 대한 단 한 행위가 있을 뿐임을 말한다.”<sup>88)</sup>고 하였다.

물세례를 받는 시간이나 목적과 관련해서 사도행전 2장 38절의 성구는 매우 중요하다. 이 성구 속에 “εἰς ἄφεσιν τῶν ἁμαρτιῶν ὑμῶν”이란 문장이 있다. 이 부분을 ‘너희의 죄 사함을 얻기 위하여’로 해석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죄 사함을 얻었기 때문에’로 해석하느냐가 전치사 εἰς에 대한 문법적 해석 때문에 제기 되고 있다.

대부분의 개역성경들과 언어학자들이 본문의 εἰς를 ‘~을 위해서’로 번역하고 있다. εἰς가 대격과 함께 쓰일 때는 목적의 뜻으로 해석해야 문법적으로 옳다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침례교

85) Alexander Campbell, *The Millennial Harbinger*(1849): reprint ed.,(Joplin, Missouri: The College Press, n.d.), p. 130.

86) *The Christian Baptist*(1828), *op. cit.*, pp. 254-255.

87) Alexander Campbell, *The Christian Baptism with Its Antecedents and Consequents*(Nashville: Gospel Advocate, 1951), pp. 205, 221, 229. See also *The Millennial Harbinger*(1849), *op. cit.*, p. 611 and *The Christian Baptism*(1828), *op. cit.*, p. 255.

88) R. C. Foster, *Studies in the Life of Christ*(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1), p. 371.

학자들은  $\epsilon\iota\varsigma$ 가 대격과 함께 쓰일 때에 원인 또는 결과의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면서 ‘~때문에’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다.

제임스 브룩스(James A. Brooks)와 칼톤 윈비(Carlton L. Winbey)는 *Syntax of New Testament Greek*에서, 마태복음 3장 11절의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를 “나는 너희의 회개 때문에 너희를 세례 준다”로, 사도행전 2장 38절의 “너희가 회개하여 죄 사함을 얻기 위하여 . . . 세례를 받으라”를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가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 . . 세례를 받으라”로 대격과 함께 쓰이는  $\epsilon\iota\varsigma$ 를 유독 여기에서만 원인적으로 해석할 것을 가르친다.<sup>89)</sup> 한편 요한복음 1장 7절과 마태복음 26장 2절의 말씀은 목적의 뜻으로 해석하고 있어서<sup>90)</sup> 자기 교단의 교리를 지지하기 위한 사전인수 격인 해석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미국 시카고에 위치한 북침례교신학대학원의 만테이(J. R. Mantey) 교수는 “어느 헬라어 사전도  $\epsilon\iota\varsigma$ 를 원인의 뜻으로 번역치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epsilon\iota\varsigma$ 를 원인의 뜻으로 가르치는 유일한 문법책은 *A Manual Grammar of the Greek New Testament* 뿐이라고 자랑하였다.<sup>91)</sup> 그는  $\epsilon\iota\varsigma$ 의 원인적인 사용을 입증키 위해서 주전 2세기경의 폴리비우스(Polybius)의 글을 예로 들었다. 여기서 만테이 교수는 신약 성경에  $\epsilon\iota\varsigma$ 를 ‘~때문에’로 해석할 수 있는 곳이 9개나 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sup>92)</sup>

이들의 이러한 주장은 세례를 행위로 보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sola fide의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해석임을 다음의 두 저자들의 색다른 주장에서 살 펴 볼 수 있다.

칼 베이스너(Car Beisner)는 사도행전 2장 38절의 해석에서 “죄 사함을 얻는 것은 세례가 아니라 회개라”는 사실을 헬라어 문법적인 차원에서 볼 때 분명하다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은 “너희가 회개하

89) James A. Brooks and Carlton L. Winbey, *Syntax of New Testament of Greek*(Washington, D.C.: University Press of America, Inc., 1979), p. 56.

90) *Ibid*, p. 54.

91) 저자는 1950년대를 두고 한 말이다.

92) J. R. Mantey, "The Causal Use of  $\epsilon\iota\varsigma$  in the New Testament,"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LXX(March 1951), pp. 45-48.

여"에서 "너희는" 복수인데, "각각(너희 중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에서 "각각"은 단수이며, "(너희의) 죄 사함을 받으라"에서 "(너희는)" 복수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죄 사함을 얻는 것은" 복수로서 역시 복수인 회개함의 결과이지, 단수인 "세례"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복수 명사는 2인칭인 반면, 단수 명사는 3인칭이라면서 죄 사함은 회개의 결과라는 역지를 쓰고 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 38절은 세례가 구원에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결론짓는다.<sup>93)</sup>

고넬리우스 스태(Cornelius Stam)은, 사도 바울에 의하면, 물세례가 결코 죄 사함을 위해 요구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 당시 몇몇 사람밖에는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사실을 기쁘게 여겼다는 것이며(고전 1:17-18), 그의 서신서 어느 곳에서도 물세례를 베풀 것을 명령하거나 권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바울이 에베소서 4장 5절에서 "세례도 하나이요" 라고 한 "한 세례"는 곧 영적 세례라고 주장한다.<sup>94)</sup>

그러나 렌스키(R. C. H. Lenski)의 사도행전 22장 16절의 해석은 스태의 물세례 부정과 세례의 상징화에 대해서 적절한 해답이 될 것이다. 사도행전 22장 16절의 말씀은 "이제는 왜 주저하느뇨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이다. 이 말씀에는 두 개의 단순과거 명령이 원인적 중간 상태 즉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로 되어 있다. 렌스키는 이 말씀이 "침례의 구원하는 능력에 관한 육체적 구절들 중의 하나이다." 라고 말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내적 은혜에 대한 외적 표현이라"는 사실을 믿으려 들지 않고, 단순히 상징적인 예식으로 취급하려 한다. 이에 대해서 렌스키는 사도행전 2장 38절이나 누가복음 3장 3절의 말씀과 함께 사도행전 22장 16절의 말씀도 상징적이거나 비유적인 말씀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세례 받고, 실제적으로 죄 씻음 받은 것

93) Car Beisner, *Is Baptism Necessary for Salvation?*(Santa Ana: Caris, 1980), pp. 14-15.

94) Cornelius Stam, *Things That Differ*(Chicago: Berean Bible Society, 1951), pp. 23-31.

을 의미한다고 하였다.<sup>95)</sup>

$\epsilon\iota\varsigma$ 의 언어학적 의미는 사도행전 2장 38절의 문맥을 통해서 볼 때 매우 분명하게 드러난다. 오순절 날 유대인들은 사도들이 방언 말씀을 듣고 기이히 여겨 솔로몬 행각에 모여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되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였다는 사실과 유대인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고 설교하였다. 이 때 유대인들은 마음에 찢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물었다. 이때에 베드로가 회개하라. 그리고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죄 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대답하였다. 한마디로 베드로의 설교의 대상은 죄 사함을 아직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하물며, 어떻게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말이 그들에게 적용이 되겠는가?

$\epsilon\iota\varsigma$ 의 언어학적 의미는 마태복음 26장 28절의 문맥을 통해서도 매우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는 예수의 말씀을 “이것은 죄 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해석할 수 있겠는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시기적으로 아직 구속의 교리가 적용되기 이전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도저히 결과의 뜻으로 볼 수 없는 말씀이다.

앞에서 소개한 몇 사람의 침례교 학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언어 학자들은 사도행전 2장 38절의  $\epsilon\iota\varsigma$ 를 목적의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

보우도인 대학(Bowdoin College)의 헨리 드윙(Henry B. Dewing) 교수와 그리스 아테네 대학(Athens College)의 학장은, “ $\epsilon\iota\varsigma$ 는 결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 각각 세례를 받으라’로 해석해야 한다. ‘~때문에’ 라는 해석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고 주장하였다.<sup>96)</sup>

클라크 대학(Clark College)의 헬라이어 교수 헨리 브라케트(Henry Darling Brackett)는  $\epsilon\iota\varsigma$ 의 본래의 뜻이 ‘~안으로’, ‘~을 향하여’, ‘~

95) R. C. H. Lenski, *The Interpretation of Acts of the Apostles*, pp. 909-910.

96) Donald A. Nash, "For the Remission of Sin," *The Christian Standard* (Cincinnati: The Standard Publishing Co., March 30, 1975), p. 6.

의 방향으로'이며, '~으로부터', '~에서 일어나는' 혹은 '~때문에'가 아니기 때문에 "εἰς를 '~을 위해서', '~을 목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였다.<sup>97)</sup>

오벨린 신학대학원(Oberlin Graduate School of Theology)의 강사인 프랭크 휴 포스터(Frank Hugh Foster)는 "εἰς의 의미는 다음의 두 가지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하나는 회개와 세례에 순복하는 이중적 행위의 목적을 지적하든지, 아니면 그 결과를 말하는 것이다. 전자는 '~을 얻기 위해서'로 해석될 것이요, 후자는 '~의 결과로' 해석될 것이다. 그러나 언어학적으로 전자가 후자보다 더 타당하다. 전치사 εἰς는 결코 '~때문에'를 의미하지 않는다." 라고 하였다.<sup>98)</sup>

에드가 구드스피드(Edgar I. Goodspeed)는 신학적인 견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가 번역한 『구드스피드 신약성경』에서 "사도행전 2장 38절의 εἰς는 결코 '~때문에'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하였다.<sup>99)</sup>

오페크(A. Opeke)는 εἰς를 "어떤 지정된 목적에로 향하는 행동의 방향을 나타낸다"고 하였다.<sup>100)</sup> 아른트(Arndt)와 진그리치(Gingrich)의 헬라어 사전도 εἰς의 기본 의미를 "사물로 향한 움직임을 지적하는 것"<sup>101)</sup>이라고 하였다. εἰς는 대격을 지배하는 데, 대격은 앞쪽을 향한 움직임 자체를 나타내는 확장격이다.

시카고 대학교의 랄프 마르쿠스(Ralph Marcus) 교수는 "On Causal εἰς"라는 글로써 북침례교신학대학원의 만테이(J. R. Mantey) 교수의 글, "The Causal Use of εἰς in the New Testament"를 반박하였다.<sup>102)</sup> 마르쿠스는 εἰς의 훌륭한 문법이 만테이 교수의 신학적인 선입견을 지지 않는다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97) *Ibid*

98) *Ibid*

99) *Ibid*

100) Gerhard Kittel, s.v. "εἰς."

101) Arndt and Gingrich,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s*, s.v. "εἰς."

102) Ralph Marcus, "On Causal EIS,"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LXX(June, 1951), pp. 129-130.

만테이 교수는  $\epsilon\iota\varsigma$ 와 관련된 사도행전 2장 38절과 기타 다른 신약의 성구들에 대한 자신의 해석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비성서 헬라어 문헌에서 원인적 의미로 사용된  $\epsilon\iota\varsigma$ 의 사례들을 본보기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들 사례들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 . . . 그러므로 만테이 교수가 비언어학적인 논리들에 있어서 옳지 못한 만큼, 세례와 회개와 죄 사함에 관한 다른 성구들의 해석에 있어서도 옳지 못하다.<sup>103)</sup>

마르쿠스 교수는  $\epsilon\iota\varsigma$ 의 최종적 원인과 목적은 거의 같은 것이며, 신약성경의 성구들 가운데는 최종 원인과 목적을 구별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이나, 영어와 마찬가지로 헬라어도 대화상에서 목적과 결과를 혼돈하기 때문에  $\iota\upsilon\alpha$ 나  $\omega\varsigma$  대신에 코이네 헬라어는  $\omega\sigma\tau\epsilon$ 를 쓴다고 하였다. 영어에서도 사람들은 종종 "in order that he might study" 대신에 "I left him so that he might study"와 같은 표현을 쓰는 것과 같다고 한다.<sup>104)</sup>

만테이 교수가 주장하는 9개의 성구와는 달리 신약성경에서 1,773개나  $\epsilon\iota\varsigma$ 가 사용되고 있으나, 단지 4곳만이 “~때문에”로 해석될 수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sup>105)</sup> 만테이 교수와 같은 교단에 속한 학자들 가운데 셰퍼드(J. W. Shepherd, *Handbook on Baptism*, pp. 339-359)와 비즐리 머레이(G. R. Beasley-Murray, *Baptism in the New Testament*) 그리고 화이트(R. E. O. White, *The Biblical Doctrine of Initiation*)와 같은 이들은 오히려  $\epsilon\iota\varsigma$ 의 목적의 뜻을 지지하고 있는 입장이다.<sup>106)</sup>

전치사  $\epsilon\iota\varsigma$ 가 우리말로 ‘~을 위해서’로 밖에 표현할 다른 말이 많지 않지만, 영어로는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1974년 2월자 *Restoration Herald*에 의하면, 무려 41개의 영어 성경이  $\epsilon\iota\varsigma$ 를 ‘for’로 번역하고 있으며, 14개의 성경이 ‘unto’로 27개의 다른 성경이 ‘in order that,’ ‘to have your sins forgiven’ 등으로 번역되고 있다 한

103) Ralph Marcus, "The Elusive Causal  $\epsilon\iota\varsigma$ ,"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LXX(March, 1952), pp. 43-44.

104) "On Causal  $\epsilon\iota\varsigma$ ," p. 130.

105) Nash, *op cit*, pp. 6-7.

106) Jack Cottrell and Andrew Paris, "Is Salvation a Process?" *The Christian Standard*(Cincinnati: The Standard Publishing Co., November 2, 1975), pp. 7-8.

다. 이와 같이 사도행전 2장 38절의 εἰς는 침례교단의 몇 분의 학자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학자들, 사전편찬자들, 성경 번역가들조차도 ‘~을 위해서’로 번역하고 있다. 이는 세례가 죄 사함을 받는 시간이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 축복의 시간임을 말하는 것이다.

#### (라) 성령세례를 받는 목적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목적은 거룩한 삶과 성화의 삶을 위한 것이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은혜로 구원 주시고 죄성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성도들의 구원을 보증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롬 8:12-17). 성령의 내주하심은 성도를 도와서 성화를 이루어 나가도록 도우시며, 종국에는 구원의 성취를 이루게 하신다. 성경은 성령의 내주하심을 ‘구원의 보증’ 또는 ‘기업의 보증’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바울은 이신칭의가 율법을 폐하기보다는 오히려 율법을 크게 세운다고 로마서 3장 31절에서 가르치고 있다. 이신칭의는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며, 율법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였다(갈 5:1이하). 또한 율법은 구원이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고, 이로써 율법의 사명은 완수되었다.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죄인을 의롭다 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어 성령의 도움으로 율법을 지킬 힘을 주신다. 성도는 의무로써 하지 아니하고 구원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써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

로마서 1-5장에서 바울은 이신칭의 교리를 설명하였고, 율법의 행위로써는 죄 때문에 어느 인간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6-8장에서는 성결과 거룩한 삶에 대해서 즉 성령에 의한 성화의 삶에 대해서 강조하였다. 여기에서 바울은 이신칭의를 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신앙인의 삶을 살아 가야할 의무를 제시하였고, 이러한 성도의 삶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것임을 강조하였다.

바울은 구원의 목적을 ‘선한 일을 위한 것’이라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26절에서 성령의



열매와 성령으로의 삶을 설명하고 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라”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신학과 윤리 또는 믿음과 실천이 적절하게 안배된 균형 잡힌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성경은 구원을 받기 위한 선행을 부정적으로 말하였지만,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할 의무를 면제하지 않았다. 오히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령 안에서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성령이 없이는 누구도 성화의 삶을 살수가 없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목적은 거룩한 삶을 위한 것이다(롬 8:12-17). 야고보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였다(약 2:14-26).

## 나오는 말

필자는 이 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목적으로 삼았다. 첫째는 성령세례가 오순절 운동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성령의 은사나 충만이 아니라, 성령으로의 세례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임을 강조하려 하였다. 성령론의 중요성은 외적이고 증거적인 은사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에 의한 구원, 성령에 의한 성화, 성령에 의한 하나님의 나라의 체험과 같은 내적이고 개인적인 축복에 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현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 신자들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과 말씀하시는 경험을 맛볼 수 있기 때문이다. 성령의 은사도 중요하다. 초대교회 때처럼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될 수 있다면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그러나 보다 본질적이고

중요한 성령에 관한 가르침은 성령의 내주 동거하심에 있다고 본 것이다.

둘째는 성령세례가 인간이 구한다고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때에 선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침례의 때에, 성화를 목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점을 강조하려 하였다.

성령 충만이나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은사의 소유가 신앙생활의 최상도 아니며, 성령 충만의 조건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열매 맺는 생활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일차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창조적인 질서의 회복이요, 이차적으로는 인간답게 살아가는 인간성의 회복에 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높이며, 질서와 법도를 알고, 상식과 순리를 알고,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빌립 샤프의 지적대로, 기독교인의 삶은 그 자체가 “초자연적인 삶의 표명이요, 정결과 평화의 삶이요, 성부 성자 성령과의 연합이며, 교제의 삶이다. 그것은 중생으로 시작하고 부활에서 누적되는 삶이다.”<sup>107)</sup>

## 참고서적

### 국문서적

- 국제신학연구원. 『여의도 순복음 교회의 신앙과 신학』 서울서적, 1993.  
 김균진. 『기독교 조직신학』 III권.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7.  
 류제창. 『개혁주의 은사론』 성광문화사.  
 박윤선. 『성경주석: 요한복음』 영음사, 1979.  
 안문기. 『노 양과의 대화로 풀어보는 즐거운 전례: 계절과 축제』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2.  
 오우성. 『바울의 갈등과 회심: 로마서 7장 14-25절의 주석사』 대한기독교서회, 1992.  
 이재범. 『성령과 선교』 보이스사, 1986.  
 ----- . 『성령운동의 역사』 보이스사, 1985.  
 전경연외 4명. 『신구약성서신학』 대한기독교서회, 1963.

107) Philip Schaff,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vol. 1, *Apostolic Christianity A.D. 1-100*(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85), pp. 432-433.

- 조동호. 『로마서와 구원』 서진출판사, 1994.  
 ----- 『성령론 교재』 한성신학교.  
 -----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서진출판사, 1994.  
 차영배. 『간략한 성령론』 충신대학교, 1989년 2월 5일.  
 황승룡. 『개혁교회와 성령』 성광문화사.

## 영문서적

- Arndt and Gingrich,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s*.
- Bales, James D. *The Holy Spirit and the Christian*. Shreveport. Louisiana: Lamber Book House, 1966.
- Baxter, Ronald E. *The Charismatic Gift of Tongues*. Grand Rapids: Kregel Publications, 1981.
- Beisner, Car. *Is Baptism Necessary for Salvation?* Santa Ana: Caris, 1980.
- Brooks, James A. and Winbey, Carlton L. *Syntax of New Testament of Greek* Washington, D.C.: University Press of America, Inc., 1979.
- Bruner, Frederick Dale. *A Theology of the Holy Spirit: The Pentecostal Experience and the New Testament Witness*. Grand Rapids: WM. B. Eerdmans, 1982.
- Campbell, Alexander. *The Christian Baptism with Its Antecedents and Consequents*. Nashville: Gospel Advocate, 1951.
- *The Christian Baptist*(1828): reprint ed. Nashville: Gospel Advocate, 1955.
- *The Millennial Harbinger*(1849): reprint ed. Joplin, Missouri: The College Press, n.d.
- Chantry, Walter J. *Signs of the Apostles: Observations on Pentecostalism Old and New*. Carlisle, Pennsylvania: The Banner of Truth Trust, 1979.
- Cottrell, Jack. *His Truth* Cincinnati: The Standard Publishing Co, 1980.
- Erickson, Millard J. *Christian Theology*.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5.
- Foster, R. C. *Studies in the Life of Christ*.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1.
- Keil, C. F. and Delitzsch, F.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in Ten Volumes, vol. 1: The Pentateuch*. Grand Rapids: WM. B. Eerdmans, 1986.
- Kittel, Gerhard and Friedrich, Gerhard, ed. *The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translated by Geoffrey W. Bromiley. Grand Rapids: WM. B. Eerdmans, 1981.

- . *The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Translated and abridged in one volume by Geoffrey W. Bromiley. Grand Rapids: WM. B. Eerdmans, 1985.
- Lenski, R. C. H. *The Interpretation of Acts of the Apostles*.
- McGarvey, J. W. *New Commentary on Acts of Apostles*. Cincinnati: The Standard Publishing Co, n.d.
- Milligan, Robert. *Exposition and Defense of the Scheme of Redemption As It Is Revealed and Taught in the Holy Scriptures*. Nashville: Gospel Advocate Co., 1977.
- Muller, Richard A. *Dictionary of Latin and Greek Theological Terms*.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6.
- Nida, Eugene A. *Customs and Cultures*. California: Williams Carey Library, 1975.
- Pache, Rene. *The Person and Work of the Holy Spirit*. Chicago: Moody Press, 1979.
- Reese, Gareth L. *New Testament History: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Book of Acts*. Joplin, Missouri: College Press, 1983.
- Schaff, Philip.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vol. 1, Apostolic Christianity A.D. 1-100*.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85.
- Stam, Cornelius. *Things That Differ*. Chicago: Berean Bible Society, 1951.

### 번역서적

- 드웰트, Don. 『성령의 능력(*The Power of Holy Spirit*)』 차원봉 역. 태광출판사, 1975.
- 월부어드, John F. 『성령(*The Holy Spirit*)』 이동원 역. 생명의 말씀사, 1987.
- 윌리엄즈, John. 『성령(*The Holy Spirit, Lord, and Life Giver*)』 로고스, 1986.
- 토레이, R. A. 『성령론』 심재원, 김수진 옮김. 대한기독교서회, 1989.
- 토레이, R. A. 『성령의 사역』 이성강 역. 기독교 문서 선교회, 1984.
- 후크마, 안토니 A. 『개혁주의 종말론』 유희준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1986.
- 히벨리투스. 『사도전승』 분도출판사, 1992.

### 해외논문

- Cottrell, Jack. "Are Miraculous Gifts the Blessing of Pentecost?" *The Christian Standard* Cincinnati: Standard Publishing Co., May 1982.
- Cottrell, Jack and Paris, Andrew. "Is Salvation a Process?" *The Christian Standard* Cincinnati: The Standard Publishing Co., November 2, 1975.
- Mantey, J. R. "The Causal Use of EIS in the New Testament."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LXX. March 1951.

Marcus, Ralph. "On Causal EIS."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LXX (June, 1951).

Marcus, Ralph. "The Elusive Causal EIS."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LXX. March, 1952.

Nash, Donald A. "For the Remission of Sin." *The Christian Standard* Cincinnati: The Standard Publishing Co., March 30, 1975.

Paris, Andrew. "Baptism and Grace." *The Restoration Herald* Cincinnati: The Christian Restoration Association, February 1977.



## 제2부 성령에 관한 설교

### 1.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행전 5장 1-5절]

#### 가. 신성을 지닌 하나님 성령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은 신성을 지닌 하나님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교회를 속인 것은 성령을 속인 것이며, 성령을 속인 것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고 사도행전 5장 4절에서 심하게 꾸짖었다. 또 예수는 자신을 훼방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사람의 모든 죄와 훼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훼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고 마태복음 12장 31-32절에서 경고하셨다. 히브리서 저자도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는지 생각하라"고 히브리서 10장 29절에서 경고하였다. 이들 성구들을 통해서 보건대, 성령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초월적인 신입니다. 누구로부터 만들어진 영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영입니다. 시작된 때가 없고 만들어진 때가 없으며, 영원 전부터 영존하시는 영입니다. 그러나 다른 영들, 이블테면, 천사나 마귀와 같은 영들은 시작된 때가 있고, 만들어진 때가 있는 영들이다. 따라서 그들은 영원하지 못하며, 제 위치를 지키지 않았던 마귀의 영들은 멸망 받게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 가르치고 있다. 신학에서는 이 세 분을 세 분이라고 말하지 않고 한 분이라고 말한다. 한 분 하나님 안에 세 분의 인격자가 계시다고 보는 것이다. 아버지로서의 인격자와 아들로써의 인격자와

성령으로써의 인격자를 말하는데 이 세 분의 인격자들이 결국 한 분 하나님 안에 계신다는 뜻이다.

태양은 하나이지만 그 빛은 일시에 온 누리를 비춘다. 그리고 그 빛 속에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은 광선이 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도 않고 감각으로 느껴지지도 않지만 이 빛은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직진한다. 일 초에 지구를 일곱 바퀴 반을 돌 수 있는 빠른 속도이다. 그런데 이 빛이 사물에 닿으면 반사를 한다. 이 반사하는 빛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물을 볼 수 있다. 또 빛은 사물에 닿으면 굴절을 한다. 이 굴절하는 빛으로 인해서 열을 발산한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광선이 물체에 부딪칠 때 반사하는 빛을 통해서 보게 되고, 굴절하는 빛을 통해서 따스함을 느낀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다. 아버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만져볼 수도 없다. 옛적부터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었고 본 사람도 없다. 하나님은 강렬한 불꽃같아서 불에 닿은 하루살이가 살수 없듯이 하나님을 본 피조물은 살수가 없다. 따라서 천사이든 귀신이든 사람이든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가 없고 다만 반사된 빛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만 볼 수 있고, 굴절된 빛을 통해서 봄볕처럼 따스하게 느낄 수 있는데 이것을 계시라고 말한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볼 수 있게 하는 가장 확실한 계시이며 반사의 빛이다. 성경은 하나님을 보좌에 앉아 계신 분으로 또 예수를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이 보석으로 장식되고 높은 곳에 설치된 대리석 의자에 앉아 계신 분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는 다만 하나님의 권세와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이 의자에 앉아 계실 만큼 작은 분도 아니고 형체를 가진 분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좌에 앉아 계신 모습을 보여 주심으로써 당신의 권세와 위엄과 영광을 알게 하신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사되는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가를 보고 배우고 느낄 수 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



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은혜주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깨달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

또 성령은 우리 안에서 봄벌처럼 따스하게 내재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하시는 굴절의 빛이시다. 성령은 성령을 '호흡,' '생수,' '비둘기,' '불꽃,' '기름,' '도장,' '보증금' 등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성령이 호흡이거나 생수이거나 비둘기이거나 불꽃이거나 기름이거나 도장이거나 보증금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 이들 표현은 단지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오아시스의 물이 갈증을 풀어주듯이 삶의 답답증을 풀어주며, 온유하며, 타오르는 불꽃처럼 정열과 온기를 느끼게 하며, 기름처럼 윤기 나게 하며, 계약서에 도장 찍고 보증금 주어 약정을 맺듯이 신자의 구원을 확실하게 보증한다는 뜻일 뿐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영으로써 영존 하시면서 아들과 영과 함께 혼연일체를 이루신다.

물은 액체로서 변화가 무상하다. 물은 샘물이 되기도 하고, 강물이 되기도 하고, 바닷물이 되기도 한다. 구름이 되기도 하고, 비가 되기도 하고, 서리가 되기도 하고, 안개가 되기도 하고, 수증기가 되기도 한다. 또 물은 유연해서 어떤 형태의 그릇에도 잘 적응한다. 또 물은 동식물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귀중한 자원이다. 더러운 것을 씻어내고 마시며 농사짓고 공장 돌리는데 필수적이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은 물처럼 변화무상하시며 제 각기 다른 신자의 마음속에 거주하신다. 물처럼 하나님도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생명의 근원이시다.

물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두 개의 수소 분자와 한 개의 산소 분자로 구성되어 있다. 수소는 주기율표 1주기 제1번에 속하는 원소이다. 수소는 무색 무취의 가장 가벼운 기체로서 존재하며, 경수소와 중수소로 나뉜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물질세계인 이 자연 세계 속에 존재하고 계시지만 보이지 않는다. 물이 두 개의 수소 분자와 한 개의 산소 분자로 구성되어 있듯이 하나님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성령은 산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산소 없이 살 수 없듯이 성령 안에서 살지 않으면 죽은 것이다. 생수 없이 살 수 없듯이 성령 안에서 살지 않으면 죽은 것이다. 호흡이 끊어지면 죽듯이 성령 안에 살지 않으면 죽은 것이다. 기름이 끊어지면 기계가 멈추듯이 성령 안에 살지 않으면 죽은 것이다. 불꽃이 사그라지면 싸늘해지듯이 성령 안에 살지 않으면 죽은 것이다. 불이 꺼지면 암흑이듯이 성령 안에 살지 않으면 죽은 것이다.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며,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다.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생수처럼 삶의 답답증을 풀어주며, 산소처럼 삶의 숨통을 트이게 하며, 기름처럼 톱니바퀴를 돌리며, 불꽃처럼 어둠을 밝히며 따뜻하게 한다.

## 나. 인성을 지닌 인격자 성령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은 인성을 지닌 인격자이시다. 성령은 여호와 증인이나 단일신론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비인격적인 권능이나 에너지가 아니다. 만일에 성령이 이단자들의 주장대로 비인격적인 권능이나 에너지에 불과하다면 성령은 인간에게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다. 인간에게 말씀하실 수도 없고 판단하실 수도 없으며 도와주실 수도 없다.

그러나 성령은 인격자이시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사회성을 가지고 계신다. 생각도 하시고 판단도 하시고 느끼기도 하시고 교제도 하시고 말씀도 하신다. 성령과 인간은 동일하게 인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느낌을 나눌 수 있고, 교제할 수도 있고,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

성령이란 단어가 중성명사로 되어 있어서 인성을 생각하는데 다소 부정적인 요인이 되는 것 같다. 아버지란 말은 그 자체가 인격자로서의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아들이란 말도 역시 '사람의 아들,' '아기 예수' 또는 '목수의 아들'이란 별칭과 함께 예수의 인성을 생각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성령은 비둘기, 기름, 바람, 불, 생수, 도장, 또는 선수금이란 말로 표현되고 있어서 비인격적인 권능이

나 에너지로 생각되기 쉬운 문제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인성을 지닌 인격자이다.

예수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보혜사'에서 '다른'은 '다른 종류'가 아닌 '같은 종류'의 또 하나를 뜻하기 때문에 '다른 보혜사'란 예수와 같은 다른 또 한 분의 인격자를 말한다. 예수는 인격자이다. 그러므로 성령도 인격자이다. 또 '보혜사'란 '다른 사람 곁으로 불러온 사람'을 뜻한다. 누군가를 곁으로 부를 때는 도움을 받자는 데 있고, 초청에 응한 사람은 도움을 주자는 데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혜사는 법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볼 때 변호사에 해당되고, 질병에 관련해서 볼 때 의사에 해당되고, 인생문제에 관련해서 볼 때 상담가에 해당된다. 이들이 인격자들인 것같이 성령도 인격자이다.

예수께서 성령을 '다른 보혜사'라고 하신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뜻을 내포하고 있다.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셨는가? 예수는 의사처럼 병든 자들을 고쳐 주셨고, 귀신들린 자들을 고쳐 주셨고, 변호사처럼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변호하셨고, 상담가처럼 수가성 여인의 인생문제를 상담하셨고, 니고데모의 신앙문제를 상담하셨다. 구조대원처럼 광풍 만난 제자들을 구해 주셨고, 예언자처럼 생명의 말씀을 들려 주셨다. 이와 같이 성령도 의사처럼 육신의 병과 영혼의 병을 고쳐 주시며, 변호사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또 상담가처럼 우리가 연약하여 환난과 고통과 죄와 악의 수렁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새 힘과 새 소망을 주신다. 또 예언자처럼 귀 있는 자들이 마땅히 들어야 할 말씀들을 교회들에게 선포하신다. 또 성령은 안내자처럼 믿는 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와 같이 성령은 우리와 같이 인성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도울 수 있고 우리와 교제할 수 있다. 성령은 우리와 같이 지적인 활동, 감성적인 활동, 그리고 의지적인 활동을 하실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야 한다.

성령은 하나님이시며 인격자이다. 성령은 영원하시며, 전지전능

하시며, 무소부재 하신다. 성령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 곁에 항상 함께 계신다. 성령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신다. 성령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신다. 성령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찾을 때에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신다.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

## 2.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1)[고후 1장 21-22절]

앞에서 우리는 성령의 신성과 인성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성령은 굴절의 빔처럼 우리 안에 따스하게 내재하시며, 산소처럼 우리 영혼에 귀중한 분이시다. 성령은 의사처럼 영혼의 병을 고쳐 주시며, 변호사처럼 억울함을 도우시며, 상담가처럼 연약함을 도우시며, 교사처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제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성령의 사역에 관해서 살펴보겠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포괄적인 사역과 구체적인 사역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성령의 포괄적인 사역은 우리 구원을 보증하시고 실현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통합시키는 일을 말하고, 성령의 구체적인 사역은 죄인의 심령 속에 작용하시는 구원의 사역과 은사로 나타나는 증거적인 사역을 말한다. 여기서는 성령의 포괄적인 사역에 관해서 살펴보고, 다음 글에서 성령의 구체적인 사역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 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는 성령

성령께서 하시는 포괄적인 사역 가운데 첫 번째로 중요한 사역은 우리 구원을 보증하시는 일이다. 고린도후서 1장 21-22절은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 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고 적고 있다. 이 말씀은 성령의 활동에

관한 네 가지 중요한 문구로 되어 있다. 이들 문구들을 차례대로 살펴해보겠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셨다'는 말씀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화목제물 삼으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원수 된 관계에서 화목 된 관계로 바꾸시고 그 관계를 견고케 하셨다는 뜻이다. 여기서 화목제물 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화친을 위해서 준비하신 조공 또는 선물을 뜻한다. 선물이 원래 제사상에 올린 음식을 뜻했듯이, 화목제물은 허물 많은 인간이 진노한 신에게 바치는 뇌물이며, 조공이란 원래 힘이 약한 나라가 힘센 나라에 화친을 위해 바치는 선물이듯이 화목제물은 떡값이나 촛지와 같이 뇌물의 성격을 지닌 것이다. 또 국가사이에 맺은 화친을 강제하기 위해서 힘이 약한 나라는 힘센 나라에 왕자를 볼모로 잡히거나 공주를 시집보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바쳐야 할 것인데 오히려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로 화목제물을 삼으시고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와 화친을 맺으셨고, 또한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이 화친을 견고케 하셨던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화친은 우리 약하고 허물 많은 인간들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시며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솔선해서 자기 외아들을 희생시켜 맺은 화친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인간과 인간 또는 국가와 국가 사이에 맺은 화친보다도 견고한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로 화목제물을 삼으셨을 뿐 아니라, 이제 그 아들을 외아들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사 췌값으로 죽어야 마땅할 우리를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롬 8:29; 히 1:6).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이 화친을 더욱 견고케 하셨다.

둘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말씀이다. 이 말씀은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뽑으셨다는 뜻이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은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를 뽑을 경우 선지자가 그들의 머리 위에 올리브기름을 부어 임직했다. 예를 들면,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은 머리에 기름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으며(삼상 10:1; 16:12; 왕상 1:45), 사독은 기름부음을 받고 제사장이 되었고(대상

29:22), 엘리사는 기름부음을 받고 선지자가 되었다(왕상 19:16).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뽑으시고 그 사실을 성령으로 도장 찍으셨다는 뜻이다. 성경에서 기름부음을 받은 자들이 모두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것을 본다. 한 예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 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와 그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는 말씀이 있다. 셋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사실을 성령으로 보증하셨다는 뜻이다. 신약시대에는 침례가 기름부음의 상징이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말은 우리가 침례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성령으로 보증하셨다는 뜻이다.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시고 물위로 올라오셨을 때에 "이내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하늘로부터 있었고, 이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재 하셨다. 또 사도행전 19장 5-6절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12명의 초신자에게 침례를 베풀고 안수하였을 때에 성령의 임재와 은사를 체험하고 있다. 이런 전통 속에서 교회는 침례 직후에 기름을 찍어 이마에 바르며 십자가를 그어주고 안수하였다. 이를 교회는 견신례 또는 견진례라 부른다.

셋째, '하나님이 우리를 인 치셨다'는 말씀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외아들 예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와 화친하시고 그 계약서에 성령으로 도장 찍으셨다는 뜻이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하였고,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다. 1장 13절의 '약속의 성령'에서 '약속'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구원의 약정서를 말하고, '성령'은 그 약정서에 찍힌 인감을 뜻한다.

넷째, '하나님이 이 일의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는 말씀이다. '보증'이란 말을 헬라어로 '아라본'(arrabon/ἄραβων)이라고 한다. 이 말은 파피루스에 보존되어 있는 사업계약서에 등장하는 말로써 그 의미는 '계약금' 또는 '선금'을 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의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외 아들 예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약정금으로 주셨다는 뜻이다. 이는 우리 구원이 견고하다는 것을 뜻한다. 고린도후서 5장 5절에서 바울은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여 말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 하시는 포괄적인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은 우리 구원을 보증하는 일이다. 성령은 우리 구원의 보증을 예수의 재림 때까지 계속하신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는 이미 끝난 사역이 있는가하면 아직도 끝나지 아니한 사역이 있다. 이미 끝난 사역은 아들 예수를 통해서 완성시킨 구원사역을 말하며, 아직 끝나지 아니한 사역은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시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말한다. 신약성경으로 볼 때, 복음서는 하나님의 완성된 구원사역을 설명하는 책이고,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계속적인 구원사역을 설명하는 책이다. 따라서 교회시대인 현시대는 성령이 활동하는 시대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지속되고 있는 시대이다. 이 지속적인 성령의 구원사역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우리 구원을 예수의 재림 때까지 보증하는 일이다.

#### 나. 현 시대를 독특한 시대로 만드시는 성령

성령께서 하시는 포괄적인 사역 가운데 두 번째로 중요한 사역은 이 시대를 매우 독특한 시대로 만드는 일이다. 성령은 우리 구원을 보증하시는 불모가 되시며, 구원계약서에 찍힌 인감이 되시며, 계약 후에 주는 계약금이 되실 뿐 아니라, 우리 구원을 누리게 하시고 맛보게 하신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불모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계약금을 바쳐야 할 터인데,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거저 주시게 하기 위해서 외아들을 희생시키셨고, 성령까지 선물로 주시면서 당신의 약속을 확증 하셨다. 이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성령은 우리 구원을 보증하는 불모가 되시며, 구원계약서에 찍힌 인

감이 되시며, 계약 후에 주는 계약금이 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맛보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는 이 시대는 매우 독특한 시대가 되는 것이다.

주후 30년 오순절 날 하나님은 성자 예수 대신에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고 성령이 활동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 주셨다. 비록 이 시대는 어둡고 혼란스럽지만, 성령은 믿음의 사람에게 밝고 안정된 미래를 열어 주신다. 비록 이 시대는 절망적이고 불확실하지만, 성령은 믿음의 사람에게 오고 있는 희망의 시대를 열어 주신다. 비록 이 시대는 악하고 고통스럽지만 성령은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당겨다 주신다. 성령은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당겨다 주실 뿐 아니라, 성령은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고 가신다. 성령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체결된 구원계약서의 도장 찍음이 되시며, 보증금이 되실 뿐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은 이 시대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임마누엘 시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미리 경험하는 은혜시대로, 하나님의 선민이 되게 하는 교회시대로 만드는 능력이시다.

#### 다. 그리스도인들을 한 몸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시키시는 성령

성령께서 하시는 포괄적인 사역 가운데 세 번째로 중요한 사역은 그리스도인들을 한 몸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시키시는 일이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고 적고 있다. 이 말씀은 성령의 활동에 관해서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첫째,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는 말씀은 성령께서 계층간의 차별을 없애 주신다는 뜻이다. 신분이 높고 낮은 사람, 돈이 많고 적은 사람, 잘나고 못난 사람, 희고 검은 사람, 강하고 약한 사람, 남자나 여자와 같이 우리 각기 다른 사람들을 성령은 한 몸 그리스도의 공



동체로 녹아들게 하는 용광로이다.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에도 차별이 없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젊은이나 주인이나 머슴이나 백인이나 흑인이나 차별이 없다. 로마서 3장 22절과 10장 12절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했으며,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선언했다.

둘째,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는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같은 성령의 역사로 예수 믿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침례 받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편입되었다는 뜻이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 공동체 즉 신약시대의 선민 공동체인 교회를 말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인들은 이 몸의 지체들이다. 성령은 이 지체들을 평안의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다(엡 4:3). 성령은 이 계약 공동체의 구원을 도장 찍어 보증하시고 실현시키신다. 성령은 이 지체들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며, 피차 형제자매 되게 하신다.

### 3.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2)[로마서 8장 28-30절]

앞에서 우리는 신자의 구원을 보증하시고 실현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통합시키시는 성령의 포괄적인 사역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성령께서 죄인의 심령 속에 작용하시는 구원의 사역과 은사로 나타나는 증거적인 사역에 관해서 살펴보겠다.

#### 가. 성령의 구원사역

먼저 성령께서 하시는 구원의 사역에 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성령께서 하시는 구원의 사역은 회심 이전, 회심 중, 회심 이후의 사역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회심 이전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미

리 뽑으신 자들을 부르시는 인도자의 일이고, 회심 중의 사역은 부름에 응한 자들을 치유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의사의 일이고, 회심 이후의 사역은 거듭난 자들을 돌보시는 보혜사의 일이다.

바울은 로마서 28-30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 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일, '부르신' 일, '의롭다 하신' 일, '영화롭게 하신' 일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미리 정하신' 일과 '의롭다 하신' 일은 성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부르신' 일과 '영화롭게 하신' 일은 성령께서 행하신 일이다. 그리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이 모든 일의 근거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인해서 예수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자로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우리를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이 일에 성령께서 깊이 관여하셨고 주도적으로 일하셨다.

#### (1) 뽑으신 자들을 부르시는 인도자 사역

성령께서 하시는 첫 번째 구원사역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여 뽑으신 자들을 부르시는 인도자의 일이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 진리의 성령께서 하나님이 미리 정하여 뽑으신 자들을 부르신다. 진리의 성령께서 하나님이 미리 정하여 뽑으신 자들을 가르치신다. 진리의 성령께서 하나님이 미리 정하여 뽑으신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 하신다(요 15:26). 진리의 성령께서 하나님이 미리 정하여 뽑으신 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요 16:13). 성령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뽑으신 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증거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전 12:3). 이 일이 성령께서 하시는 회심 이전의 구원사역이다.

## (2) 인간을 치유하시는 의사 사역

성령께서 하시는 두 번째 구원사역은 죄로 인해서 중병에 걸린 인간을 치유하시며 살리시는 의사의 일이다. 성령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의 영이시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의 영이 우리 죽을 몸을 살리신다(롬 8:11). 이 일이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나님의 역할과 성령의 역할을 구분 지어 말할 때에 흔히 하나님을 재판장에, 그리고 성령을 의사에 비교한다.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인간의 법적 문제와 관련해서 믿는 자에게 무죄를 선포하신다. 이를 우리는 칭의라고 부른다. 그리고 의사이신 성령은 인간의 본질 문제와 관련해서 병들고 썩은 곳을 도려내고 수술하신다. 이를 우리는 성화라고 부른다. 하나님의 칭의 하심은 믿는 자의 죄 문제를 일시적이고 순간적이며 영구적으로 해결해 버린다. 성령의 성화는 죽음에 이르게 하던 죄인의 병을 수술로 치유하신다. 이를 우리는 중생 또는 거듭남이라고 부른다. 중생 또는 거듭남의 사역이 바로 성령께서 죄인 가운데서 행하시는 회심 중의 사역이다.

회심 중의 성령의 사역에 관해서 디도서 3장 5-7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고린도전서 6장 11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말씀하신다. 이 두 곳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중생의 씻음'과 '거룩함'과 '새롭게 하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우리가 받은 구원이 매우 특별한 분들의 집중적인 관심과 특별한 대접으로 이

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죄의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을 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 주셨고, 무죄를 선언해 주셨고, 물로 씻고 수술해서 거듭나게 하여 주셨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관해서 말할 때에 믿음을 강조한다. 그러나 믿음과 구원의 관계를 분명히 알지 못한다. 믿음은 구원의 수단이지 능력은 아니다. 구원의 능력은 오직 성령이시다.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를 편두통이라고 생각해 보자. 편두통은 의사에게 찾아가 진찰을 받고 처방을 받으면 치유될 수 있다. 이 사실을 믿고 어떤 환자가 의사를 찾아가 치료를 받았다. 의사가 처방한 대로 시간에 맞춰서 약을 복용했다. 그러자 편두통이 사라지고 말았다. 여기서 환자가 의사를 찾아가간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 그러나 병이 치료된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의사가 처방한 약 때문이었다. 환자에게 믿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의사가 처방한대로 물과 함께 약을 먹지 않았다면 그의 편두통은 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여기서 의사는 성령을 말하고, 물은 침례를 말하며, 약은 성령의 치유 능력을 말한다. 이와 같이 죄로 병든 인간을 구원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성령의 활동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죄로 병든 인간을 치유하며 살리는 일이다.

### (3) 거듭난 자들을 돌보시는 보혜사 사역

성령께서 하시는 세 번째 구원사역은 거듭난 자들을 돌보는 보혜사의 일이다. 이 일이 성령께서 하시는 회심 이후의 구원사역이다. 성령은 우리 영혼의 주치의(主治醫)이시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는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과 "우리로 저(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디도서 3장 7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사역은 우리를 죄의 병으로부터 살려내는데서 끝나지 않는다. 성령은 죄의 병으로부터 살려낸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이 과정을 우리는 점진성화라고 부른다. 이 점진성화의 과정은 마치

죽을병을 수술로 고친 의사가 환자가 완치될 때까지 계속해서 돌보듯 성령께서 거듭난 자들을 천국 문에 이를 때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돌보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맥락에서 성령은 우리 모든 신자들의 주치의(family doctor)이다.

성령은 우리 영혼의 변호사이시다. 검사에 해당되는 고소자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쉬임없이 우리를 변호하신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 하신다" 는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는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처럼, 회심 이후의 성령의 사역은 변호사처럼 우리를 사탄의 고소로부터 보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일이다(롬 8:27).

#### 나. 성령의 증거적인 사역

두 번째로 성령께서 하시는 증거적인 사역에 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령의 개인적이며, 내적이며, 보편적이며, 항구적인 구원의 사역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이제 성령의 공적이며, 증거적이며, 제한적이며, 도구적인 사역에 관해서 살펴보겠다.

성령의 증거적인 사역에 관해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란 매우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다.

사도행전 2장 22절: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 하셨느니라.

로마서 15장 18절: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 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고린도후서 12장 12절: 사도의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히브리서 2장 4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의 나눠주신 것으로써 저희와 함께 증거 하

셨느니라.

이들 성구들에서, 첫째, '권능'(power/δυνάμεις)은 기적의 근원 즉 성령의 역사인 큰 능력 행함을 말한다. 둘째, '기사'(wonders/τέρατα)는 기적의 결과 즉 성령으로 나타난 큰 능력을 본 사람들의 마음에 일어나는 결과들, 예를 들면, 놀람, 경악, 기이함 등을 말한다. 셋째, '표적'(signs/σημεία)은 기적의 목적 즉 성령의 큰 능력 행함으로 얻어진 확증 또는 입증을 의미한다. 성령의 큰 능력 행함은 바로 이 표적을 위한 것이다.

성령의 큰 능력 행함은 예언자가 전한 하나님의 뜻의 진실성을 입증, 증거, 또는 확증하는 표적이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언자와 전해지는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성경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면, 첫째, 모세의 기적은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위한 표적들이었고, 엘리야의 기적은 야훼가 참 하나님이심을 입증하는 표적이었다(왕상 17:24). 둘째, 예수께서 행하신 능력들은 그가 그리스도이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는 표적이었다(행 2:22). 셋째, 사도들의 방언과 능력 행함은 교회 창립과 신약성경의 완성을 위한 표적이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의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는 말씀과 고린도전서 12장 7절의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처럼 성령의 은사는 공적이며, 증거적이며, 제한적이며, 도구적이며, 봉사를 위한 선물 즉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선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나타나는 큰 권능 행함을 일컬어 증거적인 사역이라고 말한다.

성령의 증거적인 사역들 가운데 교회 창립과 관련해서 나타난 가장 대표적인 기적이 바로 주후 30년 오순절 아침 9시경에 성전에서 있었던 제자들의 방언 사건이다. 오순절 아침 9시란 시간은 오순절 사건을 바로 이해하는 바로미터(barometer)와 같은 것이다. 오순절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삼대 명절 중의 하나였고, 성전은 전국에 단 한 곳 예루살렘에만 있었기 때문에 유월절이나 오순절과 같은 명절에 성지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경건한 유대인들의 간절한 희망사항이었다. 따라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국내에 거주하

는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외국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개종한 이방인들까지도 예루살렘을 찾아오는 매우 혼잡스런 날이다. 더욱이 아침 9시는 모든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다. 유대인들은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정한 시간에 기도를 드린다. 따라서 오순절 아침 9시 기도시간에 성전 영내는 몰려든 사람들로 무척 비좁았을 것이다. 바로 이 장소에 성령께서 일찍이 배운 일도 없고 남 보기도 시골티가 풍겨나는 제자들에게 세계 여러 나라의 말로 유창하게 말하게 하자 이를 보고 놀란 사람들이 제자들을 에워쌌고 베드로는 이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전파할 수 있었던 것이다. 배우지 아니한 외국어로 말하는 큰 권능을 보고 베드로의 설교를 믿지 않을 수 없었던 사람들의 수가 삼천 명이나 되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증거적인 사역이다.

이렇게 성령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안내자로서 의사로서 변호사로서 도우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기적과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신다.

#### 4. 성령은 어떻게 받는가? [갈라디아서 3장 1-5절]

우리는 그 동안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세 번에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성령세례란 무엇이며 어떻게 받는가'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성령세례가 무엇인가에 관한 견해는 사람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구원사역과 관련해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즉 성령의 동거와 내주를 '성령세례' 또는 '성령으로의 세례'라고 말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성령의 증거적 사역과 관련해서 성령의 은사들 체험을 '성령세례' 또는 '성령충만'이라고 말한다. 어휘가 어떻게 사용되든 지간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를 통해서 세상 끝날 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성령이 주후 30년 오순절 날 이 세상에 임하셨고, 또 이 성령께서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신령한 은사들(고전 12:11)이 있다는 점이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들이 있는데,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단수로 '선물'(δωρεά)이고, 신령한 은사들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수로 '선물들'(χαρίσματα)이란 점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주후 30년 오순절 날에 이 세상에 임하신 임마누엘 성령 즉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성령을 성령세례라 부르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성령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신령한 은사들을 성령세례라 부르고 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행 1:4) 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란 무엇을 말한 것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임마누엘 성령을 말한 것일까, 아니면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들로 주시는 은사들일까?

이쯤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은 세 가지이다. 첫째,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들로 주시는 신령한 은사들은 하나님이신 성령이 아니라 성령께서 증거를 위해 행하시는 비인격인 권능이란 점이다. 둘째, 비인격인 성령의 권능은 구약시대에도 있었고, 오순절 이전 예수에게도 있었고, 제자들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셋째, 구약과 신약시대를 구별 짓고, 이 시대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임마누엘 시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미리 경험하는 은혜시대로, 하나님의 선민이 되게 하는 교회 시대로 만드는 것은 비인격인 성령의 권능이나 은사들이 아니라, 권능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은사들을 선물들로 주시는 인격자이신 성령이시라는 점이다.

먼 옛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 머물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다가 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받아 성전이 육보이고 파괴된 이후,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기 때문에(사 66:1)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신다"(행 7:48)고 믿었다. 그리고 이 당시에



활동했던 에스겔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겔 36:27) 고 예언했다.

이런 맥락에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성령이 선물들로 주시는 은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인격자이신 성령이시며, 그 분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물로 임하실 때를 일컬어 성령세례라고 말하는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성령에 의해서 은사들로 세례를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인격인 성령의 은사들을 모신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성전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을 모신 우리는 모두가 신내림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인격자이신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 근원과 수단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 가.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과 함께 값없이 주어지는 성령으로의 세례

성령으로의 세례는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과 함께 값없이 주어진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세례도 사도행전 2장 38절과 갈라디아서 3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의 '믿음으로' 주어진다고 되어 있다. 이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를 근원으로, 우리의 믿음을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같이 성령세례도 하나님의 은혜를 근원으로, 우리의 믿음을 수단으로 값없이 선물로 이루어진 것이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죄로 인해서 중병에 걸린 인간을 치유하시고 살리시는 일이다. 따라서 성령이 빠진 구원은 상상할 수도 없다. 우리에게 구원을 시작하시고 또 이루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성령은 어떨까? 행위로 얻는 것일까? 은혜의 선물일까? 우리에게 구원을 시작하시고 또 이루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면, 구원을 먼저 받고 성령을 나중에 받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성령은 여러 곳에서 성령으로의 세례를 선물로 언급하고 있고, 어떤 일의 보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선물은 성격상 아무 공로 없이 거저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세례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는다는 것을 다음의 성구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요한복음 7장 38-39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사도행전 11장 16절: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니라.

우리는 이들 성구들에서 특별히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말씀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가운데서 사도행전 2장 38절은 믿고 침례를 받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 말씀의 뜻을 주의 깊게 살펴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첫째, 신령한 '은사들'은 헬라어로 '카리스마타'(χαρίσματα)라는 복수로 쓰이는 데 반해서, 여기에 사용된 '선물'은 헬라어로 '도레아'(δωρεά)라는 단수로 쓰였기 때문이다. 둘째, 성령은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은사들은 때때로 불신자들에게도 일시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이다. 셋째, '성령을 선물로'는 모든 기독교인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약속이지만, 은사들은 일부 성도에게 제한될 뿐 아니라 주어지는 은사들의 종류도 받는 사람 따라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넷째, 교회를 세상과 구별 짓는 담

은 성령이 선물로 주시는 은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성령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교회와 성도는 성령의 은사들이 거주하는 성전이 아니라, 임마누엘 성령이 거주하는 성전이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성령은 구원과 함께 선물로 주어진다. 성령세례를 고행스런 기도와 헌금 또는 믿음이외의 것으로 받으려고 하는 것은 이미 받은바 성령을 깨닫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가 자전과 공전을 거듭하는 지구에 살면서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듯이 성령을 모시고 살면서도 성령의 뜻에 따라 살지 못하고, 성령을 모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신앙인들이 참으로 많다. 구원과 함께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는 이 귀한 사실이 각박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값진 복음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증거적인 사역을 위해서 필요에 따라 신령한 은사들을 나누어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고, 14장 1절에서는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고 했다.

#### 나. 믿음으로 구원과 함께 주어지는 성령으로의 세례

성령으로의 세례는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과 함께 주어진다. 신약 성경이 27권이나 되고, 사도행전에 실린 설교가 24개나 되지만, '성령을 받으라' 또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권유한 설교가 없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이미 성령을 소유한 자라는 전제하에서 모든 말씀들이 기록되어있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엡 5:18), "성령을 좇아 행하라"(갈 5:16, 25), "성령을 소멸치 말라"(살전 5:19),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엡 4:30)는 말씀들로 되어 있다. 단 한 곳 요한복음 20장 21-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열 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는 파송의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성령을 받도록 노력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취임식(離就任式) 때의 이임사(離任辭)와 같은 것으로써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을 대물림한 것과 같이(왕하 2:9), 예수께서 승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성령의 영감을 대물림하여 사도직을 수행케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3장 2-5절은 분명하게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나, 듣고 믿음으로나?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 . .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나, 듣고 믿음에서나?

이와 같이 짓값으로 사형을 받아 마땅한 우리 대신에 외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은혜로 무죄를 선언해 주신 하나님께서 죄의 병으로 죽음에 이른 우리에게 성령까지 선물로 주시고 그로 하여금 우리를 살리게 하셨다. 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다 은혜의 선물이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은혜의 선물로 화목제물로 삼으셨고, 은혜의 선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으며, 이를 보증하고 확증하기 위해서 성령까지 선물로 주셨다. 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 5. 성령은 언제 받는가?[사도행전 2장 38절]

우리는 그 동안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리고 '성령세례란 무엇이며 어떻게 받는가'를 네 번에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성령세례는 언제 왜 받는가'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인간의 구원은 믿음이나 침례 때문에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삼위 하나님의 협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아들 예수의 대속의 죽음을 공덕으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와 하나님

의 아들로 믿는 자들을 무죄로 선언해 주신다. 이 때 의사이신 성령께서 범죄와 타락으로 죽어가던 우리를 씻기시고 치유하시고 살리신다. 이를 거듭남, 중생, 또는 초기 성화라고 부른다. 우리를 죽음의 위기에서 살리신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진찰하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신다. 이를 점진성화라 부른다. 한 마디로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구원을 시작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면서 변호하시고 상담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보증하시면서 구원을 완성하신다.

이렇게 성령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구원을 책임지고 일하시기 때문에 성령과 구원은 결코 무관하지 않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성령 받지 못했다고 할 수 없고,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구원받지 못했다고 할 수 없다. 구원을 받았으면 성령을 받은 것이고, 성령을 받았으면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렇다면, 성령세례는 언제 이루어지는 것일까? 구원받고 난 후에 이루어지는 것일까? 믿음을 갖자마자 이루어지는 것일까? 아니면, 침례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일까?

### 가. 침례의 때에 구원과 함께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성령으로의 세례

성령세례는 구원과 함께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다. 로마서 8장 29-30절에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씀처럼,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믿음과 침례 이전에 이미 결정된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씻고 거룩하게 하는 일은 성령께서 하신다.

그런데 성경에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와 '믿음으로 성

령을 받는다'(갈 3:2,5)는 말씀들이 있다. 이 말씀들에 근거해서 믿음을 갖는 순간 의롭다 하심을 받고 성령세례를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또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고,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행 8:16)는 말씀에 근거해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방언과 같은 은사를 체험하게 될 때 성령세례를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또 '침례를 받기 전에 이미 성령세례를 받았다'(행 10:47)는 사도행전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세례와 구원은 일치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와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는 말씀은 구원과 성령세례를 받는 수단이나 통로를 의미하는 것이지, 구원과 성령세례를 받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시간의 문제는 수단의 문제와 별도로 생각되어야 한다. 그리고 성령세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며, 방언과 같은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성령세례와 은사는 구별되어야 한다. 성령세례 없이도 방언 할 수 있고, 성령세례 받고도 방언하지 않을 수 있다. 구원받지 않고도 방언 할 수 있고, 구원받고도 방언하지 않을 수 있다. 성령세례와 방언이 반드시 일치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구원과 성령세례는 반드시 일치된다. 구원이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령세례 없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

사도행전은 초대 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누가는 하나님의 성령세례를 성령의 은사와 크게 구별 없이 겉으로 드러난 사건만을 보도하고 있고, 성령세례의 신학적인 의미를 설명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성령세례를 방언이나 신유와 같은 성령의 은사로 오해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성령세례의 신학적인 의미는 바울 서신에서 발견된다. 바울 서신들은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을 담고 있다. 누가가 쓴 사도행전이 사건을 보도한 역사책이라면, 바울이 쓴 서신들은 사도행전에 실린 사건들을 해석한 신학적인 글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 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고, 바울 서신을 통해서 그 사건들이 갖는 신학적인 의미를 알 수 있다. 따라서 성령을 통한 교회시대가 시작된 시점을 알려면 사도행전을 읽어야 하지만, 성령

세례는 누가 언제 어떻게 왜 받는지를 알려면 바울 서신을 읽어야 한다.

바울 서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구원과 성령세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이 선물은 만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이루어지고 선물이 주어지는 정확한 시간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간의 응답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성령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간의 응답에도 깊이 간여하신다. 그러나 이 간여의 때를 일컬어 구원과 성령이 주어진 때라고 보지는 않는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응답은 믿음과 회개와 신앙고백과 침례로 나타난다. 믿음은 복음의 씨가 발아된 것이고, 회개와 신앙고백은 발아된 싹이 자란 것이고, 침례는 자란 싹이 결실을 낸 것이다. 복음은 씨앗이고, 믿음은 싹이고, 침례는 결실이다. 믿음은 사랑의 싹이고, 회개와 신앙고백은 사랑의 고백이고, 침례는 혼례식이다. 죄인에게 싹튼 믿음의 씨앗이 자라 중생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예수의 사랑을 받아드려 애정을 고백하고 신앙으로 맞이하겠다고 결단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시다. 그러나 성령은 혼례식을 약정하고 보증하기 위해서 신부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혼례식 이전의 성령의 활동과 혼례식 이후의 성령의 활동을 구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자는 죄인이 아니라, 거듭난 자이다.

옛날 어떤 나라에 왕이 한 분 계셨다. 왕에게 아주 훌륭한 젊은 왕자가 있었다. 어느 날 왕자는 공원을 산책하다가 병들어 고생하는 아가씨를 만나게 되었고 연민의 정을 느꼈고 도와주고 싶었다. 그래서 왕의 주치의(主治醫)를 보내어 가난과 병으로 고생하는 그 아가씨를 돕도록 하였다. 의사는 병든 아가씨를 치료만 하지 않고 왕자와 아가씨 사이를 부지런히 오고 가며 징검다리를 놓았고 둘 사이에 사랑이 무르익어 혼인을 결정하게 되었다. 왕은 이 사실을 알고 혼쾌히 혼인을 허락하였고 의사로 하여금 만반의 준비를 갖추도록 하였다. 왕은 외아들의 혼인식을 성대하게 치러 주었고 결혼 선물로 신부에게 그들을 도왔던 의사를 하사했다. 그 때부터 의사는 신부의

건강 체크는 물론 모든 일을 도와 왕자와 행복하게 살도록 배려를 했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꾸며낸 것이지만, 의사가 혼인 전에 왕자와 아가씨 사이를 오가며 다리를 놓은 일과 혼인 후 신부의 결혼 선물로써 신부를 돕는 일이 다르듯이, 성령께서 회심이전과 회심 중과 회심이후에 하시는 일과 성격이 다르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는 에베소서 2장 8-10절 말씀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골로새서 2장 11-13절의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침례 가운데서,' '선한 일을 위하여' 이루어진다고 가르친다. 이와 마찬가지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는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과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나 듣고 믿음에서나."는 갈라디아서 3장 2-5절의 말씀도 성령 세례가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의 '믿음으로,' '침례 가운데서,' '성화'를 위해서 주어진다고 가르친다. 이로 보건대, 구원의 바탕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요, 수단은 믿음이요, 시간은 침례요, 목적은 선행이다. 성령세례 또한 그 바탕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요, 수단이 믿음이요, 시간이 침례요, 목적이 성화이다.

성령세례는 침례의 때에 구원과 함께 주어진다. 요한복음 3장 5절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 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고, 에베소서 4장 5절은 세례는 하나라고 말하고 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우리가 . . .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고 적고 있다. 여기서 한 몸이란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말한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자격은 침례 받은 자이다. 그런데 바울은 이



침례 받은 자를 일컬어 "한 성령으로 세례 받은 자 또 한 성령을 마신 자"라고 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침례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중생의 씻음과 새롭게 하심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디도서 3장 5절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고 증언하고 있다.

### **나. 거룩한 삶과 성화의 삶을 목적으로 구원과 함께 주어지는 성령으로의 세례**

성령세례는 거룩한 삶과 성화의 삶을 목적으로 구원과 함께 주어진다. 앞서서도 설명한바와 같이 성경은 구원의 목적을 선한 일에 두고 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고 하였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은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하였다. 그밖에도 마태복음 5장 9절은 화평케 하는 자의 받을 복을 언급하였고, 로마서에서 바울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롬 14:19)을 말씀하셨고, 우리의 지체를 순종의 종(롬 6:18), 하나님께 종(롬 6:22), 의에게 종으로 드러 거룩함에 이르라(롬 6:19)고 하셨으며,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엡 4:24)고 권면 하셨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다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가시는 일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다 주시는 일을 '의롭다 하심,' '칭의' 또는 '현재구원'이라고 부르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가시는 일을 '성화' 또는 '미래구원'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다 주시는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가시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여 가게 하시는 목적은 우리 인간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일을 성

령께서 도와서 이루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살며, 화평의 일을 하며, 덕을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고 갈라디아서 5장 22-26절에서 말씀하셨다.

기독교 구원의 특징은 임마누엘에 있다. 따라서 구원받는 자의 특징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이 시점을 믿음의 때로 보든지 또는 침례의 때로 보든지 간에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것은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것이다.

## 6.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가? [에베소서 5장 18-21절]

우리는 그 동안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리고 '성령세례란 무엇이며 어떻게 받는가,' '성령세례는 언제 왜 받는가'를 다섯 번에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성령 충만'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 가. 신앙성숙과 다른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신앙 성숙하고 다르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값없이 구원과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 점에 있어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별, 연령, 신분, 빈부, 열심에 관계없이 공평하다. 그러나 성령 충만이나 성결이나 신앙 성숙의 성취 정도는 사람마다 제 각기 다르다. 또 성령 충만은 성령세례하고도 다르고, 신앙 성숙하고도 다르다.

바울 서신을 보면,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엡 4:13) 이른 사람이 있는가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고전 3:1; 엡 4:14)와 같은 사람도 있고, "영에 속한 사람"(고전 2:15; 3:1)이 있는가하면, "육에 속한 사람"(고전 2:14; 3:3)이 있고, "주께 합당이"(골 1:10)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사람을 따라"(고전 3:3) 행하는 사람도 있다.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이른 사람,' '영에 속한 사람,' 그리고 '주께 합당히 행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기보다는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 '육에 속한 사람,' 그리고 '사람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기보다는 신앙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을 말한다.

신약성경을 보면, 빌립보교회가 신앙적으로 성숙한 교회였고, 고린도교회가 미성숙한 교회였던 것을 알 수 있다. 빌립보서 1장 3-5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고 칭찬한 반면,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오."라고 책망하고 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영에 속한 자'도 있고, '육신에 속한 자'도 있고, '젖을 먹는 사람'도 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란 사람'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써 얼마나 성장했느냐가 곧바로 성령 충만의 정도를 결정짓는 것은 아니다.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경우가 적지 않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다. 신앙 성숙은 오래 믿을수록 성경을 많이 배울수록 점진적으로 자라 갈 수 있지만, 성령 충만은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적지 않

다. 그 이유는, 첫째, 성숙이 점진적인데 비해서 충만은 일시적이기 때문이다. 둘째, 성숙은 성장과 일치하고, 충만은 건강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어린아이는 미성숙할지라도 건강할 수 있고, 노인은 성숙할지라도 병약할 수 있듯이, 동일한 은혜로 값없이 구원과 성령으로 세례 받고 선민이 된 사람들 가운데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신앙은 미성숙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고, 어른과 같이 신앙은 성숙하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 신앙 연륜이 짧은 사람이 긴 사람보다, 성경 지식이 짧은 사람이 많은 사람보다, 많이 배운 사람보다 덜 배운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보다 어린 사람이, 높은 직급의 사람보다 낮은 직급의 사람이 더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를 판가름하는 잣대가 아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를 판가름하는 저울이 아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은사를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를 판가름하는 시험대가 아니다. 성령 충만은 큰 권능의 은사를 받았느냐 하찮은 은사를 받았느냐를 판가름하는 척도가 아니다. 성령의 은사를 더 많이 받았거나 더 유용한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성령이 충만한 것이 아니다. 예수의 달란트 비유 가운데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두 달란트 받은 사람,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의 차이는 은사의 차이이지 충만의 차이는 아니다. 은사의 크기가 충만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성령 충만의 정도는 성령과 얼마큼의 친분을 갖고 있느냐, 성령과 얼마나 자주 교제하며, 순종하며, 기쁘시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꽃꽂이용 스펀지가 물을 충분히 머금고 있는가의 문제는 스펀지의 모양과 크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듯이, 성령 충만도 은사의 크기나 종류에 있지 아니하며, 성경 지식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며,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 결정되지 아니하고, 얼마나 자주 성령의 음성에 귀기울이며 순종하는가에 달려 있다. 모닥불이 충분히 잘 타고 있는가의 문제는 불을 지피는 나무의 종류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듯이, 성령 충만도 사람의 배움이나 소유나 신앙 연륜에 따라 결정되지 아니하고, 얼마큼 성령의 뜻을 따라 사는가에 달려 있다. 컴퓨터를 얼마나 잘 다루는가의 문제는 컴퓨터의 종류나 기종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듯이, 성령 충만도 사람의 능력이나 지능에 따라 결정되지 아니하고, 성령을 얼마큼 깊이 알고 사귀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이와 같이 성별, 연령, 신분, 빈부, 열심에 관계없이 어떤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언하며'(눅 1:67), '성령에게 이끌리며'(눅 4:1),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며'(행 2:4),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행 4:31), '칭찬을 들으며'(행 6:3), '환상'(행 7:55)을 보는가 하면, 한편 다른 사람은 '성령을 소멸하며'(살전 5:19) '성령을 근심하게'(엡 4:30) 한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21절에서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하였던 것이다.

## 나. 성령세례와 다른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성령세례와 다르다. 성령세례와 성령 충만이 몇 가지 다른 이유를 살펴보고자 한다. '세례 받다'(βαπτισθητω)는 말은 계속적인 동작의 뜻이 없다. 그러나 동사 '충만 하라'(πληροῦσθε)는 말은 계속적인 뜻이 담겨 있다.

성령세례는 명령이 아닌 반면, 충만은 명령이다.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성령에 의해서 가득 채워져라'는 뜻이다. 꽃꽂이용 스펀지가 물에 충분히 젖어 있어 꽃의 수명을 연장하듯이, 충전용 배터리가 전력이 충만하여 힘차게 기계를 돌리듯이 성령의 생수와 능력으로 충만 하라는 뜻이다.

성령세례는 경험이 한번으로 끝나지만, 성령 충만은 경험이 반복된다. 출생은 한번뿐이지만, 생일은 반복되는 것처럼, 성령은 구원과 함께 침례의 때에 값없이 은혜의 선물로 받지만, 성령 충만의 체험은 반복된다. 중생의 거듭남은 단 한 번의 경험이지만, 거듭남의 기쁨은 반복해서 경험될 수 있고, 성령세례는 한번으로 지속되지만, 성령 충만은 반복된다. 성령 충만은 마치 온돌방에 불을 넣듯이, 관상

용 화분에 물을 주듯이, 배터리를 충전하듯이 성령 충만의 경험은 언제나 반복된다. 우리가 성령을 다시 받을 필요는 없지만 성령 충만은 반복해서 받아야 한다. 말라비틀어진 스펀지처럼 메마른 영혼이 되면 안 된다. 전력이 소모된 축전지처럼 능력 없는 영혼이 되면 안 된다. 시들어 가는 초목처럼 목마른 영혼이 되면 안 된다. 냉랭한 온돌방처럼 차가운 영혼이 되면 안 된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불을 반복해서 지펴야 한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생수가 반복해서 넘쳐흐르게 해야 한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이 반복해서 힘껏 발휘되게 해야 한다.

#### 다. 성령 충만하기 위한 조건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의 말씀대로 성령을 소멸치 않는 것이다. 우리는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한다. 성령을 소멸하는 것은 방문을 열어 놓아 온기를 빼는 것과 같다. 물 꼭지를 열어 놓아 식수를 흘리는 것과 같다. 자동차의 미등을 켜놓아 배터리를 방전시키는 것과 같다. 우리 가슴에 냉기가 돌게 해서 안 된다. 우리 가슴을 메마르게 해서 안 된다. 우리 자신이 방전된 배터리처럼 힘 없는 인간이 되어서 안 된다. 성령의 불을 지펴 식어진 가슴을 데워야 한다. 메마른 가슴에 성령의 생수를 채워 시원하게 해야 한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전하여 힘차게 살아가야 한다.

두 번째,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약정하시고 성령으로 도장찍어 보증하신다. 이렇게 성령이 우리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30절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신다. 이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역하지 말라는 것이다. 성령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도우시며(롬 8:26),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며(롬 8:27), 우리 구

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결말을 지어 주신다(롬 8:28). 우리가 성령의 이와 같은 일들을 거절할 때, 우리의 구원은 점차 멀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성령은 근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우리는 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모성을 가진 성령에게 효도하고, 우리는 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세 번째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처럼 성령을 좇아 행하는 것이다. 우리는 성령을 좇아 행해야 한다. 갈라디아서 5장 16-23절은 우리가 성령을 좇아 행하면, 성령을 거슬리는 육체의 욕심을 극복할 수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였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같은 육체의 욕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지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한다고 말씀하였다. 사람은 성령의 도움으로 구원의 길에 접어들게 되고,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게 된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라도 구원에 도달할 자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좇아 행해야 한다.

성령세례는 영구적이지만, 성령 충만은 거듭해서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마치 먼 길을 자동차로 여행하는 것과 같다.

## 7. 보혜사 성령[요 14:16-18]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

고 너희에게로 오리라(요 14:16-18).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요 14:26).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로하시며 주신 약속들 가운데 한 가지가 당신의 부재함을 대신할 보혜사를 보내시겠다는 것이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기록한 곳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6-18절과 26절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은 네 가지이다.

### 가. 임재의 하나님 또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성령

약속의 성령님은 임재의 하나님 또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다. 본문 그대로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실 하나님, 우리 속에 계실 하나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내주(內住) 동거(同居)의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는 하나님이란 뜻이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였다. 또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셨다. 예수님의 이 약속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뤄졌음을 본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세상 끝 날까지 곧 재림하실 그날까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한다. 이 용어는 이사야서에 두 번 나온다(사 7:14; 8:8). 이 하나님의 임재는 요엘이나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의 글에도 예언되어진 약속이다(을 2:28-29; 겔 36:26-27; 겔 37:14).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주후 30년 5월 28일 오순절 날에 있었던 성령강림사건 속에서 지키셨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공동체로 택하시고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셨다. 하나님의 신은 모든 백성에게



임재하지 않았고, 오직 기름부음 받은 자들에게 사역기간동안만 임재 하였다. 그리고 여기 말하는 하나님의 신은 대체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사 또는 능력을 두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령님을 통해서 성도들 각 사람의 마음속에 임재하시는 것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 하나님의 임재 곧 임마누엘은 신약시대의 선민공동체를 구성하는 성도들 각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요 선물이다. 임마누엘은 은사나 능력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이신 성령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다. 주시는 분의 성격에서 볼 때,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사나 능력은 성령님의 선물이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우리는 성령님과 성령님의 은사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 나. 진리의 하나님 성령

성령님은 진리의 하나님이다. 세상이 능히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분이시라 하였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앞에서 언급한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분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 부른다.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동거하시면서 하시는 일 가운데 한 가지가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이다.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하였다.

성령님께 하신 일 가운데 가장 큰 일은 신약성경을 쓰게 하신 일이다. 신약성경은 성령님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 또는 당대의 교사들을 진리로 인도하셨던 말씀들이다. 신약성경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에 바탕을 둔 말씀들이다.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내용들을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당대의 교사들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올바르게 해석하게 하신 말씀들을 모은 기독교의 경전이다.

오늘날에도 진리의 성령님께서 진실하고 신실한 자들의 마음속

에 성경의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올바르게 해석하게 하신다. 그러나 미혹의 영을 받아 성경말씀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벧후 3:16) 자들이 많다. 이런 자들을 성경에서는 ‘적그리스도’ 또는 ‘거짓선지자’ 또는 ‘거짓 교사’로 부른다.

## 다. 도움의 하나님 성령

성령님은 도움의 하나님이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이다. 도움의 신이신 성령님께서 하신 일 가운데 가장 큰 일은 교회를 창립하게 하신 일이다.

교회를 세우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이다. 사도들이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오순절 날 성전 뜰 솔로몬행각에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시작하였다.

“다른 보혜사”의 “다른”의 의미는 예수님과 같은 또 다른 한 사람을 말한다. 예수님이 인성(人性)을 가지셨듯이 성령도 인성을 가지신 인격신이다. 우리가 여호와증인들을 이단자로 보는 이유는 그들이 성령님을 인격신으로 보지 않고 능력이나 힘(에너지)으로 보기 때문이다.

“보혜사”는 ‘곁에’란 접두어와 ‘부름’이란 말이 결합된 단어로써 그 뜻은 ‘다른 사람 곁으로 불려온 사람’이 된다. 변호사 또는 의사 또는 상담자와 비슷한 의미로 보면 된다. 보혜사란 변호사나 의사 또는 상담자가 인격체인 것처럼 성령님도 인격체이심을 강조하는 말이다.

누군가를 곁으로 청하는 이유는 도움을 받기 위함이다. 따라서 초청에 응한 사람은 도움을 주려고 최선을 다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서는 우리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다. 심지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롬 8:26)까지 하신다. 이런 성령님을 소멸하거나(살전 5:19) “근심하게 하지 말라”(엡 4:30)고 하셨다.

## 라. 증표의 하나님 성령

성령님은 증표의 하나님입니다. 바울 사도는 구원을 하나의 약정(約定)으로 설명하고 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서 “저가[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고 하였고, 에베소서 1장 13-14절에서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을 보증이 되사 그 언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다.

여기서 바울은 성령님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체결된 구원약정서에 찍힌 인감도장과 보증금으로 언급하셨다. 바꿔 말씀하면, 성령님은 우리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한가를 보여주는 증표로써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이다.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님을 선물로 받지 못했다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의 증표가 없는 것이요, 그렇다면 짐승의 표(계 14:11)를 받은 자일 수밖에 없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침례를 받아 매주 성만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구원의 증표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고 그분이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아 천국생활을 누려야 한다.

## 8. 오순절과 성령강림절의 관계[행 2:1-4]

### 가. 구약은 신약체결의 모형

히브리인들이 지상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한 날이 오순절 날이다. 이 날은 히브리인들의 성력으로 셋째 달(시반) 6일이었다. 첫째 달(니산) 15일이 시작되는 첫 유월절 밤에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 죽음을 모면한 히브리인들은 같은 날 아침에 이집트를 탈출하여(출 12장) 한 달 만에(이야르 15일) 신 광야에 당도하였다. 이곳에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기 시작하였다(출 16장). 그리고 보름 후에 시내 산에 당도했는데, 이 날은 이집트를

탈출한 지 45일 째가 되는 셋째 달(시반) 초하룻날이었다. 그리고 5 일간의 준비 끝에 50일째 되는 첫 오순절 날(시반 6일)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 하나님과 언약식을 치렀다(출 24장). 이 때 지키기로 한 율법(토라)이 구약(舊約, Old Testament)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늘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도록 교회공동체를 세우신 날도 오순절 날(30년 5월 28일)이다. 이날 아침 9 시경에 성령님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임재 하셨고, 베드로가 최초로 복음을 선포하였다. 이후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선포한 말씀들(케뤼그마)과 기록한 말씀들(신약성경)이 신약(新約, New Testament)이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날(30년 4월 7일)에 마치 유월절 양의 희생처럼 인류를 죽음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이 홍해를 건넌 것처럼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이란 바다를 건너셨다. 또 히브리인들이 40년간 광야에 머물렀던 것처럼, 또 홍해를 건넌지 40여일 만에 시내 산에 당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40일간 사람들에게 보이신 후에 승천하셨다. 승천하시고 10일간은 교회공동체가 출범되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다. 히브리인들이 시내 산에 당도하여 5일간 언약식을 준비했던 것과 같다. 이런 점에서 오순절 날은 구약(舊約, 옛 언약)과 신약(新約, 새 언약)이 체결된 의미가 큰 날이다.

첫 오순절 날 구약공동체(이스라엘)가 탄생될 때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에게 친히 임재 하셨듯이, 주후 30년 5월 28일 오순절 날 신약공동체(기독교)가 탄생되던 날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재 하셨다.

## 나. 오순절

기독교가 성령강림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주후 30년 5월 28일 일요일에 성령강림사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기 때문이다. 주후 30년 성령강림사건이 있었던 날은 유대인의 오순절(Shavuot) 명절이었다.

오순절은 칠칠절 또는 맥추절로 불리기도 한다. 이 명절은 춘분이

지난 직후의 음력 보름 즉 유월절 안식일 다음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지킨다. 금년 2010년은 3월 30일이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지난 5월 19일 수요일이 유대인의 오순절이었다. 그러나 주후 30년의 경우는 5월 28일 일요일이 오순절이었다.

주후 30년의 경우 유월절 명절은 4월 7일 금요일이었다. 이날은 유대월력으로 니산월 15일이자 큰 안식일이었고, 다음 날 토요일은 보통의 안식일이었다. 이때는 금요일과 토요일 모두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부터 50일째날인 주후 30년 5월 28일 일요일이 오순절이었다.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도 일요일이었고, 성령강림과 함께 교회가 출범한 날인 오순절도 일요일이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유대교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부활주일과 성령강림주일을 기념하여 일요일에 모여 예배를 드린다.

오순절은 맥추감사절이다. 이 시기 이스라엘의 들녘은 막바지 밀 보리수확으로 농부의 움직임이 분주한 때이다. 이 절기를 가장 성대하게 지키는 이들도 키부츠 농부들이다. 농부들은 햇곡식과 햇과일을 쟁반에 담아 하나님께 가져간다.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첫 소산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다.

유대인들의 하루는 해질 때부터 시작됨으로 오순절 역시 저녁 해질 때부터 시작된다. 이날 유대인들은 밤을 새워 토라를 배운다. 밝아오는 아침에 하나님의 계명인 토라를 새로 받기 위해서이다. 이유는 유대인들이 이 날을 시내산율법기념일로 지키기 때문이다. 첫 번째 유월절 날에 이집트를 탈출하여 시내산에 도착한 후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인 토라를 언약의 말씀으로 받은 날을 이 오순절 날에 기념한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이 날 일찍 일어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워주실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밤새도록 자지 않고 깨워있는 관습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유대인들은 3322년 전, 곧 주전 1312년에 시내산 기슭에 모여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들었기 때문에 오순절 첫날에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든 유대인들이 회당에 가서 십계명을 듣고 하나님과 그의 토라 계명과의 언약을 재확인한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회당에

서 롯기를 읽는다. 롯기를 읽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오순절은 다윗 왕의 탄생일이자 서거일이며, 그의 증조부모인 롯과 그녀의 남편 보아스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둘째, 롯기는 추수장면들을 기록하고 있어서 추수절기에 읽기에 적절하기 때문이다. 셋째, 롯은 온 마음으로 유대교를 받아들인 신실한 개종자였기 때문이다. 오순절 날 모든 유대인들이 토라와 그것의 모든 계명들을 받아들인다면 개종자의 의미를 새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오순절을 맥추감사와 율법, 즉 육신의 빵과 영혼의 양식을 받은 날로 엄숙하게 지킨다.

#### 다. 성령강림주일

기독교는 오순절을 유대인들과는 달리 성령강림주일로 지킨다. 성령강림사건은 주후 30년 5월 28일 일요일 아침 9시 기도시간에 성전 뜰에서 일어났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100개 정도의 베라코트를 암송한다고 한다. 이 가운데 54개는 하루 세 번 정한 기도시간에 암송하는 ‘쉐모네 에스레이’라 불리는 18개의 기도문이다. 이 기도문은 성전에서 바쳐졌던 하루 세 번의 제사를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전제사가 바쳐졌던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경에 암송한다. 주후 30년 5월 28일 오순절 날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그들도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아침 9시경 기도시간에 성전 뜰에 모여 이 18개의 기도문을 낭송하고 있었을 것이다. 성전에서의 기도는 뜰이나 행각에서 이뤄졌다. 초기 기독교인들의 집회 장소도 예루살렘 성전 동편 뜰 가에 세워졌던 솔로몬 행각이었다.

오순절은 유대인의 3대 명절 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외국에 거주하는 교포 유대인들과 전국의 유대인들이 성지인 예루살렘을 찾는 대 명절이다. 이날 아침 9시경 기도시간에 드넓은 성전 뜰에는 전 세계와 전국각지에서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면서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임하였고, 그로 인해서 제자들이 “다 성령의 충만

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 하였다. 이 사건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목격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골방에서 일어난 작은 사건이 아니라, 드넓은 성전 뜰에 모인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일어난 대 사건이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비로소 예수님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고, 이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또 그들의 모임을 ‘그리스도의 교회’로 부르게 되었다.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날의 사건 때문이었다. 유대인들의 오순절 축제가 맥추감사와 시내산 율법 즉 육신의 빵과 영혼의 양식을 모두 해결 받은 신성한 날의 기념에 있다면, 기독교인의 오순절 역시 맥추감사와 더불어 성령강림과 복음, 즉 육신의 빵과 영혼의 양식을 모두 해결 받은 신성한 날로 기념하는데 있다. 시내산 율법으로 유대교 공동체가 세워졌다면, 복음과 성령강림으로 기독교 공동체가 세워졌다. 유대교 공동체의 구원이 유월절 날 희생된 짐승의 피로써 이뤄졌다면, 기독교 공동체의 구원은 독생자 하나님의 피로써 이뤄졌다. 이로써 유대교의 오순절은 기독교 오순절의 예표요, 그림자요, 모형인 사실이 다음과 같이 드러났다.

첫째는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필요가 있다는데서 그렇다. 둘째는 잠정적 세속국가 즉 유대국가가 아닌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로써의 교회의 창립을 가져왔다는데서 그렇다. 셋째는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남녀노소성별의 차별이나 값도 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은혜로 구원을 받는 복음시대, 은혜시대를 출범시켰다는데서 그렇다. 넷째는 성령의 구원사역이란 독특한 성령시대를 가져왔다는데서 그렇다.

## 라. 성령강림의 목적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세우고, 교인들의 구원과 성화를 위한 것이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한 가지는 개개인에게 구원을 일으키는 내적 사역이고, 다른 한 가지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권능 사역이다. 사람들은 현실적이기 때문에 내적으로 구원을 일으키는 사역보다는 외적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권능 사역에 관심을 갖는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에 관심하기 때문에 그것을 성령사역 그 자체나 본질로 오해한다. 그러나 성령님은 권능이 아니며, 인격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이 성령님을 하나님이 선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신자에게 구원을 일으키는 내적 사역을 위해서 주신다. 또 성령님은 주의 종들을 택하여 권능을 일으키게 하여 복음이 전파되게 한다. 그러나 권능은 그것을 보고 듣는 이들로 하여금 심령의 변화를 받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성령님 사역의 목적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고 지킴으로써 그가 점진적으로 성화를 이뤄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할 때까지 인도하는 것이다. 성령님 사역의 목적은 바울 서신들에서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롬 5:5).

둘째,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 하신다(롬 8:16).

셋째,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롬 8:26-27).

넷째, 성령님은 우리 안에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롬 15:13, 갈 5:5).

다섯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고전 2:10, 13).

여섯째, 우리 몸은 성령님이 내주하는 성전이다(고전 3:16, 6:19, 엡 2:22).

일곱째, 성령님 안에서 중생의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전 6:11, 살후 2:13, 딤후 3:5).

여덟째, 성령님은 예수님을 주(主)로 고백하게 한다(고전 12:3).

아홉째, 성령님은 각 사람에게 각양 은사들을 나눠주신다(고전



12:11).

열째, 우리는 다 한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 교회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님을 마셨다(고전 12:13).

열한째, 성령님은 우리가 받은 구원약정에 대한 선수금과 인감이 되신다(고후 1:22, 엡 1:13-14, 4:30).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다(고후 5:5).

열둘째, 복음을 듣고 믿고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님을 받는다(갈 3:2-14).

열셋째, 성령님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다(갈 5:22-23).

열넷째, 성령님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갈 6:8).

열다섯째, 성령님은 평안의 매는 줄로 하나가 되게 하신다(엡 4:3).

열여섯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에 이른다(빌 1:19).

이와 같은 성령님의 귀중한 사역들 때문에 바울은 “성령님을 소멸치 말라”(살전 5:19).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라”(엡 4:30). “성령님의 충만을 받으라”(엡 5:18). “성령님을 좇아 행하라”(갈 5:16). “성령님으로 봉사하라”(빌 3:3)고 말씀하셨습니다.



## 제3부 성령론 요약

### 서론

조직신학의 한 주제인 성령론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를 요약형식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성령은 누구이신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성령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후에 성령의 역할을 구약에서의 역할과 신약에서의 역할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약속의 성취로써의 성령강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신약시대의 성령의 역사를 회심이전의 섭리적인 사역과 회중중의 구원과 중생의 씻음의 사역에 대해서 알아보고, 회심후의 성화의 내적 사역과 외적 사역인 성령의 은사와 도구화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한다.

이런 일련의 학습을 통해서 성령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성령과 기독교인, 성령과 교회, 성령과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하며, 성령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과 행위에 대한 판단과 지도 능력을 키우기를 원한다.

성령은 삼위일체의 제3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다. 여호와 증인이나 암스트롱 같은 이단은 성령을 단순히 비인격적인 활동하는 힘 또는 하나님의 사역하는 힘 정도로 생각한다. 또 4세기 마케도니안니즘 같은 이단은 성령을 천사의 수준급인 수종자 또는 피조물로 생각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성령은 창조되지 아니한 초월적인 신이시며,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다. 삼위일체의 위(位)란 말은 세분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 못된다. 위(位)라는 말보다는 인격(人格)이란 말을 써야 옳다. 즉 '삼 인격일체'라는 말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바른 표현이

될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의미가 바로 이 '삼 인격' 하나님의 인격을 닮고 있다는 말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사람이 같은 점이 있다면 그것은 인격이다. 인격은 지(知), 정(情), 의(意) 및 관계(關係)의 네 요소를 가진다. 이 요소들에는 이성, 지성, 감성, 자의식, 자기결정 및 타인과의 관계 등이 포함되는데, 이런 인격적 요소를 가진 인간이나 신을 인격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령은 강한 힘이나 피조물이 아닌 인격체이시며, 초월적인 신이시다.

신과 인간이 인격체라는 점은 인간으로 하여금 종교 활동을 가능하게 하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을 가진 만물의 영장이기에 예배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며, 인간끼리의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하다. 인간의 자의식(自意識) 그 자체는 대신 관계(對神關係) 및 대인관계(對人關係)에서 뿐만 아니라, 대물관계(對物關係)도 가능하게 하며, 또 이러한 관계형성은 필수적인 삶의 형태이다.

지구환경의 황폐화로 인한 생태계 파괴의 심각성은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다. 하나님의 창조질서의 하나인 자연만물은 인간의 비인격적인 자원의 수탈과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심각하게 파괴되어 가고 있으며, 그 결과적인 재앙이 인간에게 되돌아오고 있다. 따라서 인간들의 인격적인 대물관계 형성 즉 인간과 자연과의 화해 없이는 인간다운 삶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인간의 종교 활동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평화, 인간끼리의 평화, 더 나아가서는 자연과의 평화를 통해서 인간성회복과 참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기에 성령의 사역을 통한 인간성회복은 이러한 인격적인 관계에 밀접하게 관련하고 있다.

## 1. 어휘(WORDS)

### A. 용어

1. ruach(רוּחַ: 영), pneuma(πνεῦμα: 바람, 호흡, 영), neshamah(נְשָׁמָה: 호흡).

- a. 바람은 호흡보다 범위가 크다.
- b. 바람이나 호흡은 손에 잡을 수 없는 비물질이다.
- c. neshamah는 보통 조용한 호흡을 말한다.

d. ruach은 무겁고 거칠고 능력 있는 호흡을 말한다(출 10:19; 15:18; 시 148:8; 겔 1:4; 사 25:4; 30:28; 히 15:8). 성령의 권능을 나타낸다(행 2:1 이하 참고). 그러나 성령은 인격체이다. 단순한 힘이나 능력만이 아니다.

### 2. 능력과 삶의 함축된 의미

- a. 왜, 제 삼 인격의 하나님을 성령이라 부르는가? 하나님의 중요한 사역이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 b. 영(靈)은 인간의 실체이다.
- c. 영은 성령, 악령, 그리고 인간의 영으로 분류된다.

### 3. 영의 본질은 무엇인가?

a. 하나님은 누구로부터도 창조되지 아니한 영이시요, 초월적인 영이시다. 그러나 하나님이외의 모든 영들 즉 천사나 마귀는 물론이요, 인간의 영도 피조 즉 만들어진 영들이다.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은 시작된 때가 없고 만들어진 때가 없으시며, 영원 전부터 영존하시는 영이시다. 그러나 그 밖의 영들은 시작된 때가 있고, 만들어진 영들이기 때문에 또한 멸망도 가능하다. 따라서 계시록의 목시적 교훈은 사탄과 그의 두 짐승 즉 적그리스도와 거짓선지자, 그리고 모든 박해세력들이 종국에는 멸망 받을 운명을 안고 있다는 것과 그리스도와 그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최종적인 승리를 거둘 것을 가

르치고 있다.

b. 영에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살아있다는 것과 인격체라는 점이며, 부정적인 면으로는 비물질이라는 것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c.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의 영적 본성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있다. 하나님의 형상은 그 형태와 내용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 형태란 하나님의 형상의 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그릇을 말한다. 이 질적인 내용은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아담과 이브에게 부여하셨던 갈라디아서 5장 22-23절의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것을 말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현상의 형태는 이미 앞서서도 언급한바와 같이 인간의 이성적 정신적 종교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써 인간의 인격(인성, personality)을 말한다. 인간의 인격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요소를 담고 있다.

#### 4. 인격(인성, personality)의 네 가지 요소

- a. 이성의식 - 정신활동(이성적 동물, 생각하는 갈대)
- b. 자 의 식 - 자기의식("나" 즉 God said, "I Am.")
- c. 자기결정 - 자유의지, 자기결단 능력.
- d. 교 제 - 타자와의 관계, 대신관계, 대인관계, 대물관계.

인간이 인격체라는 점은 곧 인간 나름의 자유의지가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게 한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자유의지와 칼뱅의 자유의지 부정은 인간 구원의 문제와 결부되는 것이므로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없다. 칼뱅도 여기서 말하는 자유의지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자유의지 부정을 구원을 받는 일에 있어서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된다.

## B. 표현

1. 구약성경에서는 성령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the Spirit of God 또는 YHWH), 둘째로는 나의 영, 그들의 영 또는 그의 영(my/their/his Spirit), 마지막으로 그냥 영(the Spirit)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때에 따라서는 수식어가 첨가되기도 하며, 성령(the Holy Spirit)이라는 말은 세 번 쓰이고 있다(시 51:11; 사 63:10, 11).

2. 신약성경에는 πνευμα와 관련된 여러 가지 표현이 쓰이고 있다.

- a. pneuma (영),
- b. to pneuma (그 영),
- c. pneuma hagian (성령),
- d. to hagian pneuma (그 성령),
- e. to pneuma to hagian (그 성령)

3. pneuma에 정관사 to가 붙고 안 붙는 표현에 따른 차이는 없다.

pneuma에 정관사 to가 붙고 안 붙는 다양한 표현에 따른 어떤 중요성이 있는가의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그것은 pneuma에 정관사 to가 붙고 안 붙는 표현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다고 단일신론자들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성령을 단지 에너지나 또는 힘으로써 간주하고, 성령의 인성을 부정하며, 예수를 인간으로만 인정하고, 그의 신성을 부정함으로써 성부 하나님 한 분만을 주장하기 위해서 표현의 차이를 주장하고 있다. 다음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a. Victor Paul Wierwille는 "Receiving the Holy Spirit Today," pp. 10이하에서 신약성경 헬라어에 관사가 없이 쓰이는 pneuma hagian는 수여자이신 하나님을 지칭하는 "그 성령(the Holy Spirit)"으로 한 번도 쓰인 사실이 없으며, 따라서 pneuma hagian는 수여자이신 하나님, 즉 영이신 하나님이 아니며, 오히려 그 분의 선물인 하늘로부터 오는 비인격적인 영적 능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성령을 이렇게 비인격적인 능력으로 표현한 예는 이미 Arius에 의해서 "exerted energy of God" 또는 Socinius에 의해서 "the eternally proceeding energy of God"으로 표현된바 있다.

b. Z. W. Sweeney는 “The Spirit and the Word,” pp. 15이하에서 신약에 나타난 영(the Spirit)에 관한 언급을 264번으로 밝히고, 이 가운데 상당수의 표현은 성령(the Holy Spirit)을 뜻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영(the Spirit)” 또는 “성령(the Holy Spirit)”으로 쓰인 부분이 정관사 없이 그냥 “Spirit” 또는 “holy Spirit” 또는 “a holy Spirit”으로 쓰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정관사를 가진 pneuma는 the Holy Spirit으로 정관사가 없는 pneuma는 a holy Spirit으로 번역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성경에 쓰인 다음의 성구들을 비교 검토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 1) 요 3:5 pneuma (영),  
3:6 to pneuma (그 영),
- 2) 눅 2:25 pneuma hagion  
2:26 to pneuma to hagion  
2:27 to pneuma (그 영),
- 3) 요 7:39 to pneuma (그 영),  
pneuma (영),
- 4) 마 12:31 to pneuma (그 영),  
12:32 to pneuma to hagion  
12:18,28 to pneuma mou (나의 영)  
pneuma Theou (하나님의 영)
- 5) 행 19:2 pneuma hagion (성령)  
19:6 to pneuma to hagion (그 성령)

이 밖에도 마 3:16; 22:43; 막 1:10; 3:29; 12:36; 눅 3:22, 12:10; 행 2:4; 10:45; 11:15-16; 19:2,6; 롬 8:14; 고후 1:22; 갈 5:16-25; 엡 1:13-14 등 많은 성구들이 관사의 쓰이고 안 쓰인 차이에 따라서 pneuma가 energy도 되고 성령도 된다는 잘못된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 2. 성령의 인성



## A. 이단(異端)의 관점

### 1. 유니테리언주의(Unitarianism)

유니테리언(Unitarian)은 삼위일체설을 부정하고 하나님 한 분 인격만 인정한다. 성령의 인성과 예수의 신성을 부정한다.

Unitarianism과 동일한 맥락에서 Monarchianism을 살펴보는 것도 유익하리라 본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설이 있다. 첫째, 양자설(Adoptionism) 또는 이성적 혹은 역동적 단일신론(Rational or Dynamic Monarchianism)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고 그리스도를 단순히 신의 능력으로 가득한 한 인간으로 본다. 그의 신적 능력은 세례 시에 주어진 것으로 믿는다. 둘째로, 성부수난설(Patrispassianism) 혹은 양태론 또는 일신삼현론(Modalistic Monarchianism)은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성령을 동일시하며, 구약시대에는 아버지의 역할로, 신약 시대에는 아들의 역할로, 복음시대에는 성령의 역할로 같은 한 분 하나님께서 각기 다른 모습으로 계시하셨다는 설이다.

### 2. 여호와증인(Jehovah Witnesses)

여호와증인은 Charles Taze Russell(1852-1916)이 창설한 교단으로써 성령의 인성과 예수의 신성을 부정한다. 의도적으로 the Holy Spirit을 holy spirit으로 표기하고 있다. 성령은 하나님의 비인격적인 활동적인 힘이라고 주장한다.

### 3. 암스트롱이즘(Armstrongism)

암스트롱이즘은 Hebert W. Armstrong이 창시하였으며, *The Plain Truth*란 잡지와 “세계의 내일”이란 방송으로 유명하다. 성령은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하는 힘이라고 주장한다.

### 4. The Way International

The Way International은 Victor Paul Wierwille이 1950년대 중반에 세운 집단이며, “넘치는 삶의 능력(Power for Abundant Living)”으로 유명해졌다. 그의 신학은 성령의 인성과 예수의 신성을 부정하

는 단일신론이며, 시대구분론, 오순절 방언 운동, 칼뱅주의 신학 등으로 혼합된 사교이다. 방언은 이들 The Way신학의 중심이다.

## B. 역사적 발전

### 1. 기독교론 논쟁의 영향

성령론은 4반세기 중반까지는 기독교론 논쟁으로 인해서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A.D. 170년경에는 Alogi파의 양자설이, A.D. 200년경에는 Praxeas의 성부수난설이, 그리고 Sabellius의 양태론이 대두되었다. A.D.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는 아리우스의 그리스도의 종속설(subordination)이 주요 논쟁의 대상이었고, A.D. 381년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에서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신성으로 대치했던 Appolinarianism을 해결하였으며, A.D. 431년 에베소 종교회의에서는 예수의 인성을 강조했던 Nestorianism을 정죄하였다. A.D. 451년에는 결국 예수의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동시에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 2. 성령론 논쟁의 시작

그러나 이들 종교회의가 전혀 성령에 관하여 문제 삼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A.D. 200이후의 Sabellius의 양태론이나, Praxeas의 성부수난설은 결국 성령의 존재를 부정하는 문제를 야기하였으며, 아리우스는 성령의 인격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사역하시는 힘으로 단정하였다. 그러나 니케아 종교회의는 신조의 내용에 성령 안에서의 믿음을 고백하는 정도에 끝나고 있으며, 아버지와 아들과의 본질적 관련에 대한 사고의 발전은 없었다.

### 3. Macedonianism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는 이 도시의 감독이었던 Macedonius (341-360)가 성령을 천사의 수준급인 수종자 또는 종으로서 그리고 성령을 피조물로서 가르침으로써 논쟁의 씨가 되었다. 이를 Macedonianism이라 한다.

#### 4. 니케아 신조 이후

콘스탄티노플 신경은 성령을 “주요, 생명의 수여자이시며, 아버지로부터 발출하셨으며,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예배와 영광을 받으실 자”로서 니케아 신경에 첨가하였다.

이후의 논쟁은 성령의 근원을 찾는 문제로 발전되었으며, 특별히 성령을 “아들로부터 발출(*procedit*)하셨으며”란 말로써 고백해야 하는 문제가 쟁점이 되었다. 서방교회에서는 어거스틴의 가르침에 따라서 589년 동방교회가 제외된 Toledo종교회의에서 콘스탄티노플 신경에 *filioque*(=and the Son)란 단어를 첨가하였다. (이 문제는 1054년 동서교회가 완전히 분열되는 여러 원인들 중에 하나이다.)

동방교회는 성령의 발출의 근거를 오직 성부 하나님에게만 두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믿고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교리와 일치시키는 반면, 로마교회는 성령의 발출의 영원성을 인정하고 있다. 동방교회의 견해는 성령의 구약에서의 사역을 감안할 때,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발출의 성경적 근거는 요한복음 15장 26절과 시편 104편 30절에 있다.

#### 5. 초기 교부들의 이해

순교자 저스틴은 성령을 천사와 같은 것으로 간주하였고, 따라서 피조물로 보았다(*Apol.* 1.6).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성령을 성스런 삼인조의 셋째 구성원으로 보았으며(*Paed* 3. p. 311), 오리젠은 성령을 영원한 존재로 보았으나, 그의 본질과 품위와 효능 면에 있어서는 아들 밑에 두었다. 성령을 피조물로 보지는 않았으나 로고스에 의해서 생산된 모든 존재의 최고의 월등한 존재로 간주하였다. 이레네우스는 성령을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보다도 더 완전한 본질적 주체로서 믿었다. 그러나 그는 아들과 성령을 아버지의 두 손으로 지칭함으로써 하등감을 비치고 있다. 안디옥의 데오빌루스는 성령을 최초로 신성에 적용한 인물이었다. 마지막으로 터툴리안은 성령의 신성을 가르쳤고, 또 성령을 본질의 개체(*Unitas Substantiae*)로 보았으나 Montanism에 가담함으로써 성자의 반열에 들지 못했다.

## C. 성경의 가르침

### 1. 성령의 인성

a. 성령은 인성을 가지신 인격자이시다. 성령이란 단어가 성령의 인성을 생각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것 같다. 아버지란 말은 그 자체가 인격으로써의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아들이란 말도 역시 ‘아기 예수’ 또는 ‘목수의 아들’ 등의 별명과 함께 예수의 인성을 생각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성령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흔히 사람들은 성령을 위로부터 내려오는 권능으로써 또는 어떤 힘으로써 생각한다. 성령은 증성명사일 뿐만 아니라, 성령을 상징하는 것들이 모두 비둘기나 기름, 바람이나 불과 같은 것이어서 더욱 성령을 비인격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짙은 것 같다. 그러나 성령은 인성을 가지신 인격자이시다.

b.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다른 보혜사”란 말이 어떻게 성령의 인성을 증명하는가? *αλλοος*는 다른, 즉 같은 종류의 또 하나를 뜻하고, *ετεροος*는 다른 종류를 말한다. 따라서 “다른 보혜사”의 “다른”의 의미는 예수와 같은 다른 한 사람을 말한다. 예수는 인성이시다. 그러므로 성령도 인성이시다. *παρακλητοος*는 보혜사, 안위자(요 14:16,26; 15:26; 16:17) 또는 주창자(요일 2:1)를 뜻한다. *παρακλητοος*는 *παρα*의 ‘곁에’와, *καλεω*의 ‘부르다’의 뜻을 가진 *παρακαλεω*의 명사형이다. 이 말의 뜻은 ‘다른 사람 곁으로 불려온 사람’이다. 누군가를 곁으로 부르는 것은 도움을 받기 위함이다. 따라서 초청에 응한 사람은 도움을 주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법적인 문제로 볼 때에는 변호사와 같다고 할 것이요, 병적인 문제에서 볼 때에는 의사나 상담가와 같다고 할 것이다. 변호사나 의사나 상담가는 고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일할 의무를 가진다. 그리고 변호사나 의사나 상담가가 인격체인 것 같이 성령도 인격체이시다. 성령의 역할도 이들의 역할과 다르지 않다.

c. 헬라어로 성령은 중성이다. 그러나 이 명사가 대명사로 쓰일 때는 남성으로 쓰이고 있다. 이는 성령이 인격자이시고 사물이 아니라

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남성대명사인 *εκεῖνος*(=that one or he)가 성령을 지칭하는 말로서 쓰이고 있으며(요 15:26; 16:7-8, 13-14), 영어 성경에서도 성령을 *It*로 표기하지 아니하고, *He*로 표기하고 있다. 외국어의 경우 성(性)은 사물과 인격을 구분하는 분명한 조건이 되지 못한다. 예를 들면, 라틴어로 탁자는 여성이며, 독일어로 처녀는 중성이며, 불어로 모자는 남성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πνεῦμα*가 비록 중성명사라 할지라도 결코 비인격체가 아니며, 인성을 가지신 인격자이시다.

d. 성령은 다른 인격자들과 함께 병행하여 쓰이고 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에서 볼 수 있듯이 한 이름 아래 세 인격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사도행전 15장 28절에서는 “...하는 것이 성령과 우리에게도 좋을 듯하니”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며, 이는 성령의 인격적 판단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e. 성령은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하신다. 지적활동(롬 8:27; 고전 2:10-11; 요 16:8), 의지적 활동(행 13:2; 15:28; 16:6-7; 20:28; 고전 12:11), 정적 활동(롬 15:30; 엡 4:30; 사 63:10), 언어사용(요 16:13-14; 행 8:29; 13:2; 딤후 4:1), 가르침(요 14:16, 26; 고전 2:13; 느 9:20) 등의 인격적인 활동을 하신다.

f. 성령은 사람처럼 취급되고 있다. 속임을 받으시며(행 5:3), 시험을 받으시며(행 5:9), 모독을 받으시며(마 12:31), 모욕을 받으시며(히 10:29), 거절을 당하시며(행 7:51), 그리고 슬픔을 당하신다(엡 4:30).

## 2. 성령의 신성

a.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한 이름아래 제3의 인격으로써 서로 동등한 위치를 나타내고 있다(마 28:19; 고후 13:14; 고전 12:4-6; 엡 4:4-6; 벧전 1:2).

b. 성령은 신의 특징을 가지고 계신다. 영원하시며(히 9:14), 전지전능하시며(고전 2:10-11; 시 104:30; 숙 4:6; 욕 33:4), 무소부재하시며(시 139:7-10; 요 14:17), 진리의 영이시며(요일 5:6; 요 16:13), 찾을 수 없는 위대함을 가지신 분이시며(사 40:13), 생명과 사랑의 성령이시다(롬 8:2; 딤후 1:7).

c. “성령을 훼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하였다. 성령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다.

d. 성령을 하나님으로 호칭하고 있다. 사도행전 5장 1-4절은 성령을 속인 것은(3절)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고 적고 있다(4절).

e. 구약의 YHWH는 하나님의 이름이다. 그러나 하나님에 해당하는 Elohim이나 Adonai는 복수형이다. 이는 한 하나님 야훼(YHWH) 속에 복수 하나님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심을 나타낸다. 신명기 6장 4절은 “우리 하나님(Elohim) 야훼(YHWH)는 오직 하나이신(ONE) 야훼(YHWH)이시니”라고 적고 있다.

#### D. 성령의 상징들(Symbols)

1. 호흡 또는 바람 (창 2:7; 욥 32:8; 33:4; 겔 37:9; 요 3:8; 20:22; 행 2:2).

격렬하고 투명하며 갑작스러운 성령의 행동을 강조한다. 이 행동은 또한 하늘의 것이며, 위로부터 내리며, 초월적이며, 절대주권적임을 강조한다. “전능의 호흡”이 성령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발산되는 것이며, 그의 임재의 현시(顯示)이다(겔 8:3; 11:1,5; 행 8:39-40을 비교하시오).

2. 비둘기 (눅 3:22).

온순, 부드러움, 순결, 사랑, 자비, 위안, 무죄, 은혜를 상징한다.

3. 기름 (눅 4:18; 행 10:38; 히 1:9; 고후 1:21; 요일 2:20; 마 25:4; 롬 8:9; 출 27:20-21; 요 16:14; 요일 2:27; 빌 3:3; 슥 4:2-5).

성령의 기름부음을 상징한다. 구약시대에는 왕과 대제사장과 예언자들을 머리에 올리브기름을 붓고 안수하여 임직하였다. 여기서 기름은 성령의 임재와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사울과 다윗이 기름으로 부음을 받고서부터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사실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삼상 10:1,10; 16:13). 신약시대에 와서는 기름부음이 퇴마의식과 관련성을 갖는 것을 볼 수 있다. 야고보서 5장 13-16절의

말씀은 이를 잘 입증하고 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름대신에 세례를 성령의 임재의 시간으로 믿었다. 예수께서 세례직후에 비둘기 같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사실이나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는 음성이 있었다는 성경의 기록은 그리스도의 임직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마 1:9-11; 눅 4:1). Tertullian의 *Apostolic Tradition*에 의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례직후에 기름을 부어 안수하였는데, 이는 세례직후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그들의 신앙을 잘 입증하는 것이다(행 2:38).

4. 생수 (요 7:38-39; 4:14; 사 44:3).

성령의 임재는 심령의 갈함을 시원하게 적셔주신다는 의미를 갖는다.

5. 인 (印-엡 1:13; 4:30; 고후 1:22; 계 7:4).

하나님의 소유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은 구원의 표를 상징한다.

6. 보증 (ἄραβων-엡 1:13-14; 고후 1:21-22).

지불의 서약 또는 표시 또는 선불을 말한다. 이는 성도가 이미 구원을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된 종말론적으로 이미(already) 이 땅에서 소유하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말씀이다. 따라서 보증은 구원의 확실성을 말하며, 이를 위해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바울은 말한다. 물론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yet) 미래적 종말론적으로 성도의 소망으로 남아있다.

7. 불 (살전 5:19).

이는 죄의 소멸 또는 정화를 상징한다. 그러나 마태복음 3장 11절의 불은 성령의 불이 아니며 심판의 불을 말한다. 또 사도행전 2장 3절의 “불의 혀 같이”도 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꽃 모양을 나타낸다. 따라서 성령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보지 아니하고, 성령을 비인격적인 불로서 지칭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 3. 성령과 성경

#### A. 성령과 성경의 기원

성령께서 하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들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교회와 성경을 주신 일일 것이다. 이러한 중요한 일들을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취하셨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회가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고 할 수 있다(행 2:42; 엡 2:20).

성경은 역사 안에서 인간의 언어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말씀으로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써 자신을 계시하신다. 그러나 계시적인 사건은 그저 단순한 사건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사건을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영감으로 도우신다. 여기에 바로 성경적인 계시의 형태가 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행하시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 행위를 설명하는 해석의 말씀을 주신다. 즉 하나님은 행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 행위를 설명한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하나님의 행위를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행위와 말씀은 계시와 영감이란 실과 바늘의 역할과 같은 것이다.

#### 1. 성경 형성의 단계

성경의 형성은 사건, 해석, 기록이란 순서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계시가 역사 속에서 사건이나 또는 그 종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타났고, 둘째는 계시 받은 자들을 성령으로 영감 하셨으며, 마지막으로 예언자나 주의 종들은 받은바 계시를 해석하여 설교(kerygma) 또는 기록의 형태로 제 삼자에게 전달하였다. 이것이 성경형성의 3단계이다.

제1단계: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사건이나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과 같이 하나님의 계시가 역사 속에서 사건이나 또는 그의 종들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으로 나타난다. 이 단계를 우리는 다이아몬드의 원석의 단계라고 볼 수 있다. 가공되지 아니한 원석은 보석으로써의 가치가 없다.



제2단계: 계시 받은 자를 성령으로 영감 하신다. 여기서 하나님은 성경형성의 큰손으로 배후에서 작용하신다. 여기서 영감이란 기계적인 것이 아니고, 유기적인 것을 말한다. 저자들은 기계처럼 성령의 절대적인 지배를 받아 의식을 잃고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 감화 속에서 자신들의 지식이나 경험, 사상이나 개성, 용어나 문체 등을 그대로 사용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성경의 영감은 축자적(verbal)이 아니고 개념적(conceptual)인 것이다. 이 단계를 우리는 원석의 가공단계라고 볼 수 있다.

제3단계: 예언자나 주의 종들은 받은바 계시를 해석하여 설교 또는 기록의 수단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달한다. 기록된 자료들이 수집되어 경전으로 편집된 상태를 우리는 성경이라 부르며, 이 성경을 우리는 가공이 완전히 끝난 보석으로 비유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성경은 역사 속에서 인간의 언어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그러나 인간의 언어로 되었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원본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구성될 수 있다. 재구성의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성경비평이다.

성경이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의 말씀이 신앙인의 삶에 적용이 되고, 체험을 통해서 나오는 능력 있는 설교 혹은 신앙 간증이 될 때이다. 보석이 아무리 귀중해도 서랍 속에 묻혀 있다면, 아무 가치가 없고, 사람의 몸에 부착될 때에 그 진가가 발휘되듯이, 성경의 말씀도 독자의 삶 속에 적용될 때에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진가가 발휘된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 2. 계시와 영감의 범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곧 인간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교통(communication)하시기를 원하실 때는 항상 대변인(예언자)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다. 이를 계시의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둘째로, 계시를 받은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해석

하고 그 해석의 말씀을 인간에게 전달할 때 성령의 감독과 도우심을 받게 되는 데 이 단계를 영감의 단계라고 한다. 그리고 성령은 이들 계시와 영감의 두 과정에서 활발히 활동하신다. 그러므로 성령은 전달된 메시지의 근원이시며, 기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계시란 꿈, 환상, 구름기둥, 불기둥과 같은 출애굽 사건, 성육신과 십자가의 사건 등을 말한다. 그리고 영감이란 주의 종들이 받은바 계시를 해석하기도 하고, 자신의 말과 언어로 구두 혹은 기록 전달을 시도하는데, 이때 주의 종들은 구전, 경험, 자신의 이성적 판단, 자료 등을 이용하여 바른 해석을 내린다. 이 해석을 신앙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동안 성령께서는 주의 종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도록 감독하시고 관여하시며, 여러 가지 인위적인 방편으로 그들을 도우신다. 그러므로 성경은 인간의 경험과 문화, 역사, 지리 등의 수많은 자료와 구전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그 메시지는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담아 전달하는데 있어서 오류가 없고 부족함이 없으며, 믿음의 종들의 확신에 찬 신앙고백이다.

계시는 또 기적에 비교가 될 수 있으며, 영감은 섭리에 비교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사역에는 비 순리적이고 자연법칙에서 벗어나는 기적의 방법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순리적이고 시간과 공간에 그대로 제약을 받으면서 인위적인 협조와 도구를 통한 역사하심도 있다. 따라서 홍해사건이나 십자가의 사건은 역사 속에서 발생한 하나님의 계시적인 사건이면서 동시에 성령의 영감과 감동감화를 받아 믿음으로 해석되고 기록된 신앙고백이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다스리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의 경륜이 통치와 조종인데, 통치는 기적에, 조종은 섭리에 비교될 수 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담긴 계시적인 말씀이고,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구원받는데 있어서 무오하고 무류한 말씀이다.

### 3. 구두 예언의 근원으로써의 성령

a. 방언으로 나타난 예언 - 민 11:25이하; 삼상 10:6이하; 19:20이하; 행 2:4이하; 10:44; 19:6이하. 여기 구약의 민수기나 사무엘상의 말씀에 나타난 예언은(to prophesy) 미래의 일이나 설교의 예언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방언과 같이 황홀한 상태나 마음이 고양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나 충동에 의해서 말하는 것을 말한다. 구약에서는 단회적, 증거적으로 나타났다.

b. 예언의 말씀 또는 설교로 나타난 예언 - 민 24:2; 대상 12:18; 대하 15:1; 20:14이하; 24:20; 느 9:30; 슥 7:12; 막 13:11; 눅 2:26; 행 4:8; 8:29; 10:19; 11:12; 13:2; 16:6; 20:23; 21:10이하.

c. 지혜와 지식의 말씀으로 나타난 예언 - 고전 12:8이하; 12:28.

#### 4. 기록된 말씀의 근원으로써의 성령

a. 구약성경에 관한 말씀 - 삼하 23:2; 사 59:21; etc.

b. 구약성경에 대한 신약성경의 언급 - 마 22:43; 행 1:16; 4:24-25; 28:25; 히 3:7; 9:8; 10:15; 벧전 1:10-11; 벧후 1:21.

c. 신약성경에 대한 신약성경의 언급 - 요 14:26; 15:26; 16:13이하; 고전 2:9-13; 7:40; 엡 3:5; 딤후 4:1; 벧전 1:12; 계 1:10; 2:7; 4:2; 19:10.

d.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theta\epsilon\omicron\pi\nu\epsilon\upsilon\sigma\tau\omicron\sigma$ (God-breathed)는 “하나님께서 숨을 내어 쉬셨다”는 뜻이며, 성경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임을 지적한다.

#### 5. 성령의 활동범위 - 계시(히 1:1)와 영감.

성령의 영감은 구수(dictation)로부터 감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출 20:1-17; 미 2장; 시 4:22; 눅 1:1-4).

#### 6. 성령의 사역의 결과 - 영구적이고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

a. 성경의 무오성은 그것이 쓰인 최초의 원본(original manuscript or autographs)에 국한되며, 사본이나 개역성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성경이 쓰인지 2-3천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원본은 없다. 그렇지만 현존하는 고대 필사본들의 수가 수천 개에 이르고, 이들 현존하는 필사본들을 연구하는 사본학과 본문비평연구의 발달로 오늘날

우리는 원본의 99퍼센트 이상이 복원된 대본성경들을 갖게 되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들은 수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복원된 대본성경들을 세심하게 번역하고 검증한 개역성경들이다.

b. 성경의 무오성은 사용된 언어가 과학적으로 상세한 것을 말하지 않는다. 평범한 언어의 사용, 대략의 연대와 수, 의역, 요약, 문법의 격차가 있음을 감안한 것이다.

c. 성경의 무오성은 문자적 해석에 있지 않다. 성경에는 상징적 언어, 비유, 우화 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d. 성경의 무오성은 영감의 특별한 형태에 있지 않다. 구수로부터 감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는 것을 감안한 것이다.

## B. 성령과 성경의 이해

### 1. 조명론(Doctrine of Illumination).

a. 요 14:26; 16:13; 요일 2:20,27; 마 10:19-20 등의 말씀들을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다. 따라서 이들은 지금도 성령께서 특정인에게 특별계시를 주신다고 믿는다.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 이외의 특별계시를 더 이상 인정치 않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b. 요한 칼뱅은 다른 차원에서 이러한 말씀들을 이해하고 있다. 그는 인간의 완전타락과 함께 성령의 조명론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성령의 조명(Illumination of the Holy Spirit)은 성령의 내적 증거 (Inner testimony of the Holy Spirit)와 거의 같은 말이다. 이는 성령이 선택된 자들에게 성경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는 내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조명론의 전제는 죄인의 완전무능이다. 인간은 타고날 때부터 유죄할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썩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없이는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칼뱅의 조명론은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미리 택함을 받은 자가 아니면 누구라도 성령의 조명을 받을 수가 없고, 성경도 이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이는 특별계시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특별계시

로서의 성령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특별계시가 될 수 없고, 오직 택함을 입고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에게만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특별계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의 죽음도 오직 선택된 자들만을 위한 것이며, 믿음도 회개도 인간의 자의적인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주장한다.

## 2. 요한 칼뱅의 조명론 보충설명

칼뱅의 자유의지론은 그의 조명론에 비추어서 올바르게 이해될 수 있다. 칼뱅이 비록 인간의 의지의 속박이나 법적 개념으로서의 유죄 문제에 대해서 불투명한 설명을 함으로써 다소의 논리적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완전타락설이나 완전 무능설 또는 의지의 속박을 배제하고서는 그의 조명론을 이해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칼뱅의 자유의지론은 죄인이 하나님을 믿거나 회개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칼뱅에게 있어서, 믿음이나 회개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이며, 죄인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성의나 태도라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칼뱅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계시는 그것이 자연을 통한 일반계시이든지, 성경을 통한 특별계시이든지 간에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이 구세주이심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자연이든지, 성경이든지, 유기자들에게는 모두 다 일반계시에 지나지 않으며, 선택된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내적 증거에 의해서만이 비로소 성경을 특별계시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원받기로 선택되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어떠한 형태의 특별계시도 주어지지 않았다고 본다. 칼뱅은 “성령의 조명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하였고, 성령은 믿음을 주시는 분일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자라 신령한 하늘의 지식에까지 이르도록 도우신다고 주장한다(*Institutes*, III. 2-33).

이것은 곧 인간의 무능 또는 완전타락을 말하는 것이며, 이 완전타락이나 무능은 어디까지나 인간이나 자연만물에 대한 인간의 한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한계이며, 인간의 의

에 의한 구원의 논리를 배제하고 하나님에 의해 전적으로 의존케 하려 함이다. 그러므로 칼뱅의 신학을 신 우선주의 신학이라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신 우선주의 관점에서 볼 때, 칼뱅에게는 믿음이나 회개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 인간이 할 수 있는 무엇이 아니라고 본다. 이러한 그의 사상은 그의 제네바 교회의 교리문답집에 잘 나타나 있다. 그는 여기서 믿음을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로 주장하고 있다(*Treatises, opcit.*, p. 105). 또한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도 칼뱅은 "믿음은 성령의 주된 사역이다"라고 하였고, "믿음 그 자체는 성령이외에 다른 근원에 의존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Institutes*, IV. 1-4). 그는 또 다음과 같이 믿음을 정의하였다. 믿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확고하고 분명한 지식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어진 약속의 진리 위에 기초한 것이며,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나타났고, 우리의 심령에 봉함된 것이다"라고 하였다(*Institutes*, IV. 2-8).

그러나 칼뱅에게 있어서의 이 믿음은 선택된 자들만이 누리는 축복이며, 버려진 자들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그는 "오직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만이 믿음의 빛을 받으며, 복음의 능력을 진정으로 느낀다"고 하였고, "버림당한 자들은 은혜에 대한 혼돈된 인식 이외에 아무 것도 결코 받지 못한다"고 하였다(*Institutes*, III. 2-11).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선택된 자들은 참된 믿음을 유기자들은 거짓 믿음을 갖는다고 하였다(*Institutes*, III. 2-12). 따라서 참된 믿음은 확신과 확실성을 준다고 하였다(*Institutes*, III. 2-15,16).

믿음이 확실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회개도 또한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Institutes*, III. 3-21). 칼뱅에게 있어서 회개란 믿음의 결과이며, 믿음에 의해 탄생된다(*Institutes*, III. 3-1).

한편 칼뱅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터라, "모든 사람은 외적 전파에 의해서 회개와 신앙으로 부름을 받는다"고 하였고, "하늘의 영적인 지혜를 통달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깨달는 마음을 지니고 있으며. . . 비록 하나님의 진정한 지식에는 도달하지 못하나, 그 사람은 신성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는 소유한

다”고 하였다(*Institutes*, II. 5-19). 따라서 칼뱅은 유기자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거나 신앙을 가질 수 없음을 말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그는 선택자나 유기자의 구별은 유기자의 일시적 신앙생활에 못을 박았고, 저들을 위선자라고 칭하였다(*Institutes*, III. 2-11). 칼뱅은 유기자와 선택자들의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대답한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과 일시적으로 믿음이 주어진 자들 사이에 상당한 유사함과 비슷한 점이 있지만, 오직 선택된 자들만이 확신을 가지고, 성장해 나갈 수 있다. . . .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원히 썩지 아니할 씨로 오직 선택된 자들만을 중생 시키시며(벧전 1:23), 그들 심령에 뿌려진 생명의 씨앗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양자의 은사로 그들 속에 확고히 봉함 하시며, 그것은 확고하고 분명할 것이다(*Institutes*, III. 2-11).

유기자들도 그들에게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이 화목의 선물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혼동하고 분명한 깨달음이 없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진 그와 같은 믿음이나 중생에 참여한 자들이 아니다. 그러나 위선의 가리개 아래서, 그들은 그들과 공통의 믿음의 원칙을 갖는 것 같다. 이러한 정도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심령에 조명을 하신다는 것과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지한다는 것을 결코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들에게 주신 특별한 증거와 구별한다는 확증과 유기자들은 결단코 충분한 결과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도 부인하지 못한다(*Institutes*, III. 2-11).

여기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유기자들도 선택된 자들과 같이 분명히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데, 그것은 일시적이며, 위선적이라는 것이다. 환언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보편적 지식에 대한 조명하심으로 누구나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믿음을 가질 수 있으나, 오직 선택된 자에게만 성령께서 구원의 확증과 확신을 주신다는 것이며, 유기자들은 결국 어느 시점에 이르면, 타락하고 말 것이라는 견해인 것이다. 칼뱅에게 있어서, 인간의 이성이나 자유의 지는 인간적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는 인 본위 신앙이므로 이를 철저

히 배제하고 하나님의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철저한 신본위 신앙을 주장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칼뱅의 조명론은 구원하는 믿음을 이원화시키는 모순을 낳고 있다. 구원하는 믿음을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신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동의)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롬 10:9-10)하신 말씀 속에 있다고 볼 때, 인간 이성에 의한 자율적 선택에 의한 불완전한 믿음과 성령의 조명에 의한 완전한 믿음으로 이분화 시킬 수 없다.

신자가 믿다가 타락하기까지는 선택된 자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방법이 없고, 또 그가 탕아와 같이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도 선택된 자의 규정을 정할 수 없고, 신앙의 결과로서만 알 수 있다고 볼 때, 칼뱅의 조명론은 결과론에 근거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킨 남은 자에서 출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칼뱅의 조명론에서 제시된 요한복음 14장 26절, 16장 13절, 마태복음 10장 19-20절의 말씀들은 사도들에게 국한된 말씀들이며, 모든 성도들에게 확대된 약속으로 볼 수 없다. 만일 이 말씀들을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시킨다면, 우리는 결코 교리적 논란으로 다투지 않아도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 볼 때, 칼뱅의 제한 구속론이나 성도의 견인론은 구원론에 의한 필연적 결과라기보다는 결과론에 의한 귀결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인간의 선택과 유기는 인간이 범함 죄에 근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행사에 근거한 신권을 옹호한다기보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의 겸손한 신앙고백에서 나온다고 할 것이다.

### 3. 조명론을 반대하는 주장

성령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지식은 성경을 통해서라고 주장된다.

- a. 완전타락은 비성경적이다. 죄인의 소경됨은 의지적 행동이다(롬



1:18).

b. 요한복음 14장 26절과 16장 13절, 마태복음 10장 19-20절의 말씀들은 사도들에게 주신 약속들이었다.

c. 예레미야서 31장 31-34절

d.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의 해석

일반적인 견해에서 “기름부음”(krisma)은 성령을 말한다. 만약 “기름부음”이 성령을 말한 것이라면, 그것은 조명론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직접계시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식이 신자에게 “기름부음”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오고 있고, 성도들이나 신학자들 사이에 믿음은 통일되어 있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해석하는데도 해석상의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성령의 조명과 직접계시 또는 직접가르침을 인정한다면, 신자들 사이의 성경해석상의 견해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만약 “기름부음”이 직접계시를 말한 것이면 성경은 필요 없게 된다. 그러므로 성령의 기적적인 은사들은 초대교회의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제한되어진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기름부음”은 성령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말한 것이다. 27절을 보면, “기름부음”이 지식의 범주 안에 있는 것 같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 본문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으로써 말씀하고 있다(요일 2:14,24; 요이 2; 요 5:38, 15:7; 골 3:16 참고). 또 우리는 그의 말씀 안에 거한다(요 8:31; 딤후 3:14; 요일 2:27 참고).

요한일서는 영지주의(비밀지식)를 반박하기 위한 글이다(22절). 따라서 2장 20-27절은 참된 진리와 거짓 진리에 관해 밝히고 있다.

14절 -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27절 -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21절 -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22절 -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 . . 적그리스도니

24절 -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26절 -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e.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지혜를 구

할 수 있다(약 1:5). 지혜는 지식과 동일하지 않다. 우리는 지식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위해 기도한다. 우리가 이미 아는 것을 구별하고, 적절한 사용을 위한 기술과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빌 1:9-10; 골 1:9; 엡 1:17-18).

이것이 성령의 내주 동거의 결과는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 주시기 위해서 관여하시는 단순한 하나님의 일반적 섭리의 측면일 뿐이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섭리적인 관여이다(히 5:11이하; 엡 4:11; 고전 12:28; 행 8:30-31).

이것은 새 지식에 대한 즉각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보다 현명하게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생각들을 질서 정연하게 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이미 직면한 사고들을 생각나게 도우시며, 우리들을 도울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며, 또한 다른 사람들을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등의 섭리를 통해서 도우신다. 하나님은 기적보다는 주변의 사람이나 환경을 이용하여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한결 쉽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행 8:30-31; 롬 8:29 참고).

## 4. 구약에서의 성령의 역할

### A. 성령과 창조

#### 1. 자연의 창조

창세기 1장 2절은 우주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신”이 계셨고, “운행”하고 계셨다고 적고 있다. 여기서 하나님(Elohim)은 복수명사이지만, 단수동사를 받고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역사를 보여준다. “운행”(hovering)의 뜻은 성령께서 생명을 부여하실 준비를 갖추시고 임(臨)하여 계심을 뜻한다. “운행”이란 말은 마치 암탉이 알을 품고 부화를 기다릴 때 갖는 주의력과 긴장을 기술하는 말이다. “운행”(hovering)의 숨겨진 뜻은 조심, 경계, 관여, 관심이다(욥 26:13; 사 40:12-13; 시 33:6; 비교: 욥 33:4; 시

104:29-30).

## 2. 인간의 창조

창세기 1장 26절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 .”라고 적고 있다. 또 창세기 2장 7절은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고 적고 있다. 여기서 생기를 불어 넣는 행동이 성령의 활동이다(욥 33:4 참고). “생기”는 성령이 아니다. 생기(breath of life)는 neshamah 즉 생물의 호흡을 말한다. 이 말씀은 성령이 생명(자연 또는 육체의 생명까지도)의 수여자이심을 강조한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생명 즉 자신의 호흡을 하나님의 (아마 하나님인 성령) 특별한 창조적 활동에 의해서 수여 받았다(겔 37:14 참고). 위의 두 성경구절에 근거해서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성령을 주셨으나 인간의 범죄로 성령을 상실하였고, 전체 구원의 계획은 인간에게 성령을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교리는 비성경적이다.

## B. 성령과 섭리

1. 자연에서 - 시 139:7-16. 성령의 무소부재.
2. 역사에서 - 창 6:3; 스펀 4:6; 시 143:10.

## C. 구속 역사 속에서의 성령

1. 일반적인 의미 (이스라엘과의 상호작용) - 학 2:5; 느 9:20,30; 사 63:10,11,14; 사 30:1
2. 특별한 의미 (이스라엘 안에서의 특별한 역할을 위해 개개인을 도구화)
 

성령의 도구화는 두 사역과 두 분야로 나뉜다. 먼저 두 사역들에는 예언자, 사사, 솔로몬, 기능공에서 보듯이 사역을 위한 도구화와 모세와 엘리야에서 보듯이 권능의 사역으로 나뉜다. 또 두 분야는 설교, 방언, 예언, 기능처럼 지식과 신유와 기적처럼 권능으로

나뉘진다.

a. 성령께서 예언자들에게 방언(ecstatic utterances or possession, 삼상 10:6,10; 16:13; 19:20; 민 24:2 참조), 환상(겔 3:14; 8:3; 11:1; 11:24; 37:1; 43:5), 영감과 계시(삼하 22:2; 대상 12:18; 대하 15:1; 20:14; 24:20; 사 59:21; 겔 2:2; 미 3; 느 9:20,30; 단 1:17)로 역사하셨다.

b. 성령께서 사사(판관)들을(신 34:9참조) 자격을 갖춘 지도자로 도구화시키셨다(삿 3:10; 6:34; 11:29; 13:25; 14:6,19; 15:14). 이들 사사들은 특별한 직책 수행을 위해서 도구화되었다.

c. 성령께서 기능공들을 도구화시키셔서 아론의 옷(거룩한 옷)을 만들고(출 28:1-43), 성막(출 31:1-11; 35:30-36:1)과 성전(왕상 7:13-51)을 건축하도록 도구화시키셨다. 이것은 그들에게 기적적인 권능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특별한 기능을 성령으로부터 부여받았음을 말한다. 성령께서 전혀 없는 기능을 그들에게 부여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기능을 하나님을 위해 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셔서 향상시키셨다는 뜻이다.

d. 성령께서는 그 밖의 지도자들 즉 요셉(창 41:38), 모세(민 11:17, 25), 모세의 조력자들(민 11:16-17, 25이하), 여호수아(신 34:9; 민 27:18-20) 및 다윗(삼상 16:13-14)을 도구화시키셨다. 칠십 인의 모세의 조력자들은 지혜와 재판능력, 지도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지, 기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었다. 이들은 일시적이거나 예언(방언)을 하였다. 그리고 다시는 예언을 하지 않았다. 왜 그들은 예언을 했는가? 유명한 구약주석 Keil과 Delitzsch에서는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하나님은 이들 칠십 인을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도록 도구화시키셨다. 이들 칠십 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된 지도자라는 것이 입증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증거적인 현시가 필요했다. 예언은 여기서 증거적이며 일시적이고 눈에 보이는 입증으로 나타났다.

3. 구약시대에 개개인에게 주어진 성령이 도덕적, 윤리적, 영적 능력의 근원에서 비롯된 것인가? 일부 학자들(Morris, Carter, Wood)은 그렇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

a. 구약시대에 성령의 사역은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백성을 도구

화(empowering or equipping power)시키는 것이었다. 성령은 개개인을 외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도구화시키셨으며, 그들을 종으로 또는 도구로 쓰셨다. 그러나 내주 동거의 임재나 심령에 미치는 내적 영향은 없었다. 성령의 역사는 구약시대에 ON(empowering or equipping power)의 역사만 있었고, IN(indwelling)의 역사가 없었으며, IN의 역사는 신약시대만의 독특한 역사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편 51편 11절과 사무엘상 10장 6절은 성령의 내주 동거 임재를 말하지 않는다. 율법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 능력의 근원으로써 성령을 선물로 받지 않았다. 그 이유는 민족구성원 전체가 선민공동체에 소속되어 율법의 언약아래 있었기 때문이었다.

b. 성령의 IN(indwelling)의 역사는 신약시대만의 독특한 역사로 나타났다. 신약시대에 주시는 성령의 내주 동거의 임재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화의 역사 이외에도 이방민족들과 이방문화들 속에서 기독교신앙인으로서 승리할 수 있는 도덕적 윤리적 영적 능력을 증원키 위함이다.

c. 성령의 재창조의 역사 즉 인간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중생의 권능은 메시아의 시대를 가리키는 예언의 말씀 속에 있다(겔 36:27; 39:29; 사 44:3; 32:15; 요엘 2:28-29; 슥 12:10 참조). 요한복음 7장 37-39절을 참고하시오.

#### 4. 정리 (구약시대의 성령)

a. 성령은 이스라엘 안에서 전체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b. 성령은 내적으로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봉사를 위한 도구화의 목적으로 주어졌다.

c. 성령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주어졌다.

d. 은사는 일시적이었으며, 개인의 사역기간까지만 존속하였다.

삼상 10:10 -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므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삼상 16:14 - “여호와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삼상 16:13 -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 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와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시 51:11 -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e. 때때로 은사는 기적적인 표적을 동반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일시적이었다(민 11:25).

f.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신자라야 할 필요가 없었다(민 24:2; 삼상 19:20-23 참조).

g. 성령은 주의 종(안수자)에 의해서 주어졌는가? 때로는 안수에 의해서, 대로는 안수 없이도 주어졌다(민 11:35이하; 삼상 10:1이하; 16:13; 왕하 2:9-15).

## 5. 성령과 그리스도의 삶

성령께서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부터 잉태, 출생, 유년, 침례, 공생애, 죽음, 부활, 승천에 이르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하시고 개입하셨다. 특히 누가는 이 점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잉태되신 때부터 부활승천하실 때까지 성령으로 충만하셨음을 강조하였다.

A. 예언 - 사 11:2; 42:1; 61:1.

B. 준비

1. 시므온에 주신 계시(눅 2:25-27)

2. 세례 요한의 출생

a. 부모가 성령으로 충만함(눅 1:41,67).

b. 요한은 출생 시부터 성령으로 충만하였다(눅 1:15).

C. 잉태 - 마 1:18; 눅 1:35

D. 침례 - 마 3:16; 막 1:10; 눅 3:22; 요 1:32-33

E. 사역

1.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충만하였다(눅 4:1; 4:18; 마 12:18).
2. 시험(마 4:1; 막 1:12; 눅 4:1).
3. 그리스도의 사역은 성령의 권능으로 시작되었다(눅 4:14).
4. 마귀를 쫓으심(마 12:28).

F. 죽음(히 9:14)

G. 부활(롬 8:11)

H. 대위임(행 1:2)

### 오순절의 축복은 성령의 은사들인가?

(글: Jack Cottrell, 역: 조동호 목사)

<"Are Miraculous Gifts the Blessing of Pentecost?" *Christian Standard*, May 9, 1982, pp. 9-11>

오순절! 성령에 관한한 우리 모두는 오순절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고 있다. 오순절 운동가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고, 은사를 주장하는 사람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다. 알렉산더 캠벨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었으며, J. W. 맥가비도 마찬가지였다. 이와 같이 우리 모든 환원운동 동지들도 오순절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다.

아니 정말 알고 있는가?

확실히 우리는 알고 있다. 오순절 날 성령께서 몇몇 사람들에게 권능을 부여하셔서 기적 같은 일을 행하도록 하셨다(이를테면, 방언말함). 그것이 다다. 이것이 오순절의 축복이다.

아니 정말 그런가?

필자는 오순절 날과 성령과의 관련에 대해서 특별히 말하고 있다. 필자가 쓰고 있는 이 글의 목적은 오순절의 본질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보자는 것이다. 오순절 운동가나 전통 보수주의자나 모두가 똑같이 오순절의 축복을 기적의 권능으로 동등시함으로써 오순절의 축복에 대한 핵심을 잡지 못해왔다.

이것이 두 가지 면에서 비극적인 효과를 가져다주었다. 첫째, 그것은 많은 신자들에게 성령의 은사는 모든 시대에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기대감을 갖도록 하였다. 둘째, 그것은 신약시대의 위대한 새 축복인 도덕적 (기적적인 것이 아님) 권능의 근원으로써 성령의 내주 동거의 축복을 간과토록 하였다.

논의의 요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오순절의 축복은 무언가 새로운 것이며, 성령의 은사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는 오순절의 축복이 아니었다.

## 1. 약속

좀 더 이점을 분명히 알아보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성령강림에 대한 두드러진 흐름의 예언들과 약속들을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약속은 불투명하거나 우연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실제로 오순절 날로 인도되는 강한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주요한 예언적 주제이다.

이사야 44장 3절은 이 약속에 대한 최초의 진술이다. “나는 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에스겔 36장 25-27절 또한 주목되어야 한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요엘 2장 28-29절도 놀라운 예언을 말씀하고 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 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이 주제가 신약에서도 계속된다.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11절



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실 것이요”(막 1:7-8; 눅 3:16 참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7-39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약속을 하셨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의 사적 담화에서 예수님은 성령의 오심이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될 것과 그들이 예수님께 갖는 독특한 관계와 교회에서의 그들의 권위적인 역할의 관점에서 그들을 위한 결과들을 갖게 될 것을 계시하셨다. (요한복음 14장 16,17,26절, 15장 26-27절, 16장 7-15절을 참조하시오. 우리는 이것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의 사적 대화인 점을 기억해야 한다. 계시와 영감에 관한 약속들은 그들에게만 홀로 지적된 것이었다.)

예수님은 승천 바로 직전 성령의 약속을 사도행전 1장 4-8절(눅 24:49 참고)에 기록된 대로 새롭게 하셨다.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당부하셨다. 예수님과 요한은 이미 이 약속을 성령과 동일시하였다.

## 2. 성취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대로 이 예언들과 약속들의 흐름은 오순절 날에 성취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오순절 운동가들이나 은사 주장자들은 어떻게 이 성취를 이해하고 있는가? 그들은 최우선적으로 이 성취를 기적적인 성령의 은사들, 특별히 방언 말함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들은 이들 성령의 은사들이 (특별히 방언 말함) 모든 시대의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다고 보고 있다.

환원 운동사에서 이 성취를 어떻게 전통적으로 이해해왔는가? 역시 기적적인 권능, 특히 방언 말함의 능력이란 의미에서 이 권능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이 언제나 부정된다. 이 권능은 엄격히 오순절에 (12사도 또는 120문도에게) 국한되며, 고넬료와 그의 가정은 예외로 본다. 오순절 축복은 그래서 오순절과 고넬료 가정에 내린 단 한 번의 사건 속에서 소멸된다.

필자의 주장은 이들 해석 모두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 모든 사람들이 오순절 약속의 본질을 성령의 은사로 보기 때문이다. 성령의 기적적인 은사들이 새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자는 이것을 주로 말한다. 그 반대로 성령의 내주 동거의 임재가 새로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에스겔 요엘 그리고 요한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은 수세기를 걸쳐 계속되어져 온 어떤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분명히 무언가 새로운 것이었다. 그것은 단지 성령의 은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성령 자신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었다. (에스겔 36장 27절과 요한복음 7장 37-39절을 참고하십시오.)

### 3. 성령을 선물로

구약의 신자들이 누리지 못했던 한 가지 축복은 하나님의 성령의 내주동거 즉 성화의 임재였다. 성령께서는 하나님 백성 중의 특정인들에게 사역 (봉사)에 필요한 기술이나 능력으로 도구화시키기 위해서 보내지셨다 (출애굽기 31장 1-5절, 민수기 11장 17절, 사사기 3장 10절, 사무엘상 16장 13절을 참고하십시오.) 이것은 오직 외적 임재였고 개인의 구원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지 않았다. (심지어는 불신자도 성령을 받을 수 있었다. 사무엘상 19장 20-24절을 보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사는 신자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은 성령의 내적 임재였다. (내주동거, 생명부여, 죄 말살, 영혼을 강건케 하는 성령의 은사, 고린도전서 6장 19절, 로마서 8장 13절, 에베소서 3장 16절,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시오.) 에스겔 36장 27절에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고 하신대로 이것이 약속의 본질이다. 예수님은 이것을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는 말씀으로 비교하셨다(요 7:38). 이것이 바로 참 오순절 능력, 선하게 하는 능력, 죄를 거절하는 능력, 담대히 말씀을 증거 하는 능력이다(행 1:8).

이것이 어떻게 오순절과 관련이 있는가? 이 날이 최초로 하나님의 백성이 내주 동거의 선물을 받은 날이다. 이 날이 바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날이다(행 2:16이하). 이 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고, 성령을 물 붓듯 부으신 날이다(행 2:33). 성령이 오셨다. 이 새로운 선물을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베드로는 누구든지 회개하고 침례를 받는 자는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을 확약하였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행 2:38-39; 5:32).

#### 4. 성령의 은사들이 아님

물론 오순절 날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났다. 방언 말함은 그들 가운데서도 가장 두드러진 것이었다. 그러나 수세기를 걸친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구화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있어서 성령께서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기적적인 능력들을 종들에게 부여하셨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는 대표적인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사도들이 이미 오순절 날 오래 전에 기적적인 능력을 부여 받았고 또한 70문도 역시도 성령의 권능의 역사를 이미 체험하였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마 10:1,8; 눅 10:9). 이와 같은 성령의 권능의 역사를 오순절의 본질로 보는 것은 약속의 성취에 대한 올바른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초대교회의 관점에서 볼 때, 성령의 권능의 역사는 크게 감소가 되어왔을 것이며 황금의 보물 상자를 열었을 때 그 안에서 몇 개의 젤리 구슬만 발견하는 것 같은 큰 실망이 되었을 것이다. (약속의 성취가 단지 두 번에만 제한된다면, 이 감소는 더욱 더 큰 폭이 될 것이다.)

그러나 오순절 날 기적들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만약 방언의 은사가 그 약속의 본질이 아니라면, 그러면 방언 말함

은 (또는 요엘이 그것을 부른 대로, 예언 - 행 2:17-18)의 목적은 무엇인가? 자, 이것은 그다지 어려운 질문일 수 없다. 기적의 목적은 무엇인가? 성서가 분명히 가르치는 대로 계시한 메시지나 진리 또는 확인되고 확정된 주장이 따르는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들에게 기적적인 권능을 부여하셨다. 그래서 기적은 표적이라고 불린다. (마가복음 2장 10절, 요한복음 20장 30-31절, 사도행전 2장 22절, 고린도후서 12장 12절, 히브리서 2장 3-4절을 참조하십시오.)

이것이 오순절 날의 방언 은사의 주요한 목적이다.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의 표적이었다. 여기서 방언의 은사는 성령께서 약속대로 오순절 날에 임재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었다. 방언의 은사는 보고 듣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의 표적 또는 증거였다. 이 괄목할만한 방언의 표적으로 아무도 성령께서 결국 임재 하셨다는 사실을 의심할 수 없었다. (마찬가지로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나중에 내린 방언도 성령께서 유대인은 물론 이방인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적인 것이었다. 사도행전 10장 44-46절을 보시오.)

오순절의 방언의 기능과 이 은사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민수기 11장 16-30절에 나타난 중요한 평행을 고려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를 도와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할 70인 장로를 뽑도록 지시하신다. 하나님은 특별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셨다(17절).

정한 날에 선택된 사람들이 장막에 모였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칠십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25절). 여기서 실제로 (사역을 위해 도구화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내린 것과 행위가 이룬 것을 하나의 표적으로 나타내 주는 기적적 예언 사이에 분명한 구분이 그어지고 있다. (26-27절은 예언의 기적적 성격을 제시한다. 사무엘상 10장 6-10절과 19장 20-24절도 또한 참고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강림의 모든 것이다. 요엘이 약속한대로 (욘 2:28; 행 2:17-18) 예언이 있었다. 이것은 방언의 은사였다. 그러나 방언의 은사는 오순절의 참된 선물인 성령님 자신과 관련해서 부수적인 것이고 증거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다.

이들 사실들에서 본 관점에서 필자는 질문을 던진다. 왜 오순절 날에 나타난 기적적 현상들이 새 시대의 성령충만의 본질로 생각되어지고 있는가? 이들은 전혀 새로운 것들이 아니다. 교회시대에 있어서 성령의 사역의 새로운 것이 무엇인가? 영력을 위한 (기적적 권능이 아닌) 성령의 내주 동거의 임재가 성령의 사역의 새로운 것이다. 이것이 복음서와 예언서에 나타난 모든 약속들의 요점이다. 기적의 수반은 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표적에 지나지 않는다. 방언의 은사와 같은 기적들이 사도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났는지의 문제는 예언들이나 오순절과는 아무런 관련도 갖지 않는다. 이 문제는 다른 신학적 토대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 6. 성령시대로서의 메시아시대

**A. 구약성경은 성령시대로서의 메시아시대에 대해서 예언해 놓고 있다 - 사 32:15, 44:3; 욘 2:28; 겔 36:27, 39:29; 슥 12:10.**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메시아시대(Olam Ha-Ba)를 빼앗긴 가나안 땅의 회복과 이스라엘국가의 주권회복의 시대로 본다. 이 시대에 성전과 성전예배가 재건되고 예루살렘과 유대교중심의 세계가 펼쳐질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를 주후 30년 5월 28일 오순절 날 성령강림으로 시작된 교회시대, 성령시대, 종말시대, 메시아시대로 이해하였다.

1. 성령은 범세계적인 선물이 될 것이다(요엘).
2. 성령은 내적 선물이 될 것이다(에스겔).
3. 요엘 2장 28절 이하의 말씀은 역사상의 결정적인 전환기를 내

다분 것 같다.

a. 28-29절은 긍정적인 면에서 주후 30년 5월 28일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을 의미한다.

b. 30절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주후 68-70(73)년의 예루살렘 멸망 사건(유대-로마전쟁)을 의미한다.

c. 31절은 남은 자의 구원을 의미한다.

**B. 새 언약시대는 언약의 내용을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하실 것이 예언되었다. - 렘 31:31이하; 고후 3:6-8.**

**C. 어떤 의미에서는 메시아 자신의 오심조차도 결정적인 두 시대 즉 율법시대와 성령시대(교회시대)의 가름이 아니었다. 그는 아직 도래하여야 할 새 시대 즉 성령시대(교회시대)를 지적해 주셨다.**

1. 성령세례 - 요 1:33; 마 3:11; 막 1:8; 눅 3:16; 행 1:5; 갈 3:2-5; 5:16-26; 고전 3:16-17; 롬 5:5; 8:1-11.

2. 세례의 종류는 다양하다.

a. 요한의 세례

성 격: 명령(눅 7:29-30)

목 적: 메시아의 예비(막 1:5)

행위자: 세례 요한(막 1:5)

받은자: 회개한 유대인(막 1:4-5). 그리스도인 침례와 무관하다.

요 소: 물

행 위: 침례(막 1:10; 요 3:23)

기 간: 십자가 이전까지(행 19:3-5)

b. 고난의 세례

성 격: 경험(막 10:38-39)

목 적: 구원(벧전 2:24; 고후 1:5-6), 영광(히 12:2; 딤후 2:12)

행위자: 악인(행 2:23; 딤후 3:1-2)  
받은자: 그리스도(막 10:38), 성도(막 10:39)  
요 소: 고난, 박해(막 10:39)  
행 위: 압도 됨(마 27:46,50)  
기 간: 십자가의 수난(마 27:50)에서 세상 끝까지(딤후 3:12)

c. 성령세례: 외적(ON)역사

성 격: 약속(행 1:4-5)  
목 적: 유대인 교회 창립(행 1:8; 요 16:13; 14:26; 고후 12:12), 이방인 교회 창립(행 11:15-18). 메시지와 메신저(선지자, 종, 예언자 등)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임을 입증키 위한 증거적 역사였다.  
행위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받은자: 사도들(행 2:1-4), 고넬료와 그의 가족(행 11:15-16), 스테반, 빌립. 사마리아인, 에베소의 열두 제자, 고린도인 등(행 6:8; 8:4이하; 19:1이하; 고전 12:1-12).  
행 위: 압도당함  
기 간: 두 번의 사건(행 2:4; 10:44-48. 이 역사는 누구의 안수나 기도 없이 직접 하늘로써 내린 성령 강림이었으며 그 증거로 방언이 표적으로 나타남.)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들(고전 12:1-12; 롬 12:3-8).

d. 성령세례: 내적(IN)역사

성 격: 약속(사 32:15; 44:3; 율 2:28; 겔 36:27; 39:29; 슥 12:10; 행 2:38)  
목 적: 구원과 성화  
행위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받은자: 모든 성도 (세례 받은 성도)  
요 소: 성령의 내주 동거의 임재(갈 3:2-5; 5:16-26; 고전 3:16-17; 롬 5:5; 8:1-11, 엡 1:14; 고후 5:5; 엡 4:30; 살전 5:19).  
행 위: 내주 동거의 임재  
기 간: 영원토록

e. 불세례

- 성 격: 경고(마 3:11-12)
- 목 적: 징벌(마 25:45-46; 계 20:10, 19:20)
- 행위자: 그리스도
- 받은자: 악인, 불신자(마 3:10; 살후 1:7-8)
- 요 소: 불(마 3:11)
- 행 위: 압도당함(계 20:15)
- 기 간: 영원토록(마 25:41)

f. 그리스도인의 세례

- 성 격: 명령(마 28:18-19; 행 2:38)
- 목 적: 죄 사함과 성령세례 (내주 동거의 임재: 행 2:38; 벧전 3:21). 침례는 죄인이 믿고 회개하여 죄 사함 받고 중생하는 시간이며, 초기성화와 성령을 선물로 받는 시간이다.
- 행위자: 제자들
- 받은자: 믿고 회개하고 고백한 자들
- 요 소: 물(행 8:36-39)
- 행 위: 수침(롬 6:3-5)
- 기 간: 세상 끝까지

3. 성령의 내주 동거 임재의 약속: 요 7:37-39(눅 11:13과 비교)

4. 요한복음 14-16장

5. 요한복음 20장 22절의 가능한 설명 -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a. 오순절 성령강림에 대한 상징적 예언(Butler, Robertson).

b. 중생과 성령의 내주 동거의 임재를 받음. 태초에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빚은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인간을 살아 움직이는 생령으로 만드신 것처럼(창 2:7) 예수님께서서도 ενεφυσήσατεν (breathed on, breathed in: 숨을 내쉬었다.) 하심으로써 새 시대에 새 삶을 부여하심.

c. 사도 직분을 위한 도구화 (사도 직분 임직식) - 모세가 여호수아



에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직분을 인계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도 직분을 임명하신 거룩한 예식.

#### **D. 성령의 임재는 “이 역사적 시대”의 특징적 사역일 뿐만 아니라, 종말론적 시대 그 자체의 특징적 사역이기도 하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가를 바로 밝히는 것이다(히 6:4-5; 고후 1:22; 5:5; 고전 15:44; 롬 8:11; 엡 1:14). 성도들은 이미 영원(“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하늘의 은사”를 체험하였다(히 6:4-5). 이것이 성령의 특별한 사역이다. 현 시대에서의 성령의 임재는 우리를 도래할 영원한 세계와 연결을 시켜주신다. 성령의 임재는 또한 현 시대를 종말론적 시대 그 자체로 만들고 있다. 성령은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시며(엡 1:14), 죄인인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보증으로써 성령을 또한 주시는 것이다(고후 5:5). 그러므로 현 시대는 내세의 전주곡이며, 우리는 이미 영원한 세계 즉 “내세의 능력”을 맛본 것이다. 성령을 구원의 보증으로 주셨다함은 곧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할부제로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할부로 받았고, 성령은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 신앙인으로서의 성실한 삶은 매월 갚아가는 할부금과 같다고 할 것이다.

### **7. 회심이전의 성령사역**

#### **A. 성령은 죄인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회심이전의 죄인의 심령 가운데서 역사하신다. (요한복음 16장 8-9절, 사도행전 7장 51절, 16장 14절을 보시오.)**

이 사역은 거절할 수 없는 절대적인 영향력 행사에 해당되거나 선택된 소수의 죄인에게만 미치는 성령의 내적증거(testimonium of the Holy Spirit)가 아니다.

#### **B. 어떻게 이것이 행하여지는가?**

1.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전파를 떠나서는 결코 이뤄지지 않는다(요 16:8-9; 행 7:51; 8:29이하).

성령은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를 이끄신다(요 6:44-45).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롬 1:16)이기 때문에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생긴다(롬 10:17). 또 죄인은 말씀의 능력(히 4:12)으로 중생에 이른다(약 1:18; 벰전 1:23).

2. 설리적인 방법으로 - 전도, 전도자, 친구, 금전 기타 많은 인위적인 방법을 통한 역사.

3. 방법이 어떤 것이던 간에 말씀은 항상 분명한 매체이며, 이것을 통해서 죄인을 주께로 인도한다. 요 6:44-45; 롬 1:16; 10:17; 약 1:18; 벰전 1:23; 고전 4:15; 히 4:12; 눅 8:11; 요 20:31.

### C. 피해야 할 두 가지 오류

1. 성령은 오직 말씀으로만 사역하신다는 주장은 잘못된 견해이다.
2. 성령의 사역은 완전 타락한 죄인이 거절할 수 없으며, 오직 선택된 소수에게만 미치는 성령의 내적 증거라는 주장은 잘못된 견해이다.

D. 사함 받지 못할 죄 - 성령 훼방 죄 (성령을 신성모독 하는 짓. 마 12:31) -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게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 1.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대한 견해들

a. 죽을 때까지 믿기를 거절하는 것이 사함 받지 못할 죄라는 주장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성령의 부르심을 죽기까지 거절하는 죄가 사함을 받지 못할 죄라는 주장은 잘못된 견해이다. 거절과 성령 훼방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고, 거절의 죄는 사함 받지 못할 죄가 아니라, 사함 받지 아니한 죄이기 때문이다.

b.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령의 분명한 증거에 대하여 그것이 사

실인줄 알면서도 고의적이고 공공연하게 언표(言表)한 거절이 사함 받지 못할 죄라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본문의 문맥과 일치한다. 신성모독이란 말은 단순히 마음에 품은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혀로 범한 죄를 말하기 때문이다. 말로써 표현한 죄가 아니면, 신성모독죄를 짓기는 불가능하다(Carl Ketcherside, *Heaven Help Us*, pp. 105이하). 신성모독은 공공연하게 언표(言表)된 것인 반면, 거절은 사함 받지 못할 죄가 아니라, 사함 받지 아니한 죄이기 때문이다.

c. 의식적이고 악의에 찬 뜻을 품은 거절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성령의 증거에 증거와 확증이 있는데도 중상 비방하는 죄라는 근본주의 견해(Luis Berkhof, *Systematic Theology*, p. 253이하)이다. 진실한 사실들을 오히려 사탄의 짓으로 돌리는 죄를 말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칼뱅주의 사상에 모순이 된다. 왜냐하면 객관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와 성령의 능력 있는 역사가 매우 강압적이어서 진실한 이의 거절은 불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또한 주관적으로는 성령의 내적 증거와 조명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진실한 거절은 불가능하다(거절할 수 없는 은혜). 만일 이를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사함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옥의 자식으로 예정된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올바른 견해라고 말할 수 없다.

## 2. 사함 받지 못하는 죄의 특별한 요소들

- a. 예수를 하나님과 구세주로서 거절하는 것.
- b. 성령의 분명한 증거 앞에서 예수를 거절하는 것.
- c. 심령과 마음으로 예수가 하나님이시오, 구세주이신 것을 알면서도 예수를 거절하는 것.
- d. 용서함을 원하지도 찾지도 않는 심령.
- e. 고의적으로 입술로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거짓 비방 등).

## 3. 다른 성구들과의 관계

- a. “성령을 근심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는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은 인격

이시며, 인간의 죄로 인하여 근심하신다).

b. 히브리서 6장 4-6절(“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과 10장 26절(“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의 말씀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해석들은 다음과 같다.

이들 성구들이 구원을 실제적으로 상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말한다는 주장이 있는가하면, 미완숙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5:11-14) 성숙해야 할 것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처벌과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언급한 가상적 논쟁이라는 주장이 있다. 또 다른 견해로는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배교로 인하여 참된 것이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신앙고백을 한 신앙인들을 말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 마지막 견해는 3-4장에 나타난 이스라엘 사람들의 광야에서의 반역에 근거를 둔 것이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소산을 맛본 후에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신앙고백을 한 개종한 유대인들도 만약 그들이 이전에 받은 ‘빛’을 왕강이 거부한다면 회개할 수 없을 것이다.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바 되고”라는 표현으로 보아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도 맛보고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겠다고 고백도 하였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공공연하게 그리스도를 최종적으로 거부할 위험이 있었고, 만약 그럴 경우 그것은 그들이 거듭나지 못했음을 나타낸다는 주장이다. 6절의 “타락한 자들은” ‘~하는 한’(if they fall away or while or as long as)으로 풀이될 수 있는 분사이다.

c. 요한일서 5장 16절 -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사도행전 5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비명횡사, 사도행전 12장 20-23절에 등장하는 아그립바 1세의 비극적인 죽음 및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언급된 고린도인들의 죽음이 “사망에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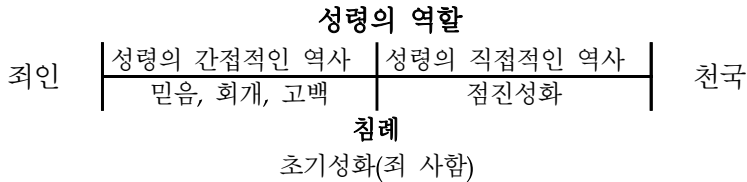
르는 죄"에 해당될 수 있다.

## 8. 회심중의 성령사역

### A. 회심과 구원의 성격

#### 1. 두 가지 사역의 구분

- a.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하셔야 할 일: 칭의, 중생 등.
- b.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조건들: 믿음, 회개, 침례.



2. 회심체험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해야 할 일에 관하여 성령의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 이중성격을 이해해야 한다.

- a. 죄인의 이중치료
  - 1) 유죄 - 약 2:10; 롬 1:18, 3:19
  - 2) 부패 - 마 12:33이하; 렘 17:9; 엡 2:1,5
- b. 하나님의 이중치료(겔 36:25-27; 요 3:5; 행 2:38 비교)
  - 1) 칭의
  - 2) 성화(중생)

#### 3. 중생의 성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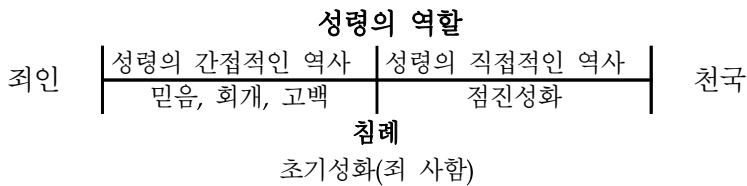
- a. 중생이란 무엇인가? 중생은 영혼 자체위에 행하여진 변화를 말한다.
- b. 이 사건의 성격을 나타내는 성경적 어휘들
  - 1) 부활(롬 6:1이하; 엡 2:6; 골 2:12, 3:1) -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이 문자 그대로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이다.

- 2) 중생 (딤후 3:5) - 새 출발, 거듭남을 말한다.
- 3) 새롭게 하심 (딤후 3:5; 엡 4:23).
- 4) 새 피조물 (고후 5:17; 갈 6:15; 엡 2:10).

c. 이것은 믿는 영혼 위에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성취된다. 이것은 말씀이나 말씀 속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성취되지 않는다. 이것은 믿음의 선조건 위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홀로 한 분에 의해서 성취된다.

- 1) 중생의 본질 - 영적 죽음에서의 부활. 골 2:11-13; 엡 2:5; 요일 3:14 요 5:25; 롬 6:4이하를 보시오.
- 2) 성령은 생명의 근원이시요 수여자이시다. 롬 8:2,6,11,13; 고후 3:6; 요 6:63; 고전 15:45; 갈 6:8.
- 3) 성령은 중생을 이루신다. 딤후 3:5("through washing of regeneration and renewal by the Holy Spirit"); 요 3:5; 행 2:38.

**B. 어떻게 회심중의 성령사역과 회심이전의 성령사역이 다른가?**



1. ‘회심이전의 성령사역’은 성령께서 죄인이 믿음을 갖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의 문제였다. 해답은 성령께서는 언제나 수단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었다.
  - a. 제1차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 b. 제2차 수단은 섭리적인 활동이다.
  
2. ‘회심중의 성령사역’은 성령께서 믿음을 가진 죄인을 어떻게 중생시키시는가의 문제였다. 일단 믿음을 가진 죄인이 중생을 받기 위해서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였다.

a. 일부 학자들은 믿음 그 자체만으로도 중생을 생산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한다. 중생은 믿음에서 발산되거나 믿음에서 발전된다고 말한다. 성령의 기여는 말씀이다. 일단 말씀이 믿음을 생산하면 중생이 즉시 뒤따른다고 주장한다. 깰 수 없는 과정은 성령→말씀→믿음→중생의 순이다. (알렉산더 캠벨, *A Symposium on the Holy Spirit*, pp. 118, 120, 130이하, 140, 154.)

b. 다른 학자들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죄인의 마음에 미치는 영향 말고도, 중생은 성령께서 죄인의 마음에 직접적으로 이루시는 역사(役事)라고 말한다. 육체의 질병은 약으로 치료되는 것이지 자기 자신의 믿음만으로 치료되는 것이 아니다. 성령은 죄인의 무의식과 그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서 그의 영혼에 역사(役事)하시는 양약이시다. 그러나 그 역사는 효력이 강하여서 그의 부패함을 치료하시고 그의 죄를 사하신다. 비록 죄인이 이 사실을 의식치 못한다할 지라도 성령은 그에게 생명 즉 중생을 부여하신다.

### C. 왜 중생은 성령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성취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으로 효능에 의해서는 성취되지 않는가?

1. 만약 성령이 오직 말씀으로만 중생시킨다면, 메시아시대의 성령의 새로운 문제를 드러내게 된다.

a. 무엇이 새로운 것인가? 그것은 기적적인 능력들 이상의 것이 틀림없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구약시대에도 존재했었던 것들이기 때문이다.

b. 새로운 것은 틀림없이 새로운 계시 이상의 것이다.

c. 새로운 것은 중생, 성령의 내주 동거가 틀림없다. 만약 말씀 하나만으로 이것을 성취할 수 있었다면, 왜 이것이 구약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았겠는가?

2. 말씀을 통한 중생은 하나님에 의해서 성취되는 무엇으로써 중생에 관한 신약의 가르침(思考)을 정당한 것으로 만들지 않는다.

a.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신들의 마음이 그것을 수용할 때만, 그리고 우리 자신들의 의지가 그것에 응답할 때만 무언가에 효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말씀의 효능은 우리 자신의 의지에 무언가를 성취하도록 동기를 유발하는 것이다. 말씀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은 무엇든지 하나님의 행동이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결국 우리의 의지에 미친 영향에 의한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중생시키고 죽음에서 일으키며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것이 될 것이다.

b.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중생을 성령의 행위로 만든다(요 1:13; 골 2:12; 딤후 3:5 참고).

3. 만약 중생이 마음에 미친 진리의 영향에 의한 것뿐이라면, 그것은 그 진리를 믿는 것에 의해서만 성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성경에서 그것은 명령에 응한 믿음의 결과로써 주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만약 진리가 효과를 갖는 것이라면, 그것은 어떤 행위가 수행되기까지 기다려야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것은 어떤 요구나 응답의 조건으로써 주어지는 선물로 받아드려질 수 없다(눅 11:13; 행 5:32 참고).

4. 좀 더 상세하게 말하자면, 만약 중생이 말씀에 의해서 성취된다면, 말씀이 믿음을 낳게 하는 순간 깨질 수 없는 어떤 결과가 틀림없이 생긴다.

만약 중생이 “진리가 가져다 준 영향들을” 통해서만 성취된다면, 그것은 진리가 이해되고 믿어지게 될 때 틀림없이 이뤄진다. 이것은 중생이 침례받기 전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과 중생과 침례를 연관시킬 아무런 필요성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성경은 중생이 침례와 연관이 있다고 말한다. 또 중생이 침례를 받는 시간에 일어난다고 말한다. 이것은 중생이 말씀 한 가지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 이상의 어떤 것임을 틀림없이 보여준다.

5. 성령이 인간의 심령에 직접적으로 역사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그는 이것을 계시나 영감 안에서 또는 기적적인 능력에 의해서 행하신다. 또 성령이 오직 말씀으로만 수단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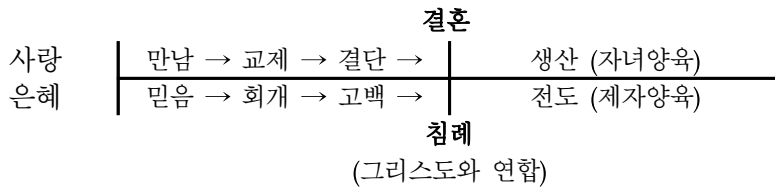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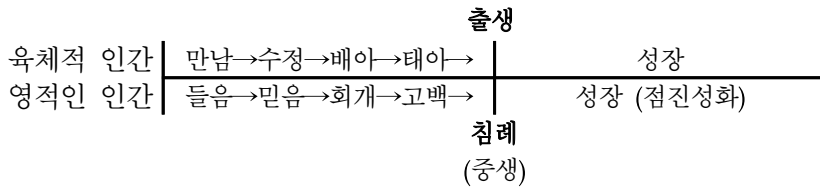


써 역사해야할 필요성도 본질적으로 없다. 예를 들면, 성령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그의 권능도 몸의 부활 가운데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지(롬 8:11) 말씀을 통해서 만든 아니다.

**D. 중생이 침례 때 회개한 심령에 성령의 직접적인 사역에 의해서 성취된다할지라도 그 사실에 대한 지식과 의식은 말씀만을 통해서 온다.**

**E. 말씀은 중생의 과정에 있어서 한 가지 역할을 담당한다. 그것은 우리들을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이 믿음은 중생에 필요한 조건이다(약 1:18; 벰전 1:23).**

**F. 중생은 정확히 언제 성취되는가? - 침례 때에**



1. 중생은 침례를 받는 동안 일어난다(롬 6:30이하; 골 2:12; 딤후 3:5; 요 3:5).
2. 침례를 받는 동안 성령도 선물로 주어진다.
  - a. 침례를 받는 것과 성령을 선물로 받는 시간을 분리해서 보는 것이 기독교계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1) 어떤 학자들은 성령이 침례받기 전에 주어진다고 주장한다(칼뱅주의, 침례교인).

2) 다른 학자들은 침례 후에 특별한 방법으로 성령이 주어진다고 말한다(웨슬리언파, 성결과, 오순절파).

b. 성경에 의하면, 성령은 침례를 받는 동안 주어진다. 또는 밀접한 관련 속에서 즉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일과 침례를 통한 죄 사함을 얻는 시간을 한 행위로 보고 있다.

c. 사도행전 2장 38-39절 - 행 3:19, 5:32; 요 3:5; 딤후 3:5; 고전 6:11; 행 9:12,17-18과 비교하십시오.

3. 침례와 관계없이 성령이 주어진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례들은 무엇인가?(2:10이하, 8:14이하, 10:44이하, 19:10이하 참고).

a. 성령론을 작성함에 있어서 역사 속에서 일어난 현상에 집중할 역사적인 이야기들보다는 역사 속에서 일어난 현상의 의미를 설명한 성경의 교훈적이고 교리적인 부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b. 사도행전에 언급된 사례들은 특별한 경우이며, 성령의 구속사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들 네 번의 사례들은 성령의 외적(ON) 역사 또는 성령의 은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종들을 쓰시기 위한 도구화의 목적이나 증거적인 표적으로 주신 사례들이다. (구약에서의 성령의 사역과 비교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령의 내적(IN) 역사 즉 성령의 내주 동거의 임재를 말한다.

c.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강림의 네 번의 사례에 대한 설명.

1) 사도들의 안수 없이 하늘로써 직접 내린 성령강림

a) 오순절 성령강림

장소: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행각, 눅 24:52-53; 행 2:46; 3:1, 5:12,42).

목적: 유대인 교회 창립

표적: 증거적 방언

b) 고넬료 가정에 내린 성령강림

장소: 가이사라

목적: 이방인 교회 창립

표적: 증거적 방언

2) 사도들의 안수를 받아 내린 성령강림

a) 사마리아인 교회에 내린 성령강림

목적: 도구화

표적: 방언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방언이나 예언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b) 에베소의 열두 제자에게 내린 성령강림

목적: 바울의 메시지의 진실성을 증명하기 위함.

표적: 방언

**G. 침례 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을 성령 총만 또는 성령세례라 한다(고전 12:13, 6:11).**

1. 예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 약속되었다(마 3:11; 막 1:8; 눅 3:16; 요 1:33; 행 1:4-5, 11:16).

2. 일부 학자들은 이 약속을 몇몇 특정인에게 제한하며, 회심 후에 꼭 받아야 할 것으로 말하기도 한다.

a. 일부 학자들은 열두 사도와 고넬료 가정에만 이 약속을 제한한다.

b. 다른 사람들은 회심 후의 체험으로써 선택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제한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그러나 신약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가르친다(고전 6:11, 12:13).

## 9. 회심후의 성령사역 ■ 성령의 성화사역

**A.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성령의 지속적인 내주동거 임재의 사실.**

1. 요한 7:37-39; 고전 6:19; 롬 8:9-11; 갈 4:6; 고후 1:22-23; 딤후 1:14; 요일

3:24; 겔 32:27

## 2.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가?

a. 성령께서 말씀의 수단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주장 - NO. 이것이 사실이라면, 구약시대와 다를 바가 전혀 없다.

b. 성령께서 실제로 개인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주장 -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인의 심령 속에 의도적으로 구속적으로 거하신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무소부재의 속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때 인간의 영혼은 성령의 중생과 성화에 있어서 수동적인 태도를 취한다고 볼 수 있다.

## B. 성령의 내주 동거 임재의 목적: 성화

### 1. 성화의 두 측면

a. “따로 세움” - 초기 성화(고전 6:11).

b. “거룩하게 만듦” - 점진적 혹은 지속적인 성화(살전 5:23; 벧전 1:15-16).

### 2. 우리의 성화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

a. 간접적으로 -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종류의 삶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신다.

b. 직접적으로 - 성령께서 우리의 이지에 작용하셔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올바른 삶을 살도록 영적 힘과 도덕적 힘을 부여하신다 (롬 7:19; 빌 2:13; 엡 3:16; 롬 8:13; 갈 5:22-23; 고전 12:3)..

c.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의 의지에 강권을 쓰시지 않으시며 단순히 도우실 뿐이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고 안 따르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다.

## C. 성령의 성화 사역에 관한 성경적 서술

1.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롬 8:14; 갈 5:18).

- a.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걷는다(갈 5:16; 롬 8:4).
- b. 우리는 성령의 발자취를 따른다(갈 5:25).
- c. 두 가지 극단
  - 1) 성령의 내주 동거 임재를 부정하는 오직 말씀만을 주장하는 견해.
  - 2) 성령께서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다고 믿는 성령의 직접 인도를 주장하는 견해.
2. 성령은 유혹과 죄를 거절하도록 도우신다(롬 8:13; 고전 10:13; 요일 4:4).
3. 성령은 우리의 삶 속에서 성결의 열매를 생산하신다(갈 5:22-23).
4. 성령은 기도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신다(롬 8:26-27). (롬 8:15-16; 갈 4:6과 비교하십시오.)
5. 성령은 우리의 생각을 조절하도록 도우신다(빌 4:8; 골 3:1-2; 롬 8:5-9).
6. 성령은 우리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감사하도록 도우신다(롬 5:5; 엡 3:16-19).
7. 성령은 우리의 재능과 은사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또 복음의 청지기 직분 수행에 있어서 믿음을 지키도록 도우신다(딤후 1:14). (딤후 6:20; 딤후 1:6,12과 비교하십시오.)

### 성령의 인도하심(1)

(글: Lynn Gardner, 역: 조동호 목사)

<"No contradiction with Scripture will be found in one who is Led by the Spirit," *Christian Standard*, October 3, 1976, pp. 899-900.>

몇 년 전 작은 교회의 30여명의 교인이 직업을 버리고 미국

Kansas 마을에 있는 그들의 집을 떠났다. 그리고 그들은 200마일 밖으로 이사하였다. 그 집단의 한 사람이 설명하기를, “우리는 성령님의 지도력에 복종하였다. 당신은 그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심지어 평범한 출석교인들에게조차도 그것을 설명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것이 신약성경에 나타난 성령에 의하여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의미인가? 우리는 성령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고 무엇을 하실 수 없는지를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그리고 우리 안에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연구해 볼 수 있다. 우리는 우리가 말하지 않은 것을 말한 사람들의 보도를 인정하지 않는다. 틀림없이 성령께서도 그가 잘못 오도되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지 않으실 것이다.

신약성경의 두 곳에서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이란 표현을 썼다. 로마서 8장 4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롬 8:14)고 하였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비교하면서,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아래 있지 아니하리라”(갈 5:18)고 하셨다. 이 글의 목적은 이들 성구들의 “성령의 인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자 하는데 있다. 먼저 부적당한 견해에 대해서 논하고 나서 바울이 의미한 “성령의 인도”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부적당한 견해

일부 학자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몇몇 선택된 영적인 사람들에게 제한하려고 한다. 그러나 로마서 8장 14절에서 바울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의 문맥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에 의하여 자유함을 받는 모든 자들임을 지적하고 있다(5:1). 이들 두 구절의 말씀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하나의 특색으로써 언급하고 있으며, 그것이 일

부 특정인의 특권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특별한 경우나 위험한 시기 또는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의 경우에만 국한하는 것으로 제한하고자 한다. 한 사람이 말하기를, 성령께서 여행 중에 휴식을 취하도록 멈추라고 인도하셨다고 했다. 그의 휴식을 위한 멈춤이 그로 하여금 사고를 막도록 도와주었다. 이것이 만일 그가 사고를 만났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는 뜻인가? 의심할 바 없이 하나님께서는 여행의 안전과 다른 상황에서의 안전을 비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그러나 William Hendriksen이 관찰한 바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은 “중대한 요구나 위협의 순간에 그때그때 그들의 삶속에 주입되는” 간혹 가다 한 번씩 일어나는 영향이 아니다(*New Testament Commentary: Exposition of Galatians*, p. 216). 로마서 8장과 갈라디아서 5장 모두에서 동사의 현재시제로 쓰인 “성령의 인도”하심은 계속적인 활동을 시사한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꾸준하고 지속적이다.

오늘날 성령의 인도하심을 요구하는 많은 사람들은 성령께서 초대 교회 당시에 사도들을 인도하심과 같은 방법으로 그들을 인도하신다고 주장한다. 예수님은 성령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요 16:13; 마 10:19,20; 요 14:26, 15:26을 비교하시오). Leon Morris는 “온갖 종류의 상황에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현장을 이 말씀이 제시한다.”고 주장하면서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였다. 그는 설교 장소와 설교 시간에 관한 성령의 인도를 지적하는 몇몇 사례들을 사도행전에서 찾아 제시하였다(2:4, 15:28, 16:6이하). 그는 계속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리고 이들 경험들은 수세기를 통해서 남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반복되어왔다.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는 정말 우리가 가야할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신다. 그는 우리가 그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꼭 주신다(*The Spirit of the Living God*, Inter Varsity Press, p. 79).

상기한 요한복음 16장 13절과 다른 성구들은 예수님께서 사도들에

게 주실 성령의 영감을 약속하신 말씀이다. 사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통하여 주신 계시를 받기로 되어있었다. 사도행전에서 언급된 사례들에서 볼 때, 성령께서는 정말 사도들에게 직접적인 인도하심을 주셨다. 새 언약의 계시를 받음에 있어서 사도들이 갖는 초자연적인 성령의 도움에 관하여 그들에게 주신 약속을 취하는 것과 그것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부적당하다.

내적 충동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동일시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진실한 젊은이들이 선교사가 되거나 성령이 없는 곳에 가서 번역사역을 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으로 느꼈다가도 그들이 임무수행에 부적당하기 때문에 그만두게 된다. 그러면 그들이 잘못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는가? 교회 프로그램을 맡은 어떤 사람이 성령께서 그것을 포함시키지 말라고 그에게 말했다기 때문에 프로그램에서 한 가지 순서를 빼다. 어떻게 그가 성령이 그에게 그렇게 말했는지를 알았는가? Mel Tari는 *Like a Mighty Wind*에서 말하기를 인도네시아 부흥집회에서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게 개개인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한다. 그는 말하기를 만약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우리는 음성도 듣고 환상도 볼 것이라고 한다(pp. 137-145). 이것이 바울이 말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관한 뜻인가?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J. I. Packer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인도함을 받은 것 같다”는 “나의 감정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정도의 의미일는지 모른다. 그리고 감정들은 악명 높게도 그리스도인의 형성에 있어서 가장 최소로 성화되고 믿을만한 요소이다. 감정들의 힘 또는 기대치 못한 점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불확실한 목록이다. 감정의 근원은 심리적이거나 심지어는 마귀의 작태일 수도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잔인성과 부정직, 간음, 자살 등으로 인도되는 느낌을 갖는 사례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다("Led by the Spirit of God," *The Life of Faith*, May 26, 1966, p. 500).

감정들과 경험들은 그리스도인을 위한 규범적인 권위가 돼서는 안 된다. 우리는 약간의 객관적인 참고적 요점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내적 충동들은 우리들을 많은 잘못된 일들로 인도할지 모른다. 우리는 그것들을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부르면서 우리의 욕망을 성화시키는 위험을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주관적인 근거에 의해서만 판단을 내린다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으로부터의 교통과 마귀로부터의 교통 또는 심지어 자기 자신의 사고의 과정으로부터 구별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 우리의 주관적인 경험들을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광신주의는 우리가 성경표준에 의해서 종교적 경험을 진단하기를 거절할 때 생기는 것이다. Bernard Ramm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무리 인간이 비범한 경험을 했다하더라도, 아무리 그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주장한다할지라도, 아무리 그가 어떤 권능을 그것에서 빼낸다고 주장한다할지라도, 만약 그것이 성경에 따른 것이 아니면 그것은 성령에 의해서 발생한 체험이 아니다("The Holy Alliance," *His*. February, 1974, p. 15).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경험들을 성경의 빛에 복종시켜야 한다. 만약 경험이 성경에 맞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경험이 성령으로부터 도래한 것이 아니란 것과 그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바로 잡아야 한다. 이것을 하기를 원치 않는 자는 그의 경험을 비성경적인 것으로 만든다. 성경은 그의 최고의 권위이다.

참된 체험이 아닌 진짜 체험을 갖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환각은 그 사람에게는 진짜이지만 그것은 실제의 것에 대한 참된 기술은 아니다. 종교적인 체험은 그 사람에게는 진짜일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참된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다. 체험은 성경의 빛에서 해석되어야 하지, 체험에 대한 우리의 해석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또 하나의 의심스런 입장은 성격에 의한 계속적이고 직접적인 인도하심을 고집하는데 있다. John Scott는 다음과 같이 해설한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과감하게 주장하기를 “주님께서 이것을 하라고

내게 말씀하셨어.” 또는 “주님께서는 그것을 하도록 나를 부르셨어”라고 말하면서 마치 그들이 천국과 직통선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과 계속적인 전화통화를 나누고 있는 것처럼 말한다. 나는 그것을 믿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다른 사람들은 성경 구절들의 가장 그럴싸한 해석들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상세한 지도를 받은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 성경 구절들의 자연스러운 의미를 말짱하며 문맥을 무시하고 건전한 석의나 상식에 근거를 두지 아니한 아전인수 격의 해석을 자유자재로 한다(*Your Mind Matters*, Inter Varsity Press, p. 43).

하나님의 성령은 성경에서 온갖 종류의 상황에 적용할 일반적 원칙들을 드러내고 계신다. 그러나 그것은 매일 매일의 특정한 사례들에 대한 상세한 목록을 제시하지 않는다. 물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해에 의존하거나 우리 자신의 지혜에 대하여 자만해서는 안 된다. 야고보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대로 우리는 기도로써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1:5). 우리는 또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일부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생물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행동할 수 있기 전에 어떤 심리적 감명의 필요성을 고집하는 것은 현명치 못한 행동이나 행동하기를 꺼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Kenneth Pike는 예수의 달란트의 비유에서 무익한 종에 대한 설명에서 이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가 행한 유일한 잘못 하나는 그가 해야 할 일의 모형으로써 그에게 주어진 일반적인 명령을 받았을 때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는 인간처럼 행동하기를 거절하였고 그가 알아야 할 일의 세세한 내용을 판단하기를 거절하였다. 그 결과로써 그는 부덕한 사람 또는 사악한 사람으로 등급이 매겨졌다("Man or Robot," *Eternity*, February, 1964, p. 11).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역사 속에서 활동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섭리적으로 상황들을 명령하신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를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그가 우리를 도우시는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상식을 사용하기를 기

대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갖지 않은 분야에서는 결정에 있어서 심사숙고할 것을 기대하심으로써 도우신다.

또 하나의 부적당한 견해는 성령을 우리 인간의 영혼으로 대치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인간 자신을 말살하거나 제거하지 않으신다.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대로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은 자기의 삶을 이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하였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은 여전히 자신이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과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 “성령의 인도”는 “수동적인 무게의 끌어당김이나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 . . 성령에 의해서 결정된 궁극으로 활동적인 대행자의 인도를” 말한다(B. B. Warfield, *Biblical and Theological Studies*, quoted by John Gilmore, "How God Wants to Guide You," *Eternity*, January, 1973, p. 26).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영혼을 대치하지 않으신다. 성령은 독재자처럼 우리의 영혼에 군림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이기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욕망을 굴복시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 자진하여 우리의 의지를 복종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두 가지의 극단은 회피되어야 한다. 첫째는 신자의 심령에 내주하시는 개인의 내주 동거의 성령을 부정하고 오직 말씀만을 주장하는 견해이다. 성령은 신약성경과 동일시되고 있다. 이것은 차고 생명 없는 정통신학으로 귀착시킨다. 또 다른 극단은 성령께서 오늘날 개개인에게 직접 말씀하신다고 믿는 직접 인도를 주장하는 견해이다. 주관주의, 자만, 그리고 분단이 이 견해의 열매이다. 첫째 주장이 교리적으로 자기 의존에 빠진 반면, 둘째 주장은 경건에서 자기 의에 빠지고 있다.

이들 극단들은 개개의 것이 중요한 진리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유력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사라지지 않는다. 문제는 개인이나 그룹이 진리의 일부분을 다른 모든 것 위에 수직선상에 놓고 배타적인

주장을 하게 될 때에 생긴다. 만약 우리가 성경적인 성령의 인도하심이 객관적인 성경의 인도와 신자 내면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특성을 개발함에 있어서 주관적인 힘의 복돋음 모두를 포함한다고 고집한다면 우리는 이 두 극단을 피할 수 있다.

## 성령의 인도하심(2)

(글: Lynn Gardner, 역: 조동호 목사)

<"Both external teaching and internal power are made available to one Led by the Spirit," *Christian Standard*, October 10, 1976, pp. 922-924.>

성령께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인도하시는가를 고려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반적인 의지와 특별의지 사이를 구분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John Scott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의 "일반" 의지는 모든 시대에 모든 그의 백성들에게 미치는 뜻이기 때문에 일반의지라고 불린다. 한편 "특별" 의지는 특별한 시기에 특정인에게만 미치는 뜻이기 때문에 특별의지라 불린다(*Your Mind Matters*, Inter Varsity Press, 1972, p. 43).

하나님의 일반의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엇이 진리이고 거짓이며,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리하는데 관여한다. 그것은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된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반의지를 발견할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의 말씀을 읽고 이해할 것을 기대하신다. 우리는 성경해석상 반드시 필요한 원리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우리는 성경을 연구함에 있어서 기도하며 의논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이 뜻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Scott, *Your Mind Matters*, p. 44).

하나님의 특별의지는 그럼 어디서 찾을 것인가?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할 매일 매일의 모든 결정들에 특별한 해답을 주시지 않는다. 시편 32편 8-9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에

대한 약속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래서 재갈과 굴레에 의해서 인도되어야 하는 말이나 당나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나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식을 사용하기를 바라시며, 현명한 충고를 구하며 성경의 인도하심과 일치되는 선택을 내리려는 성실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신다.

Scott는 결혼 문제로 설명을 시도한다. 인간은 성경에서 결혼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그것은 전 생애의 헌신이며 일부일처의 관계이며 상호사랑과 나눔의 관계이다. 그러나 그 자신은 누구와 결혼할 것인지를 본인이 판단하여야 한다. 약혼한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 결혼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어떻게 그와 같은 결정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 상식을 사용함으로써 할 수 있다. 확실히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기도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모의 충고와 존경하는 이들의 상담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결국 결정은 자신이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정신작용을 통해서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을 믿어야 할 것이다(*Your Mind Matters*, p. 45).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갖지 못한 분야에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우리의 마음을 써야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비 영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겸손하게 또 성경말씀에 나타난 가치들, 우선순위들 그리고 표준들에 맞춰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 1. 성경

성령께서 성경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하는 것이 확실하다. “주의 말씀은 내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시 119:105). 영감으로 된 말씀은 무엇이 옳은가를 가르치고, 어디서 우리가 잘못되었는가를 보여 주며, 올바른 길로 돌아가도록 함으로써 우리를 바로 잡아주며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훈련하며 훈계하기에 적합하다(딤후 3:16-17). 하나님의 말씀은 깨끗하게 씻으며, 구원하며, 하나님이 우리가 가기를 바라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요 15:3; 17:17; 롬

1:16; 히 4:12; 약 1:18; 벧전 1:23).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되기를 원하셨던 진리가 성경에 쓰이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그의 진리를 계시하셨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성령의 인도하심의 수단이다. 성경의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어떠한 가치 있는 주장도 할 수 없다(요 6:63, 12:48).

성령께서는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가? 성령의 말씀의 조명이란 무슨 뜻인가? 우리는 성경의 구절들이나 말씀들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 성령의 직접적인 계시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그와 같은 계시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기적에 의해서 거짓 해석과 성령으로 영감 된 해석 사이에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입증되어야 하지 않을까? 원래의 계시가 해석을 필요로 한만큼 영감 된 해석도 해석이 필요치 않겠는가?

성령은 성경에서 그가 성경본문의 오류 없고 참된 의미를 계시하시겠다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하지 않으셨다. 만약 성령께서 약속하셨다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분분한 해석의 차이가 존재치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이성적인 동물로 만드셨고 그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주셨다. 우리는 저자가 의도한 뜻을 배우기 위해서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진리에 복종해야 한다.

메시지에 동감하거나 메신저에게 동감하는 사람은 그 메시지나 그 메신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 오십년간 한 남자와 결혼하여 살아온 여자가 전혀 모르는 사람보다 자기 남편이 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더욱 잘 해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성령을 자신의 심령의 성전에 모신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성경 속에서 성령께서 의도하시는 말씀을 더욱 잘 풀어 해석할 것이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진리로 영접하며 성경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려는 동감적인 시도를 한다. 하나님의 가치들과 표준들의 수용과 하나님의 성령에의 복종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그리스도 밖에서는 얻을 수 없는 신령한 지혜를 준다(엡 1:17-18; 빌 1:9; 골 1:9;

요일 2:27).

내 아내가 그녀가 쓴 편지 이상의 것인 것처럼 성령도 그와 같아서 신약성경에서 그로부터 우리가 받은 메시지 그 이상이다. 성령으로 영감 된 신약성경에서 우리는 성령의 내주 동거의 임재를 약속 받고 있다.

## 2. 성령의 열매

성령은 “육체의 사역에서” 돌아서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도우신다. 로마서 8장 14절과 갈라디아서 5장 18절의 두 구절에서 “성령의 인도”란 의미는 성령께서 정보를 실어온다는 뜻이 아니라, 성령께서 성격과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도우신다는 것을 본문의 문맥은 지적한다. 우리는 성령으로부터 어떤 놀라운 한 새로운 계시를 추구하기보다는 육체에 따른 삶에서 성령의 열매에 의해서 특징지어진 삶으로 도덕적인 발전을 위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추구해야 한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성화를 의미한다. William Hendriksen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심령 속에 작용하셔서 내주하는 죄의 권세를 더욱 더 꺾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계명의 길에서 즐거이 또 기쁘게 걸을 수 있도록 지도하시는 지속적이고 효과적이며 또한 유익한 성령의 영향력을 성령의 인도라 한다(*New Testament Commentary: Exposition of Galatians*, p. 217).

James Stewart는 성령의 인도하심의 참된 의미를 다음과 같이 보고 있다.

조용하고 꾸준하고 평범한 믿음생활 속에서 도덕적 수준들 위에서 작용하는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양자권에 대한 영혼의 비밀과 내적 확신 속에서 예수님께서 소유하셨던 사랑과 기쁨 그리고 평화와 인내와 성품 속에서(*A New Man in Christ*, London: Hodder and Stoughton Ltd., 1935, pp. 308-309).

갈라디아서 5장 16-25절에서 바울은 육과 성령 사이의 갈등을 취급하고 있다. 여기서 바울은 인간의 신체적 욕신이 아니고 이기적으로 사는 인간의 본성을 뜻하는 “육”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다. Barclay가 말한 대로 “육은 하나님과 먼 사람이다”(The Mind of St. Paul, Harper and Brothers, 1958, p. 204). 바울은 도전적으로,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 하리라”고 말한다(갈 5:16). 이기적인 삶은 그리스도에게 복종한 삶과 갈등을 이룬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바가 되면 율법아래 있지 아니라”(갈 5:18).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즉 육체의 사역을 극복하고(5:19-21)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때(5:22-23),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걷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다. 만약 우리의 새 삶이 성령의 은혜라면, 성령에 의한 삶의 모양으로 질서를 잡아가야 한다고 바울은 이 구절의 말씀을 결론짓는다.

J. I. Packer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인도하심을 받는지 아닌지에 대한 참된 테스트는 경험에 의한 테스트가 아니라, 윤리에 의한 테스트이다. 왜냐하면 이 인도하심은 본질적으로 성화를 향한 충동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거의 고무적인 것들과 관련이 없으며, 말하자면, 우리의 기질을 죽인다든지, 욕망의 대상으로부터 생각들을 제거한다든지, 자기 탐닉이나 이기심에서 벗어나는 것들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가 말한 것이 옳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는 말씀이 속하고 있는 이들 성구들의 문맥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Led by the Spirit of God," *The Life of Faith*, May 26, 1966, p. 499).

이것은 갈라디아서 5장 16-25절의 연구와 일치한다.

로마서 8장 13-14절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Packer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상기한 말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순히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들, 즉 내주하는 죄와 끝없이 투쟁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소유한 죄성을 그들의 삶 밖으로 끌어내려고 분투하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고후 7:1) 하려는 자들이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의미한 “성령의 인도하심”이다(“Led by the Spirit of God,” p. 409).

갈라디아서 5장은 물론 로마서 8장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의 의미는 방향을 제시하는 성령의 비범한 경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신자의 윤리적 성장에 관한 것으로 나타난다.

### 3. 내주 동거의 임재

신자들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신약성경의 강조가 연구된 두 본문에서 지적되고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가 영광을 받으신 후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요 7:38) 축복들을 신자들에게 주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요 14:23)라고 하신다. 회개하는 신자가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로 약속 하셨다(행 2:38). 그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요 3:5). 만약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마음속에 거하시지 않으시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롬 8:9).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라”(롬 5:5)고 우리는 약속을 받는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있다(롬 8:13).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속사람 안에서 성령의 증거로 이 사실에 대하여 확증을 받는다(롬 8:16; 갈 4:6과 비교하시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을 도우시며,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롬 8:26).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

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전 6:19-20).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기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고후 3:18).

많은 영적 혜택들이 성령의 내주 동거 임재와 연결되어 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롬 15:13).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엡 1:13-14).

성령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역의 실제의 증거와 구속의 보증으로써 주어지셨다(요일 3:24, 4:13). 신자의 죽음에 대해서 바울은 확신하여 말하기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고후 5:5-6)라고 하셨다. 우리 안에 확신은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박고 있다(골 1:27).

바울은 기도하기를,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엡 3:16-17)라고 강구하신다. 내주 동거의 성령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를 구하는 그리스도인을 강건케 할 것이다. 그리스도는 너희 안에 사실 것이며(갈 2:20),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빌 2:13)고 말한다.

신약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성령의 사역에 관하여 많은 것을 가르친다. 관심은 “몸의 행실”과 “육체의 소욕”과 “육신의 행실”을 극복하는데 있으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갈 5:22-23)의 삶을 살도록 그리스도인을 도우시는 데 있다. 우리 안에서 성령의 사역을 통한 우리 삶에서의 하나님의 사역의 온전한 목적은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벧후 1:4).

성령의 인도하심은 (말씀을 통한) 객관적이며, (성령의 내적 역사를 통한) 주관적인 양면적 사역이다. Moses Lard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어떠한 정도에까지 내주 동거 임재를 통한 성령의 강건케 하심이 인간의 영혼으로 하여금 육신을 조절할 수 있게 하며, 인도하심이 내적인 정도에까지 미치는가? 어떠한 정도에까지 복음의 동기들은, 심령에 증거 되었을 때, 기록된 말씀 안에서 그 심령을 강건케 하며, 교화하며, 그것이 육신을 복종할 수 있게 하며, 인도하심이 내적인 정도에까지 미치게 하는가?(*A Commentary on Romans, Delight, Ark: Gospel Light, 1875, p.264*).

J. W. McGarvey와 Pendleton 역시도 같은 견해를 다음과 같이 피력한다.

성령은 외적으로 내적으로 모두 인도하신다. 외적으로, 성령은 신약성경에 나타난 복음의 진리를 공급하며, 거기서 발견된 규율과 교훈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지시인 인도하심이다. 내적으로, 성령은 제자들에게 계시된 진리와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게 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힘과 위로로 공급함으로써 도우신다(*Commentary on Thessalonians, Corinthians, Galatians, Romans, Cincinnati: Standard Publishing, p. 361*).

성경말씀의 연구와 하나님께 우리의 의지를 복종시킴으로써 우리의 심령을 가르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도록 결정하자.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내적 사람을 강건케 하실 것이며, 우리는 그 진리에 복종케 될 것이다.

#### D.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πληροῦσθε ἐν Πνεύματι, **엡 5:18**)

1. 어휘 : πληρώω (행 13:52; 엡 5:18)

- a. 문자적 의미: 가득하게 한다.
- b. 의역적인 의미: 어떤 내용을 채우다(능동적인 의미에서 주어는

추상적인 것, 사탄, 하나님 등이 되고, 수동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은 지식, 기쁨, 지혜, 성령, 위안 등으로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으로 설명된다). 신의 요구나 명령을 성취하다. 특정한 양으로 채우다(죄, 수, 시간). 예언을 성취하다. 완성하다.

## 2. πληροῦσθε의 설명

a. 이 동사는 명령형이지, 약속이 아니다.

b. 전치사 ἐν은 여격과 함께 쓰일 때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일 수 있으나 여기서의 경우에는 수단이나 대행의 도구의 뜻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ἐν의 뜻은 “~으로” 또는 “~에 의해서”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에베소서 5장 18절은 수동적인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행의 도구의 뜻인 “~에 의해서”란 뜻이 가장 적합하다.

3.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영어로 "Be filled by (or with) the Spirit"으로써 “성령에 의해서 가득 채워져라”는 뜻이다.

4. "Be filled by the Spirit with ~" 즉 “성령에 의해서 ~으로 가득 채워져라”의 뜻이다. 이는 다른 말로 Let the Holy Spirit fill you with something else. 즉 성령께서 나를 무엇인가 다른 것으로 가득 채우게 하라. 여기서 다른 무엇은 거룩한 삶인 성화의 삶 즉 성령의 열매로 본다(갈 5:22-23). 어떤 이는 성령의 열매인 성령의 은사로 대처하려고 하나 본문의 문맥상 맞지 않는다.

E.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말며”(살전 5:19).

F. “성령을 소멸치 말며”(살전 5:19).

G.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성화의 능력을 내 것으로 소화시킬 수 있는가?

1. 정보 -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라. 죄는 무엇이며, 나의 신앙상태는 어떤가를 점검하라.

2. 인식 - 성령께서 나의 안에 계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라.

왜 성령께서 나의 안에 계신가를 알라.

3. 소원 - 죄를 제거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하는 신실한 소원을 가지라.

4. 기도 -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움을 구하라. 시험을 이기고 선행을 베풀 수 있도록 그의 도움을 빌라.

5. 복종 -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성령의 능력에 굴복하라.

6. 신뢰 - 성령께서 필요한 능력을 부여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라.

7. 감사 -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도움을 주신 성령님께 감사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 10. 회심후의 성령의 사역 ▪ 성령의 도구화의 사역

### A. “성령의 은사들”에 대한 개념

1. “성령의 은사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들이다.

2. 은사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교회(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개개인을 도구화 하는 것이다.

3. 신령한 은사들의 목록

a. 로마서 12장 3-8절 - 예언, 섬김, 가르침, 권위(勸慰), 구제, 긍휼

b. 에베소서 4장 11절 - 사도들, 선지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 목양자들 (장로들), 교사들

c. 고린도전서 12장 8-10절 -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신유,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각종 방언, 방언 통역

d. 고린도전서 12장 28-30절 - 사도들, 선지자들, 교사들, 능력, 신유, 협동, 다스림, 각종 방언, 방언 통역

B. 신령한 은사들의 범주 (범주화의 요점은 목적과 필요이다.)

1. 어떤 은사들은 일시적이다. 왜냐하면, 은사의 필요성이 일시적이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일시적 필요성은 구약성경에 비견할만한 권위 있는 기록된 말씀의 계시의 결핍으로 발생되어졌다.

- a. 사도직분
- b. 기적적인 지식의 은사들 (예언, 지식, 지혜, 영분별, 방언, 방언 통역).
- c. 기적적인 능력의 은사들 (믿음, 신유, 기적, 방언들).

2. 어떤 은사들은 영구적이다. 왜냐하면, 은사의 필요성이 영구적이기 때문이다.

- a. 다스리는 능력 (다스림, 목양자들, 치리).
- b.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할 능력 (교사들, 전도자들, 권위자勸慰者들).
- c. 여러모로 돕고 봉사하는 능력 (사역, 협조).
- d. 기타 (구제, 긍휼).

### C. 어떻게 우리가 기적적인 은사들의 일시적인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가?

1. 일반적으로 기적들의 목적에 관한 성경적 가르침.

a. 기적들은 함께 일어나는 여러 가지를 함께 짚 큰 보따리의 일부분이다.

- 1) 구속의 사건들 -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들.
- 2) 계시 - 구속의 사건들을 설명하는 하나님의 말씀들.
- 3) 기적 - 계시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표적들.

b. 막 2:10, 16:20; 요 10:38, 20:30-31; 행 2:22, 4:16, 8:6; 고후 12:12; 히 2:3-4; 딤후 2:2.

하나님의 역사(役事)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특별한 방법의 역사와 일반적이고 자연스런 방법의 역사가 있다.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란 통치, 기적, 계시를 말하고, 하나님의 일반적인 역사는 조절, 섭리, 영감을 말한다. 통치, 기적, 계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인간사에 개입하시는 것으로서, 천지창조,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성육신과 같은 초자연적인 사건을 말하며, 자연의 법칙에 어긋난 어떤 일의 발생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러나 조절, 섭리, 영감은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인간사에 개입하시는 것으로서, 의사나 약의 도움에 의한 치유, 친구나 모르는 사람을 통한 기도의 응답과 같은 자연의 법칙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아니 하면서도 우리의 삶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한다. 성서가 기적에 대해서 말할 때는 언제나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란 세 단어를 함께 쓰고 있다는 사실(행 2:22; 고후 12:12; 살후 2:9; 히 2:4; 롬 15:18)과 반드시 기적의 목적과 관련되어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큰 권능”(power/δυνάμει)은 기적의 근원 즉 하나님의 큰 능력 행함을 말한다. 둘째, “기사”(wonders/τέρασι)는 표적과 함께 쓰이고 언제나 복수형이다. 기적의 결과 즉 하나님의 큰 능력 행함을 눈으로 본 사람들의 마음에 일어나는 결과들, 예를 들면, 놀람, 경악, 기이함 등을 말한다. 셋째, “표적”(signs/σημεία)은 확증, 입증의 의미이다. 기적의 목적이다. 기적은 표적을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진다.

기적은 메신저가 전한 계시의 진실성을 입증, 증거, 확증하는 표적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의 능력 행함은 증거적인 것이다. 전하는 메신저와 전해지는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성서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면, 첫째, 모세의 기적은 이스라엘 국가 형성을 위한 것이었고, 엘리야의 기적은 야훼가 참 하나님이심을 입증하는 것이었다(왕상 17:24). 둘째, 예수의 능력 행함은 그가 그리스도이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키 위한 것이었다(2:22). 셋째, 사도들의 방언과 능력 행함은 교회 창립과 신약성서의 완성을 위한 것이었다.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들에 대한 해석이며, 기적 즉 하나님의 능력 행함은 이 계시의 진실성과 확실성을 입증, 확증 또는 증거하는 표적이다.

## 2. 기적적인 은사들과 사도들의 안수 사이에 필요한 관련성

a.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사역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로부터 행하여지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으나(행 8:13), 성령의 기적적인 은사들은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안수할 때까지는 내리지 않았다. 즉 빌립은 성령의 큰 은사를 가진 종이었으나 기적적인 성령의 은사들을 안수를 통해서 내리게 할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행 8:5-24).

b. 사도행전 19장 6절을 보시오. 에베소의 열두 제자들도 바울 사도의 안수 후 기적적인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였다.

c. 초대교회의 상황을 보건데, 수천 명의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받았으나(행 2:38-41, 4:4, 5:14), 오직 사도들만이 기적을 행할 수 있었다(행 2:43, 3:6, 4:33, 5:12-16). 그리고 사도들의 안수를 받은 사람들만이 기적적인 성령의 은사를 받고 빌립과 스테반처럼 능력을 행한 것을 볼 수 있다(행 6:6-8, 8:6; 기타).

d.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한 것이 그로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는가? 사도행전 9장 12-18절과 22장 13-19절을 보시오. 여기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의 뜻이 은사를 말한다기보다는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 3. 어떤 성령의 은사들은 중지되었다는 특정한 진술 - 고전 13:10.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but when perfection comes, the imperfect disappears.”

(본 구절에 대한 아래의 해석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학문적으로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음을 감안하여 연구해 주기 바란다.)

### a. 두 대조들

1) 주요한 대조는 8절의 일시적인 것들과 13절의 영구적인 것들 사이의 대조이다.



2) 두 번째의 대조는 왜 이러한 것들이 단지 일시적인 것인가를 보여준다(9-12절). 그것들은 단지 부분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들은 (일시적인 것들) 온전한 것으로 대치될 것이다. (teleion은 온전한 또는 완전한의 뜻이며 중성 형용사이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이고 일시적으로 하던 것이 폐할 것이다.

b. 온전한 것이 무엇인가?

1) 나타날 시간에 관한 제한들 -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을 기록한 후에 또는 말세 즉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믿음 소망 사랑이 아직 있을 때(13절). 소망은 이 시대가 끝나면 쓸모가 없어진다(롬 8:24-25; 골 1:27).

2) 대조되는 것이 방언 예언 지식인 것으로 봐서 온전한 것이란 계시된 지식과 동일한 범주 속에 있는 어떤 것임을 요구한다.

3) 이들 요구사항에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완성된 신약성경이다.

c.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1) 믿음 소망 사랑은 부분적으로 하던 은사들이 끝나도 계속될 것이다.

2) 믿음과 소망은 재림 이후에까지 계속되지 않을 것이다.

3)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들은 재림 때까지 계속되지 않을 것이다.

4) 성령의 은사들은 지난 2세기부터 17세기까지 알려져 있지 않았다.

5) 오늘날 성령의 은사들이 존재한다면, 계속되는 계시를 인정해야 한다. 그러면 성경은 필요치 않게 된다(예: 몰몬경). 부분적인 것은 예언 방언 지식을 말한다. 그러면 온전한 것도 역시 예언 방언 지식을 두고 하는 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teleion”이란 말은 14장 20절에도 나타나는데, “장성한”이란 뜻으로 쓰이고 있다. 그러므로 온전한 것이란 그리스도의 재림을 두고 말한 것이 아니라, 장성한 또는 성숙된 예언 방언 지식, 곧 신약성경을 말한다.

d.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것으로 12절이 제시하지 않는가?

1)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여기서 대조는 희미하게 거울(고대 청동거울)로 보는 것과 분명하게 얼굴과 얼굴로 마주보는 것의 대조이다. 희미한 것과 얼굴과 얼굴로 보는 것은 수수께끼 즉 불완전한 계시와 분명하고 완전한 계시와의 대조이다(약 1:23-25; 고후 3:7-18; 민 12:6-8). 우리가 예언이나 방언과 같은 가끔씩 주시는 계시에 의존할 때는 마치 글키고 오래된 희미한 청동거울로 우리 자신을 보려고 노력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완성된 신약성경이 주어질 때는 선명한 새 거울로 보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분명하고 깨끗하게 보는 것과 같을 것이다.

2)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어떤 경우에도 심지어는 천국에서조차도 우리는 완벽한 지식을 갖지 못할 것이다. 지식은 일시적인 신령한 은사들을 통해서 주신 부분적인 지식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온전하고 완전한 것일 뿐이지, 그 지식이 완벽한 것은 아니다. 천국에서조차도 우리가 온전한 지식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피조물은 성도나 천사라도 하나님의 참된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현시 즉 theophany(변신變身) 즉 감춰진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을 뿐이다. 지식의 대상은 반드시 하나님이나 그리스도만은 아니다. 그것은 자신에 대한 더욱 온전한 지식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와 같은 지식은 성경을 통해서 주어진다(히 4:12; 딤후 3:16; 약 1:25).

e. 결론적으로 고린도전서 13장 10절의 최상의 해석은 온전한 것이 완성된 신약성경이란 것이다. 이 결론이 사도들의 죽음 이후 성령의 은사가 더 이상 후대에 전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증한다.

#### 4. 희미한 것 (거울, 고전 13:12)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a. 용어: αἰνίγμα (ἑσόπτρον)

1) αἰνίγμα - 희미한 말, 수수께끼, 희미한 것

2) ἑσόπτρον - 거울, 유리거울이 아닌 청동이나 강철거울을 말한다.

b. 이 말은 신약의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만 나타난다. 현재의 불완전하게 보는 것과 종말론적인 완전하게 보는 것을 대조한다. *ainigma*는 종교적인 언어의 신비적인 요소 때문에 수수께끼라고 해석되고 또한 이해될 수 있다. 개념과 신탁 또는 예언적인 선포사이에는 물질적인 연결이 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수수께끼로 말씀하시고 (우리말의 해석은 “은밀한 말로”), 모세에게는 대면하여 명백히 말씀하셨다(민 12:8). 헬라인이나 유대인들 사이에서 예언적인 말씀의 본질은 해석을 요구하는 수수께끼로 말한다는 것이다. *esoptron*에서 “거울로 본다”는 것은 또한 “예언적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대인 학자들은 모세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다른 선지자들의 지식과 비교했을 때, 모세에게는 단 한 개의 거울이 필요한데 반하여 다른 선지자들은 아홉 개의 거울의 도움으로 하나님을 보았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또한 선지자들은 희미한 거울로 하나님을 본 반면, 모세는 맑은 거울로 그를 보았다고 설명한다. 또는 민수기 12장 6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되 맑은 거울로 아니하시고, 꿈과 이상으로 하셨으며, 민수기 12장 8절에 의하면, 모세에게는 맑은 거울로 하시고, 입과 입으로 “대면하여 명백히”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를 두고 하신 말씀이다(Kittel,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vol. 1, pp, 179-180).

##### 5. 성령의 은사에 제기된 문제점들

a. 은사운동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경험을 중시한다. 즉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이 주관적인 체험에 의해서 경시되고 있다. 현대신학의 약점이 바로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경시하고 주관적인 느낌과 적용을 중시하는데 있다. 은사운동은 현대신학과 어떤 면에서 는 같은 맥을 잇고 있다.

b. 요한복음 16장 14-15절에 언급된 성령의 사역과는 정반대로 종종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고양되고 있다.

c. 오늘날 나타나는 기적의 표명은 온갖 종류의 거짓 교리와 거짓 종교들과 연관되어서 일어나고 있으며 더불어 거짓 연합을 형성한다. 예: 가톨릭, 모르몬교(육체를 가진 하나님, 하나님=인간, 삼위일체 부정,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님의 문자적 자녀라는 등의 교리를 가르침), 유니테리언주의자들(The Way International).

d. 성령의 사역의 목적과는 반대로 오늘날의 주의 백성들과 주의 교회를 분단시키려는 경향이 있다(고전 12:13).

e. 요즘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은 방언 말함에 대한 성경의 규칙들을 지키고 있지 않다.

## D. 어떻게 우리가 오순절 은사운동을 설명할 수 있는가?

### 1. 은사운동의 역사 (또는 현상)

a. glossolalia - 해독할 수 없는 언어, 배울 수 없는 언어. 사도행전 2장의 방언과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주장된 방언이 언어학적 입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단점도 고려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방언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지, 사탄으로부터 오는지, 또는 단순히 인위적인 것인지를 판단할 객관적인 판단이 어렵다는 약점이 있다.

b. 방언 통역 - 방언 통역 역시도 객관적인 판단이 어렵다는 약점이 있다.

c. 신유의 은사 - 하나님의 능력은 병든 자를 능히 고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어떤 특정인의 기도를 다른 사람의 기도보다 더 잘 응답하시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주장된 은사로

빛어지는 많은 문제점을 감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 때에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마 7:22-23)고 하셨다.

d. 예언 - 예언이란 무엇인가?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다. 점과 예언은 구분되어야 한다. 예정과 예언 그리고 점과 비교하여 생각하여 보자.

e. 귀신 쫓음, 뱀 다루기, 입신, 거룩한 웃음, 등.

## 2. 이들 역사(또는 현상)에 대한 가능한 설명

a. 자연적인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위장이나 심리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상당수의 현상은 심리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것도 사실이다.

b. 초자연적 역사 즉 성령의 역사나 사탄의 역사 가운데 한 가지 일 수도 있다. 성령의 역사는 증거적인 외적인 역사이며, 주장된 상당수의 역사는 사탄의 역사에 속할 수 있다.

## 3. 은사운동의 사이비 종교와 관련성

a. 마귀활동의 현실성(살후 2:9). 마귀가 주는 지식, 마귀의 권세, 영주의(Spiritism, 심령과학).

b. 은사운동에서 일어나는 많은 비슷한 역사들이 사이비 종단이나 이방 종단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분명한 분별의 어려움이 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하셨다(마 7:20).

### c. 질문

1)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성도들의 삶속에 사탄의 활동의 침입이 가능한가? 그렇다.

2) 왜 은사운동에서 나타나는 많은 좋은 점들이 사탄의 사역인 양 이단시 취급되는가? 사탄의 회유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진리

를 충분히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사탄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조심하고 경계하여야 한다(살후 2:9-12; 고후 11:13-14를 보시오).

3) 만약 은사운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사탄의 것으로 돌렸다면 속죄 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는가? 없다. 마태복음 12장 12절 이하의 말씀은 의도적이고 의식적인 신성모독으로써 입으로 범한 죄를 말하기 때문이다.

## 11. 오순절 운동 개요

### A. 오순절 운동의 중요성과 현 위치

#### 1. 주요 관심

- a. 성령임재의 직접적인 체험
- b. 현대교회의 능력 결핍
- c. 모든 개개인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 d. 오순절 은사운동을 주장하는 교회들은 단체적이며, 회중적이다. 일사불란한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 e. 사도시대의 재현육망(히 13:8).

#### 2. 역사관

- a. 교회의 타락
- b. 교회 개혁의 필요성
- c. 마지막 늦은 비의 시기 - 종말론적 시기

### B. 오순절 운동의 중요성

1. 부정적인 면 - 교회 연합의 문제
2. 적극적인 면 - 성장, 생동감, 영향력이 있다.
3. 신학적인 면 - 체험 속의 성령을 강조.

### C. 오순절 운동의 배경

1. 몬타니즘(Montanism, c. 156년 이후 발생)

- a. 마지막 늦은 비의 시대로 봄
- b. 말세 강조
- c. 엄격한 금욕주의
- d. 오순절 운동의 시조

2. John Wesley(1703-1791)와 감리교

- a. 감리교는 19세기 미국 성결운동과 20세기의 오순절 운동의 시조이다.
- b. 칭의 후에 “제2의 은혜의 사역” 즉 성결을 주장한다. 칭의와 성화를 시간적으로 별개의 것으로 본다.
- c. 성령세례와 방언 속에서의 최종적인 구원과 성화를 주장한다.

3. Charles Finney(1792-1876)

그는 원시적인 웨슬리의 성령운동과 현대 오순절 운동의 교량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성령운동의 신학과 실천을 정립하였다.

4. 성공회와 R. A. Torrey

오순절 운동 직전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인물이다.

## D. 성령운동의 발생

미국에서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대 변동기에 탄생하였다.

- 1. William Seymour가 Azusa거리 모임을 주도했는데, 1906년 4월 9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오순절 운동의 불이 붙었다.
- 2. T. B. Barratt(1862-1940) - 유럽 오순절 운동의 시조 (노르웨이인).
- 3. 신 오순절 운동 - 흥분과 광란의 감정을 지향한 은사운동이다.

## E. 교리

1. 성령론

- a. 회심 후 성령 충만을 주장한다.
- b. 방언을 성령 임재의 초기 증거로 믿는다.
- c. 절대적인 순종과 믿음이 필수 조건이다.

2. 순복음 (Full Gospel) - 성화, 복음, 신유, 재림 등의 교리를 말한다.

3. Pneumobaptistocentric Pentecostalism (성령세례 중심의 오순절 운동)

- a. Protestantism - Christocentric
- b. Lutheranism - Chariscentric
- c. Calvinism - Theocentric
- d. Anglicanism - Ecclesiocentric
- e. Anabaptism - Kardiocentric
- f. Methodism - Hagiocentric

4. 성령세례의 정의

성령 안에서(in) 또는 성령으로(with) 충만히 받는 것을 말한다. 회심 때 성령은 신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주지만, 회심 후에는 그리스도께서 신자를 성령 안에서 세례를 주신다고 믿는다.

5. 성령세례의 특징

- a. 계속(후속) 사건 - 칭의 후의 경험, 제2의 은혜의 사역
- b. 증거 - 방언
- c. 조건들 - 회심, 순종(능동적인 순종 - 죄와 분리, 심령정화, 기도, 수동적인 순종 - 철저한 마김, 기다림), 믿음

6. 교단

Assemblies of God, General Council of  
Calvary Pentecostal Church Inc.  
Elim Fellowship  
Emmanuel Holiness Church



Independent Assemblies of God, International  
International Pentecostal Church of Christ  
International Pentecostal Holiness Church  
Pentecostal Assemblies of the World, Inc.  
Pentecostal Church of God  
Pentecostal Free Will Baptist Church, Inc.  
United Pentecostal Church International